

KAAB 2023 인증기준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KAAB 2023 인증기준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방법

- 1) 온라인 설문조사(구글 폼)

2. 설문조사 대상

- 1) 교수(인증 대학, 미인증대학) – 89명
- 2) 실무수련자(건축계열 회사 근무자 및 대학원, 취업준비생) – 63명
- 3) 건축사(설계사무소 근무자) – 82명

3. 설문조사 기간

–2023.09.15 ~ 2023.10.31(한달 반)

KAAB 2023 인증기준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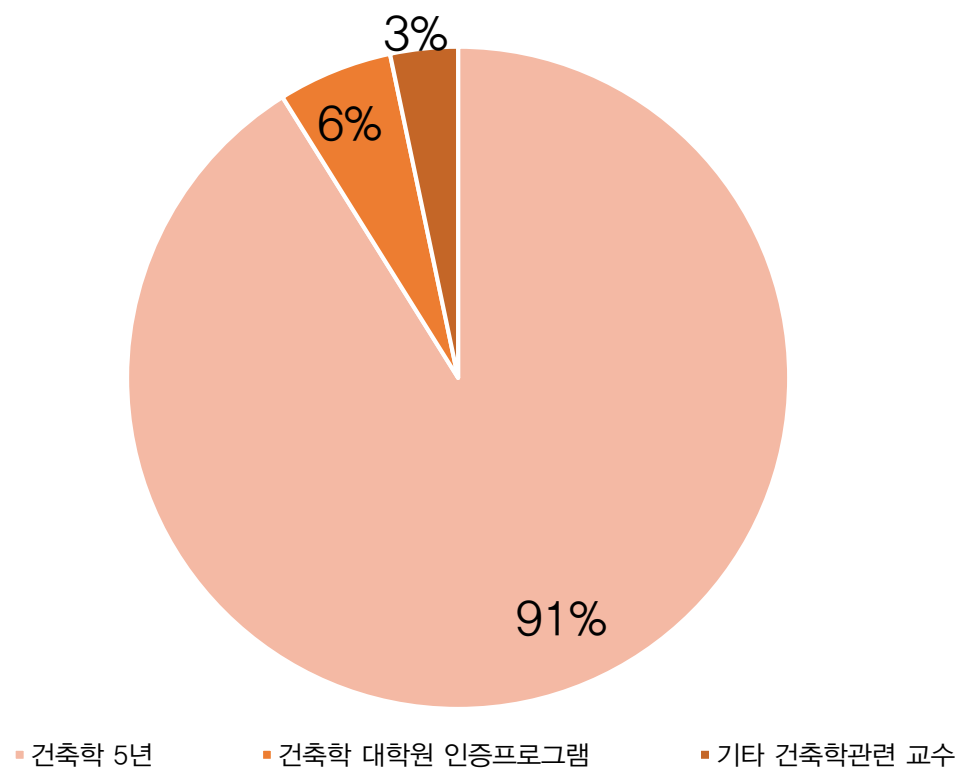
	질문사항	교수	실무자	건축사
인적사항	귀하의 소속을 선택해 주세요	●		●
	귀하의 건축학 인증 참여 회수는?(피실사의 경우도 포함)	●		●
	건축관련 실무 경력은? (석사 이상 교육경력 포함)	●		●
	한국건축사 자격 소지 여부			●
	실무수련자의 능력 중 "만족스러운" 영역은? (복수 선택)			●
	실무수련자의 능력 중 "불만족스러운" 영역은? (복수 선택)			●
	실무수련 경험을 통해 대학교육에서 "불만족스러운" 영역은? (복수 선택)		●	
	재학기간 비정규 교육과정에서 보완(강화)되어야 할 내용은? (복수 선택)		●	
	졸업시기		●	
	귀하의 현재 직장은?		●	
	재학 중 건축학교육 인증실사 경험 유무		●	
	각 학생수행평가기준에 세부평가기준이 필요한가?	●		
	추가되어야 하는 분야로 적절한 항목은?	●		
	인증 학위과정 졸업자 능력 중 "만족스러운" 영역은? (복수 선택)	●		
	인증 학위과정 졸업자 능력 중 "불만족스러운" 영역은? (복수 선택)	●		
Part 1.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주요관점	2.1.1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소속 대학교	●		●
	2.1.2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학생	●		●
	2.1.3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건축사	●		●
	2.1.4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사회	●		●
Part 2. 교육 프로그램 운용체계 및 교육환경	2.2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자체평가체계 및 중장기 발전계획	●		●
	2.3 학위 및 교과과정	●		●
	2.4 학생정보	●		●
	2.5 인적자원 및 운용체계	●		●
	2.6 물리적 자원	●		●
	2.7 재정자원	●		●
	2.8 연구활동	●		●

	질문사항	교수	실무자	건축사
Part 3. 프로그램 학습성과 학생수행평가기준(SPC)	2018 학생수행평가기준의 26개의 개수는?	●	●	●
	(부적절 혹은 매우 부적절 선택 시) SPC 26개 항목의 개수가 부적절한 이유는?	●	●	●
	2018 학생수행평가기준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	●	●
	2018 학생수행평가기준은 '이해한다'와 '할 수 있다' 2개의 성취도가 있습니다. 이의 적절성은?	●	●	●
	현재 학생수행평가기준의 분류체계는 적절한가? (종합적 평가)	●	●	●
	추가되어야 하는 분야로 적절한 항목은?	●	●	●
학생수행평가기준(SPC)	spc 평가기준 1~26 적절도	●	●	●
학생수행평가기준(SPC)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건축적 사고 영역	●	●	●
	설계 영역	●	●	●
	기술 영역	●	●	●
	실무 영역	●	●	●
학생수행평가기준(SPC)에 추가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평가	한국건축설계(능력)	●	●	●
	도시재생(이해,능력)	●	●	●
	건축적 사고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	●	●
	설계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	●	●
	기술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	●	●
	실무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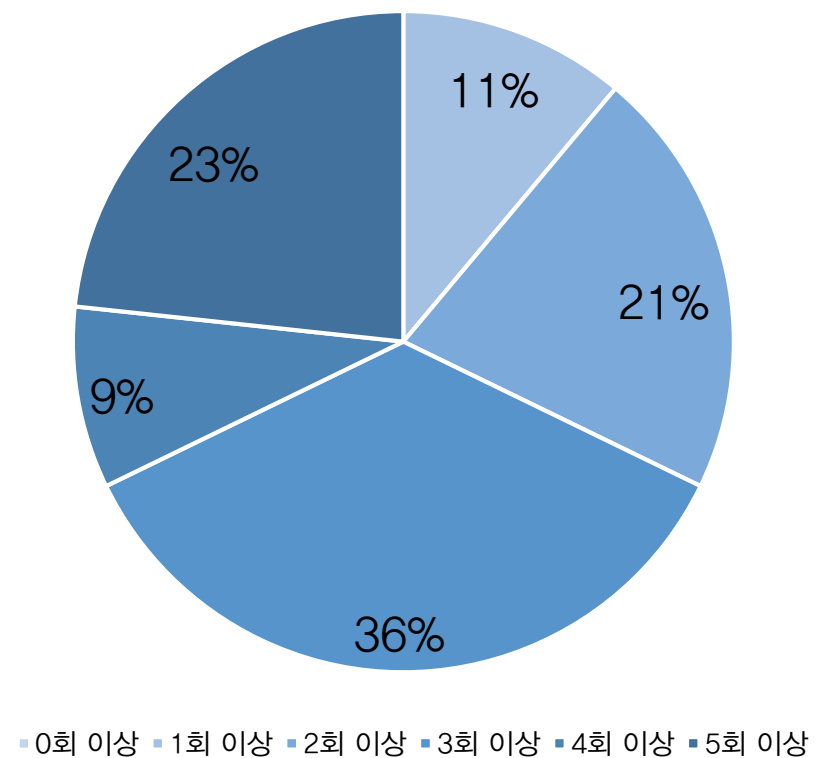
인적사항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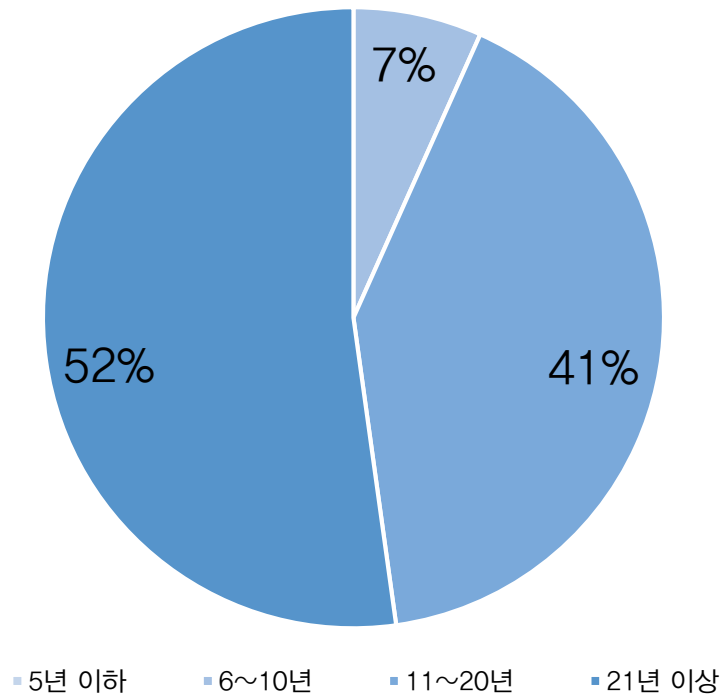
귀하의 소속을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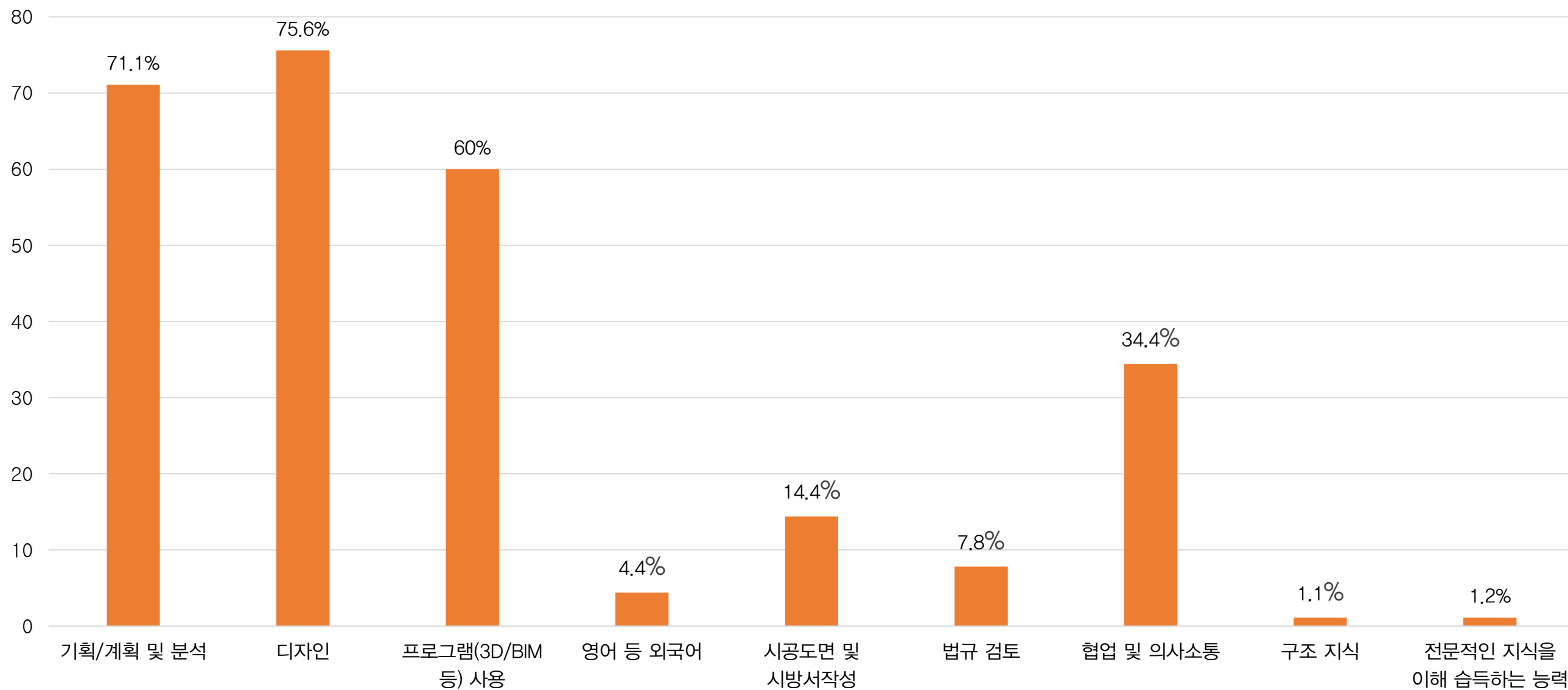
귀하의 건축학 인증 참여 회수는?
(피실사의 경우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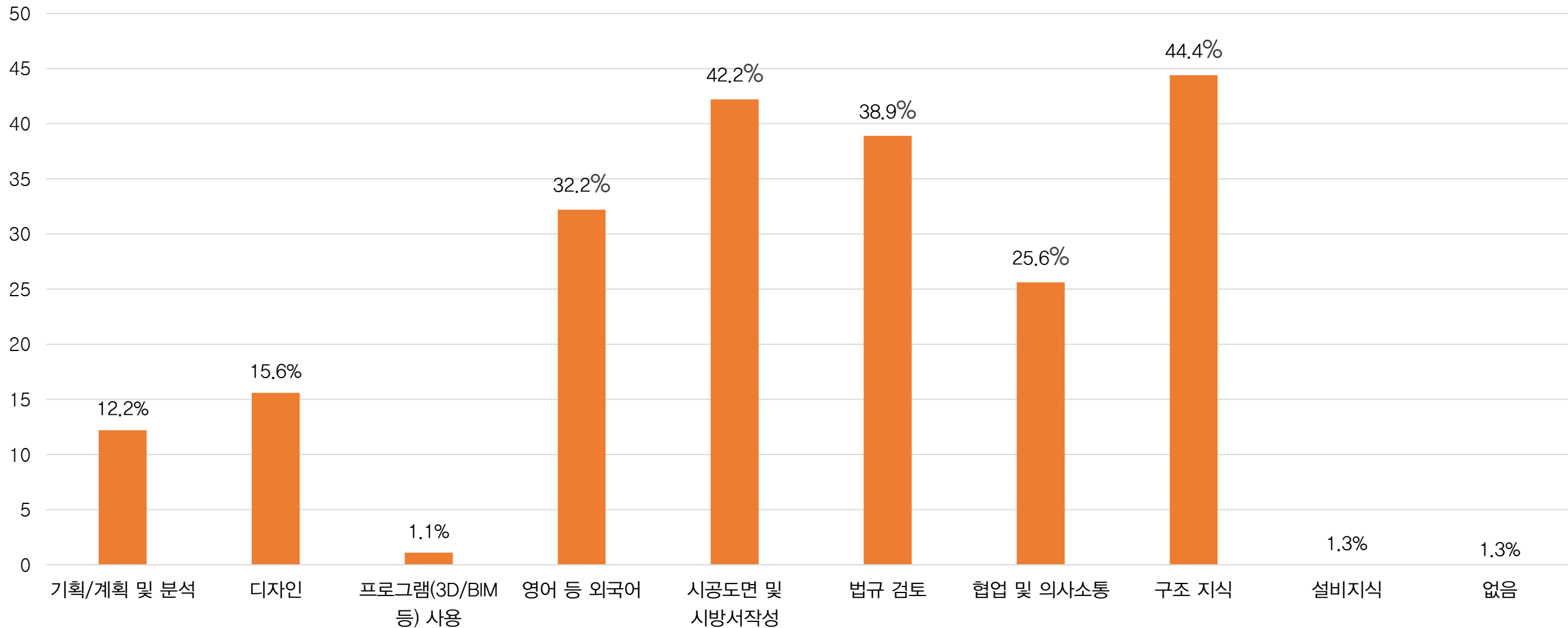
건축관련 실무 경력은?
(석사 이상 교육경력 포함)



인증 학위과정 졸업자 능력 중 “만족스러운” 영역은? (복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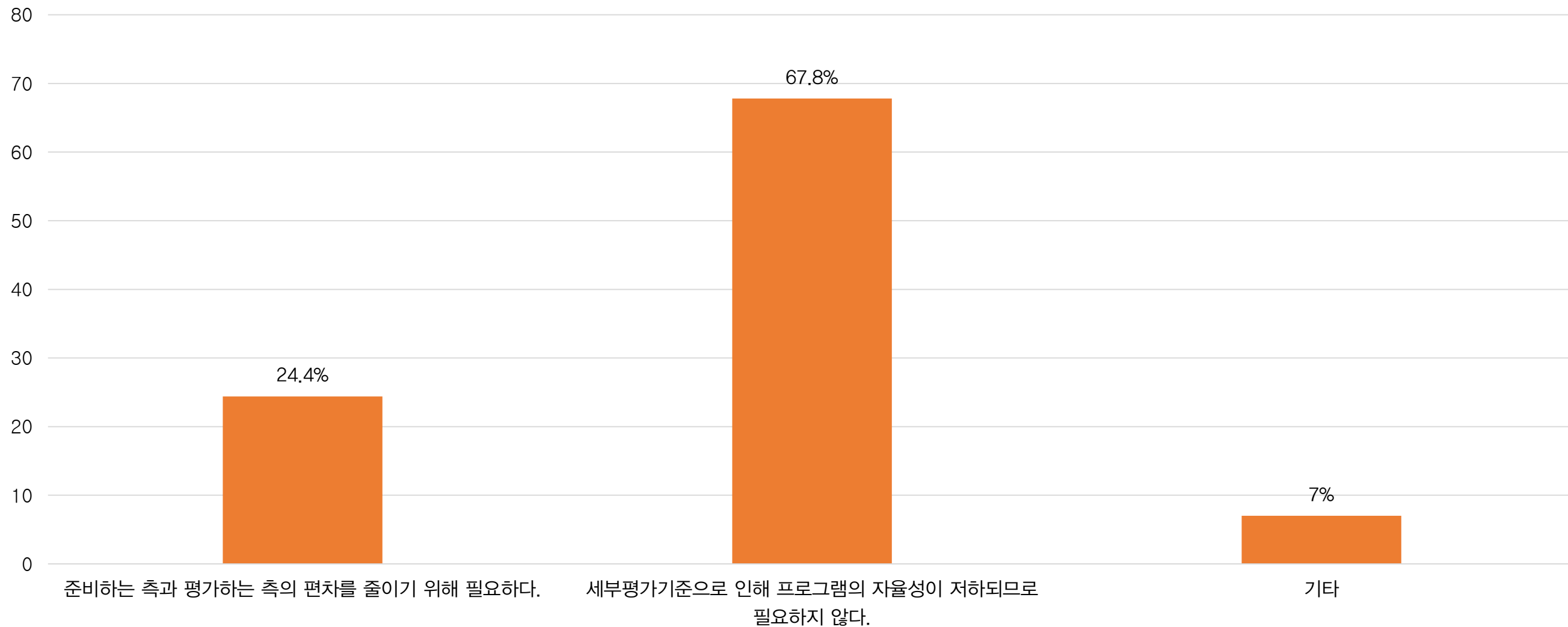


인증 학위과정 졸업자 능력 중 “불만족스러운” 영역은? (복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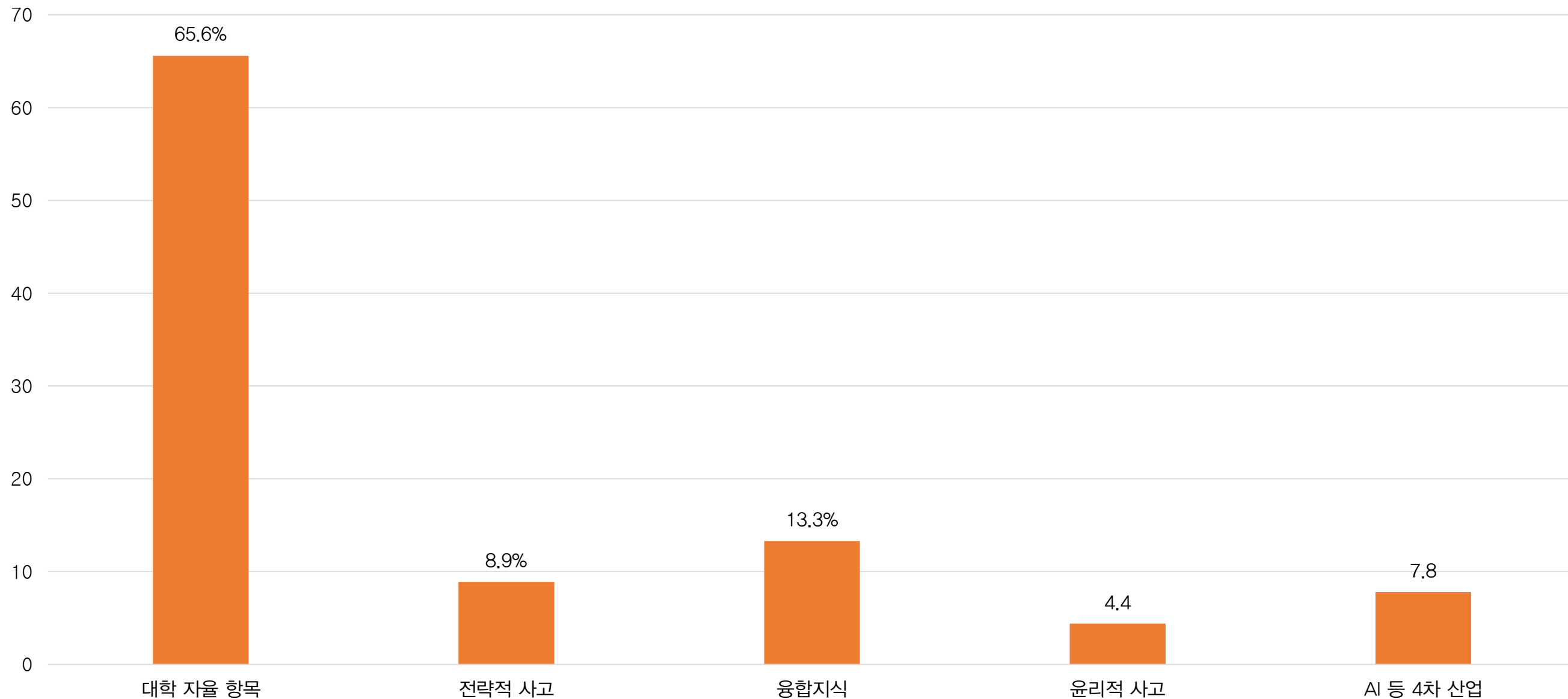
기타의견: 잡다한 분야를 조금씩 알 뿐, 가장 중요한 디자인 능력이 천편일률임, 학문적 다양성 확보, 지나친 실무중심의 기능적 교육으로 인한 기획-계획-분석-디자인 등 기본적인 건축 역량의 부족, 보고서 작성, 다양한 활동 시간이 부족하여 견문이 넓지 않은 부분, 신생 분야 지식, 창의성

각 학생수행평가기준에 세부평가기준이 필요한가?



기타의견: 필요하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이 간략해져야 한다, 신규인증의 경우 필요, 가장 최소한으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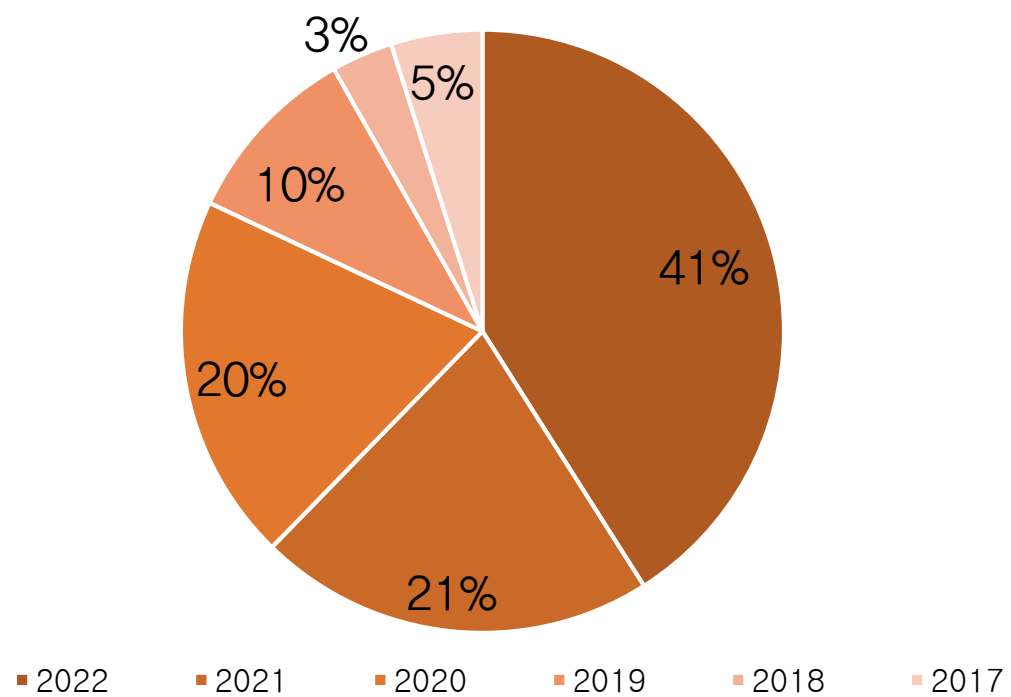
추가되어야 하는 분야로 적절한 항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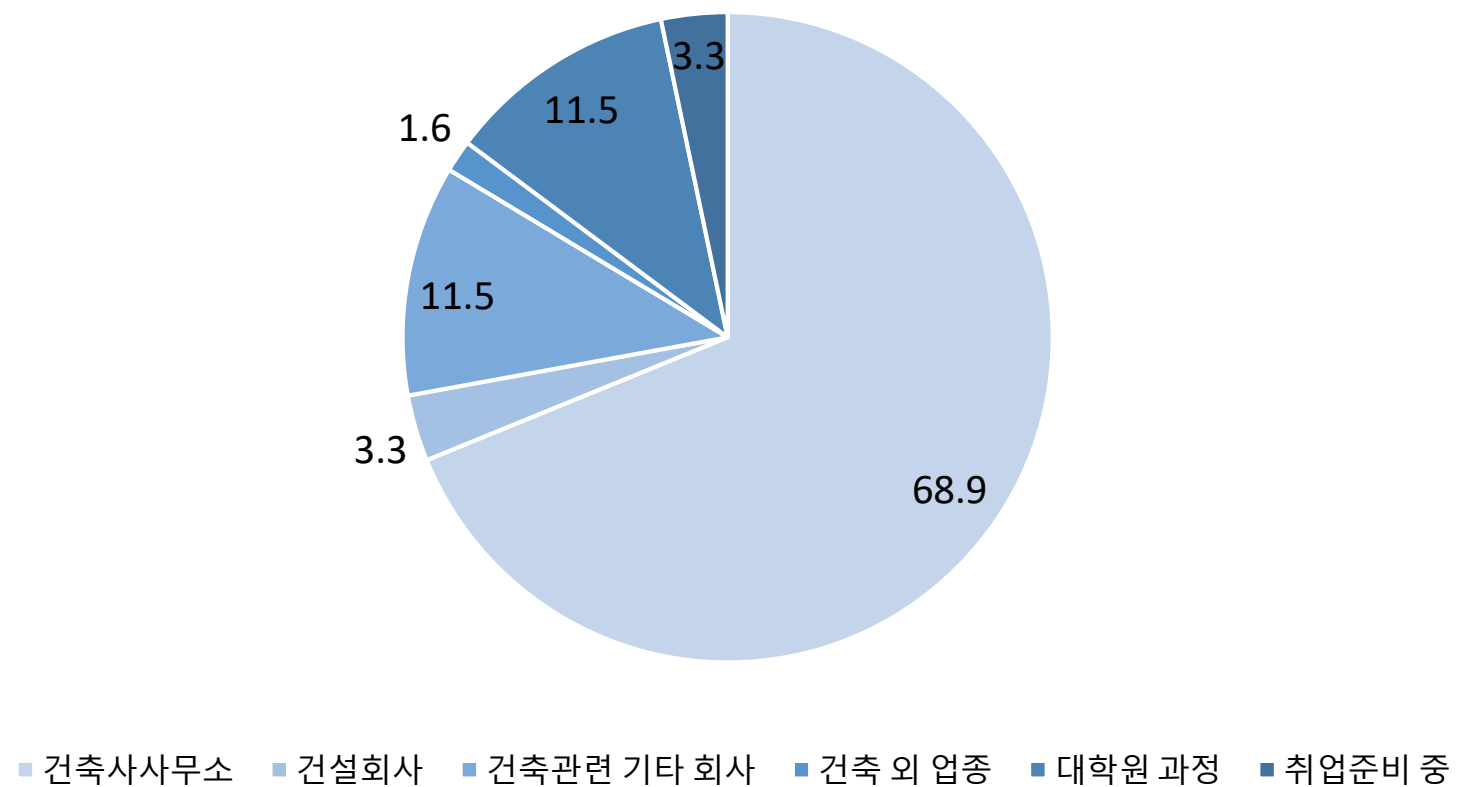
인적사항

-실무수련자 또는 건축사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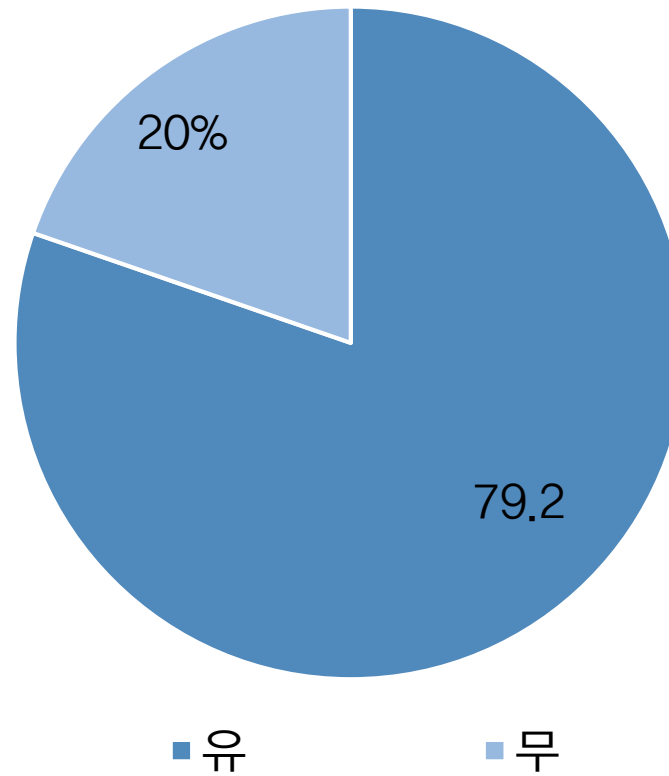
졸업시기가 언제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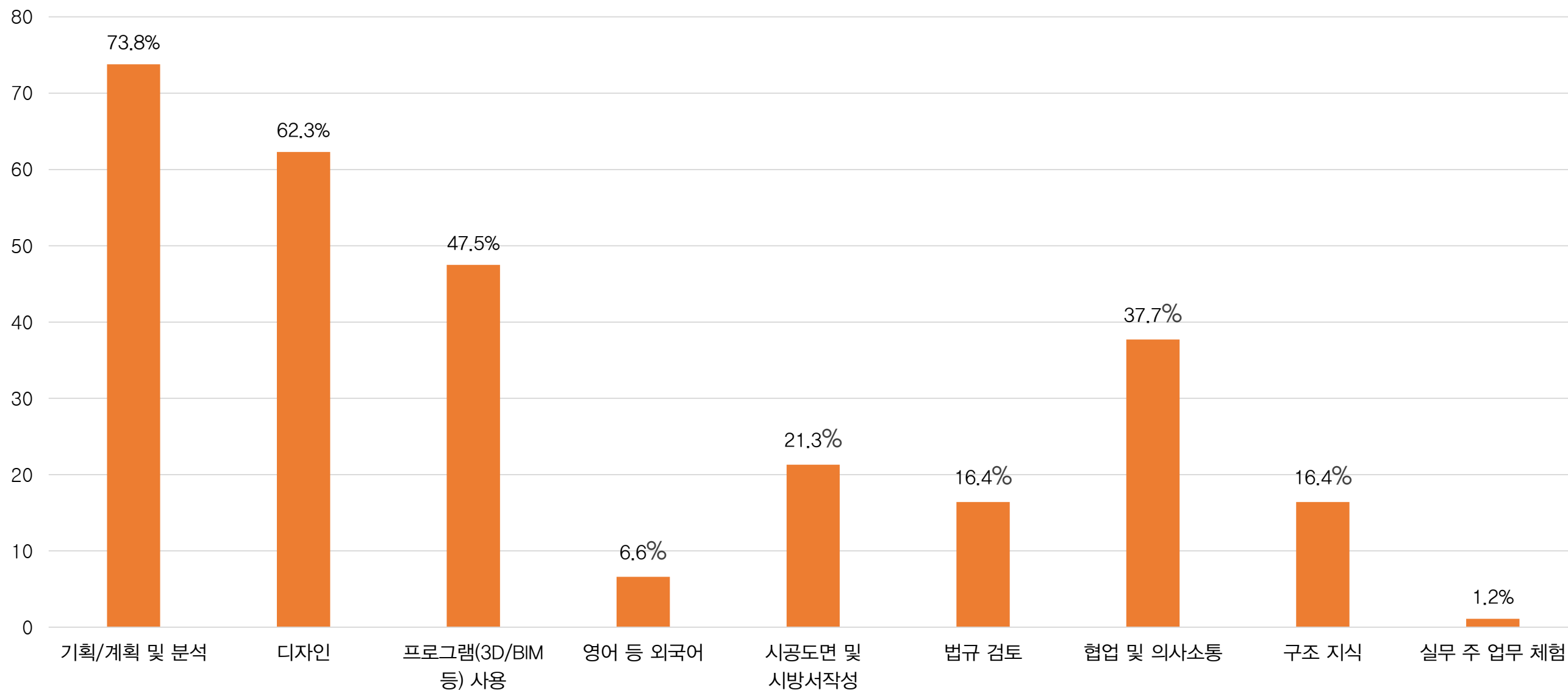
귀하의 현재 직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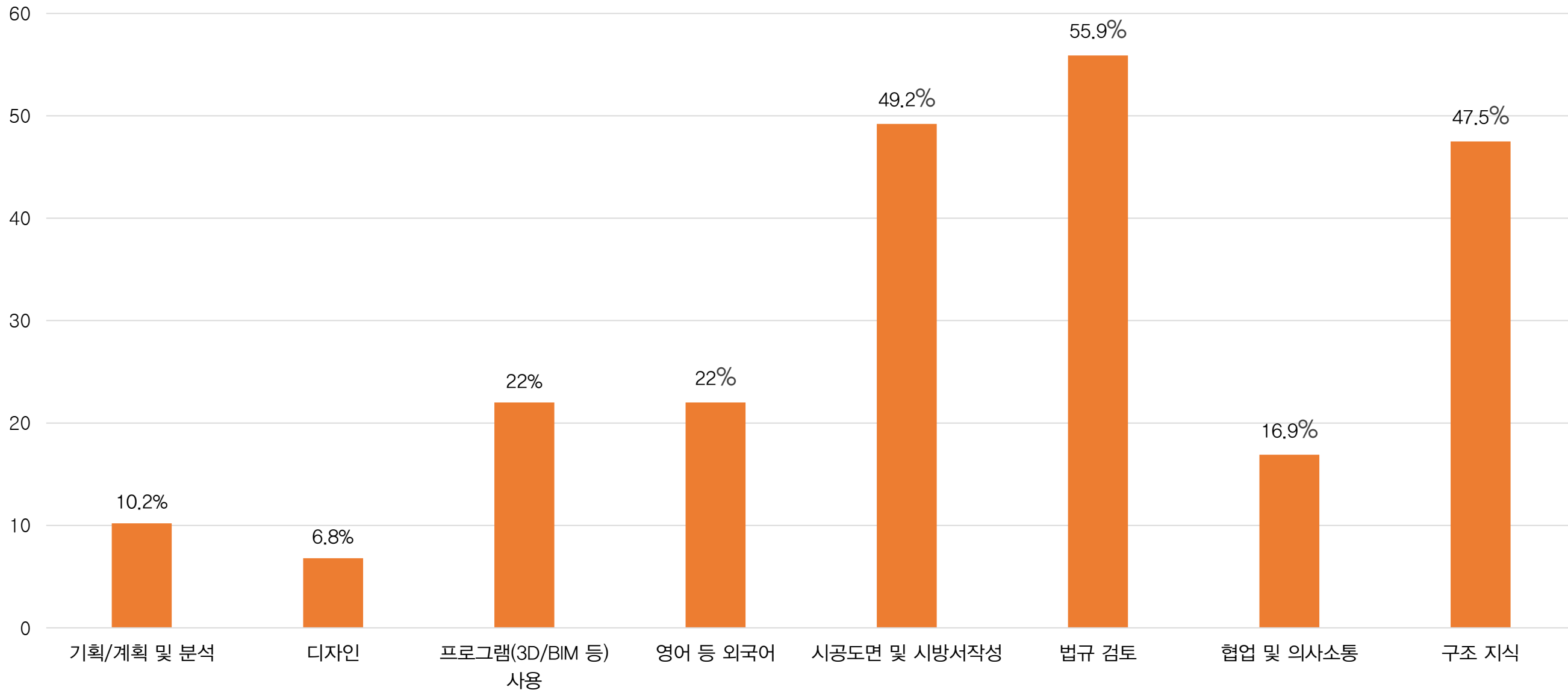
건축관련 실무 경력은?
(석사 이상 교육경력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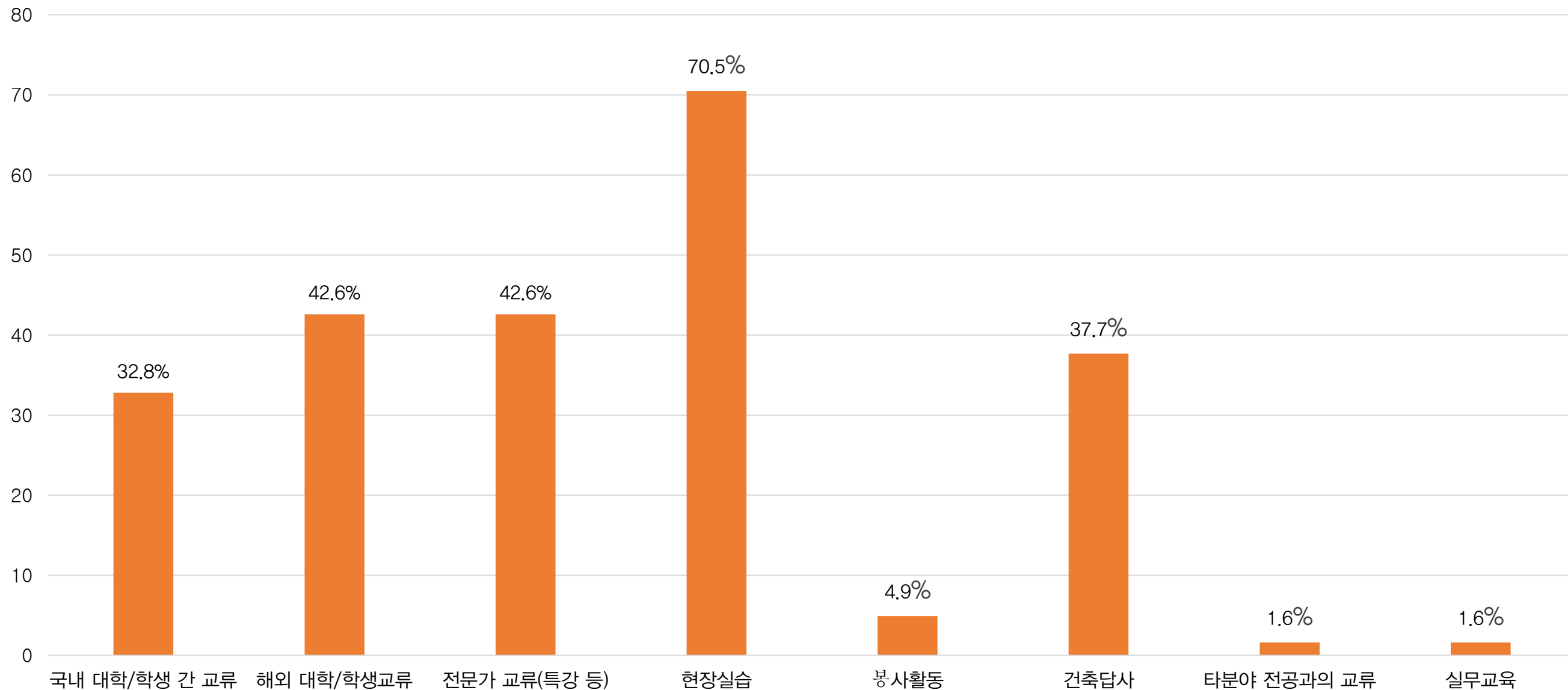
실무수련 경험을 통해 대학교육에서 “만족스러운” 영역은?(복수 선택)



실무수련 경험을 통해 대학교육에서 “불만족스러운” 영역은?(복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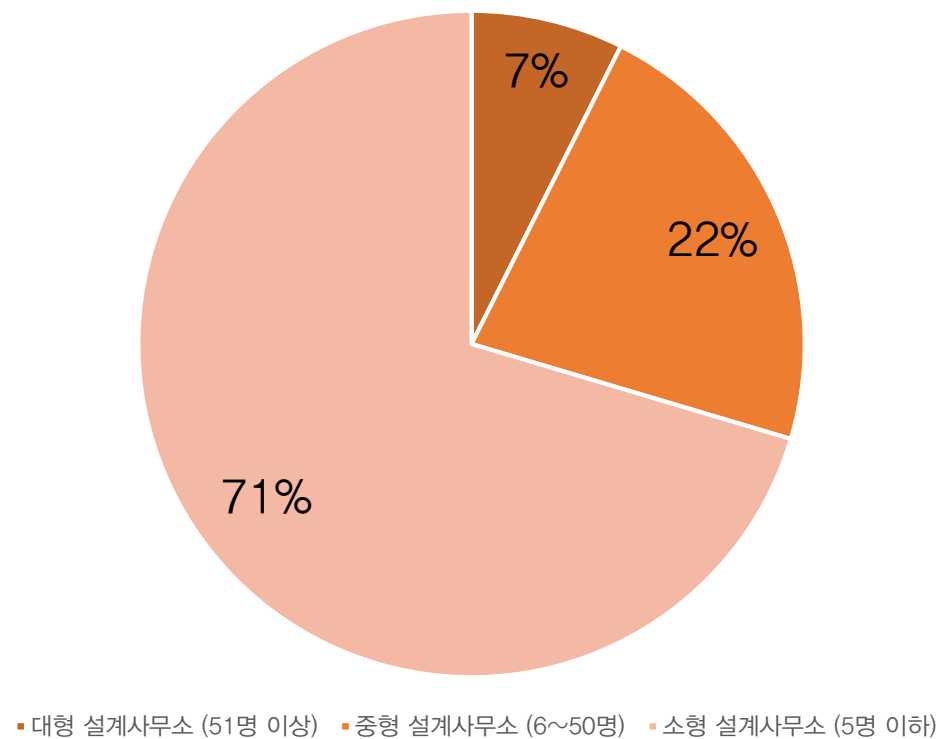
재학기간 비정규 교육과정에서 보완(강화)되어야 할 내용은? (복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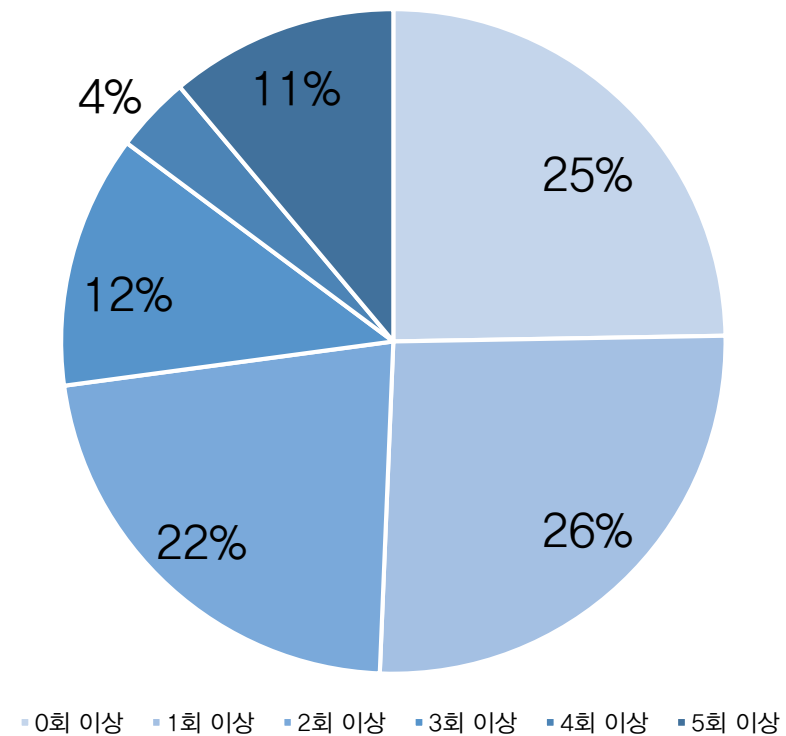
인적사항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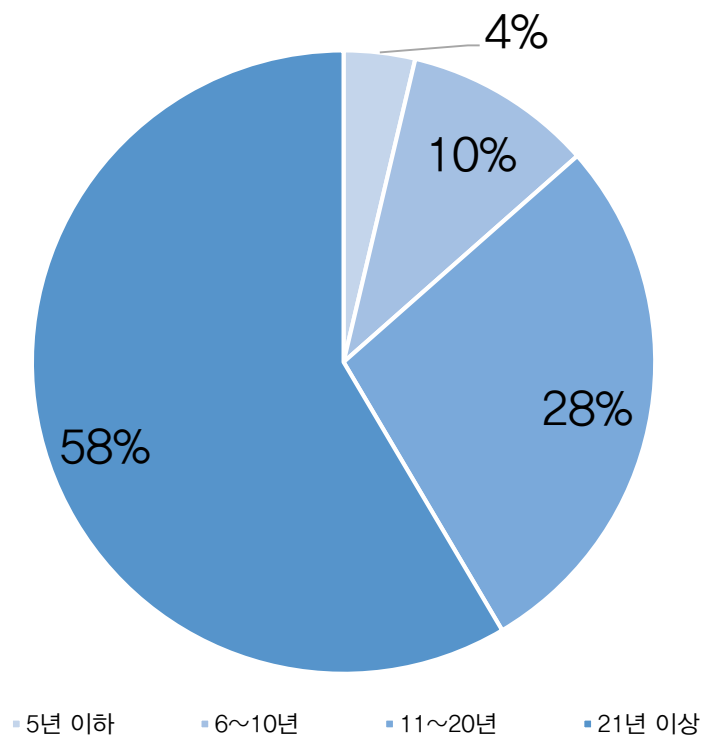
귀하의 소속을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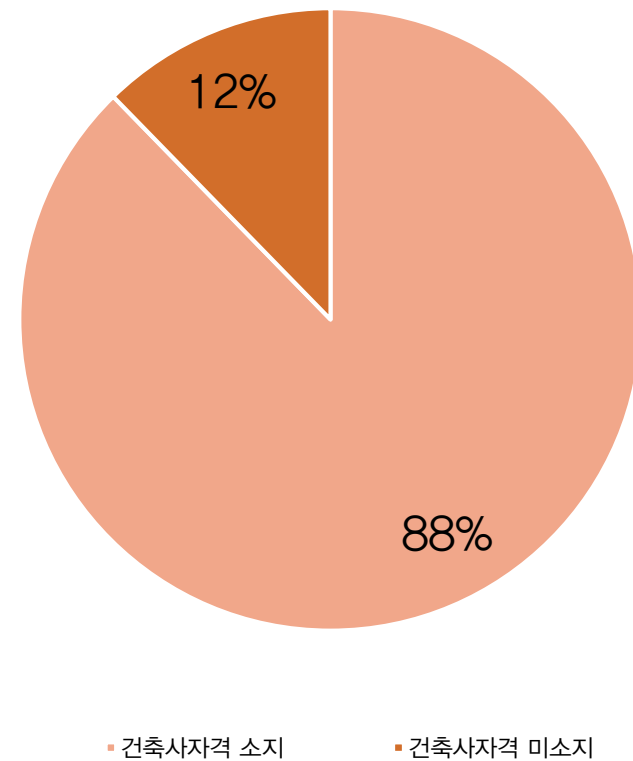
귀하의 건축학 인증 참여 회수는?
(피실사의 경우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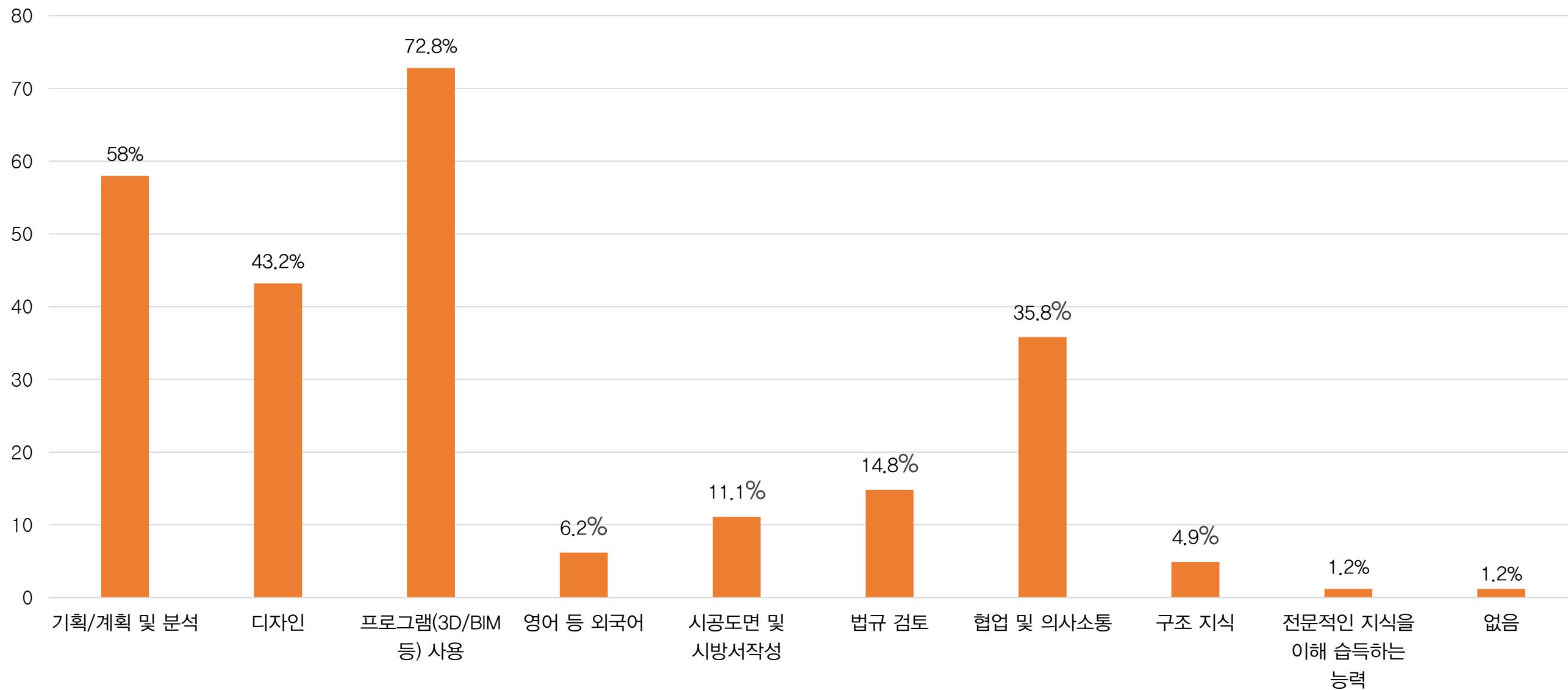
건축관련 실무 경력은?
(석사 이상 교육경력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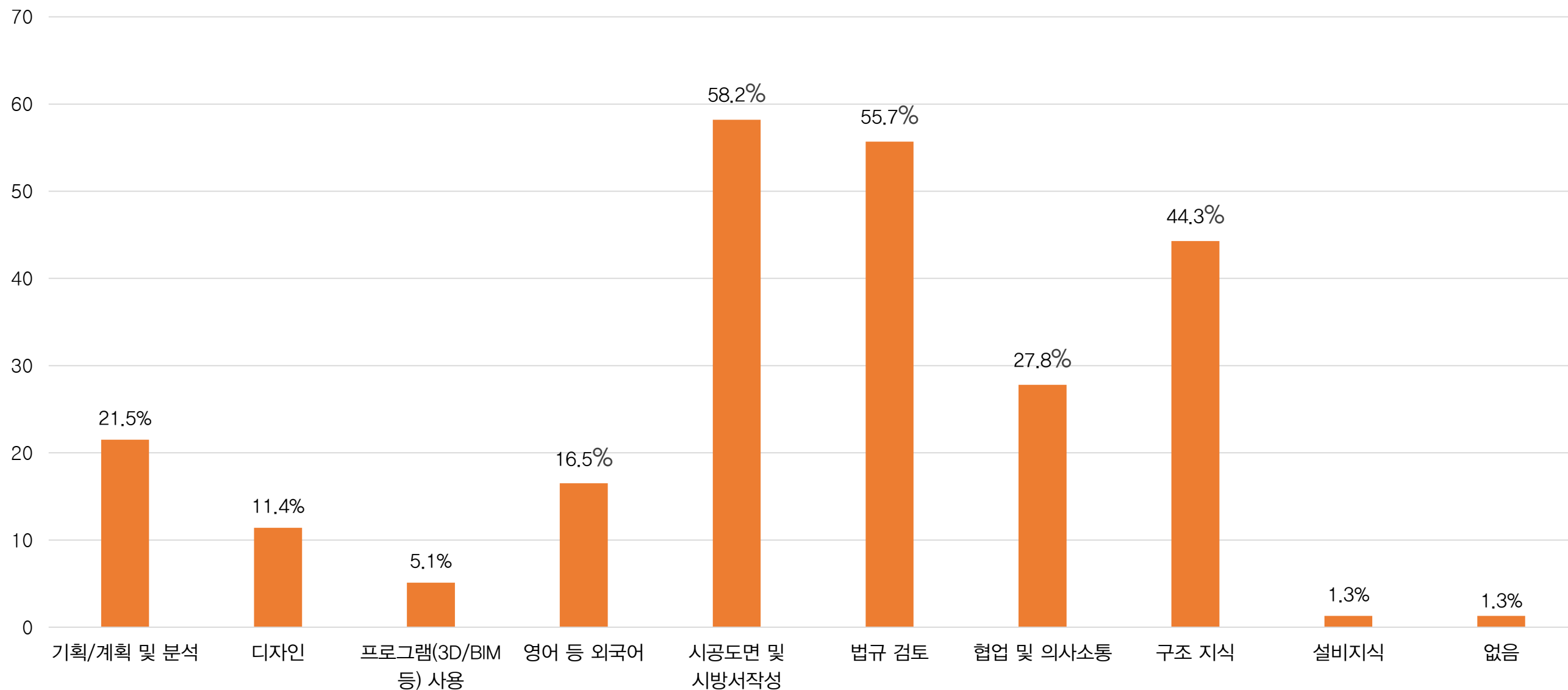
한국건축사 자격 소지 여부



실무수련자의 능력 중 “만족스러운” 영역은?(복수 선택)



실무수련자의 능력 중 “불만족스러운” 영역은?(복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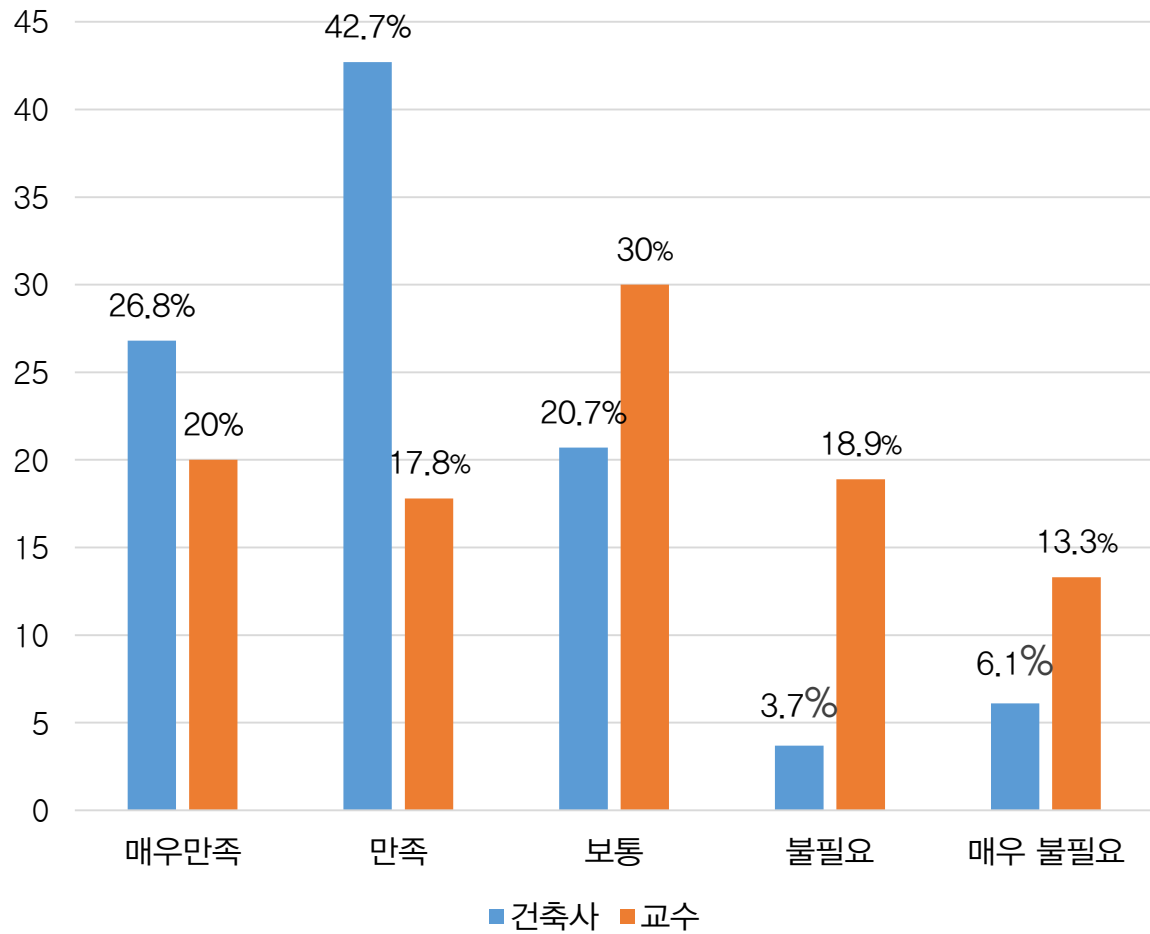


Part 1.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주요관점

—건축사 & 교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소속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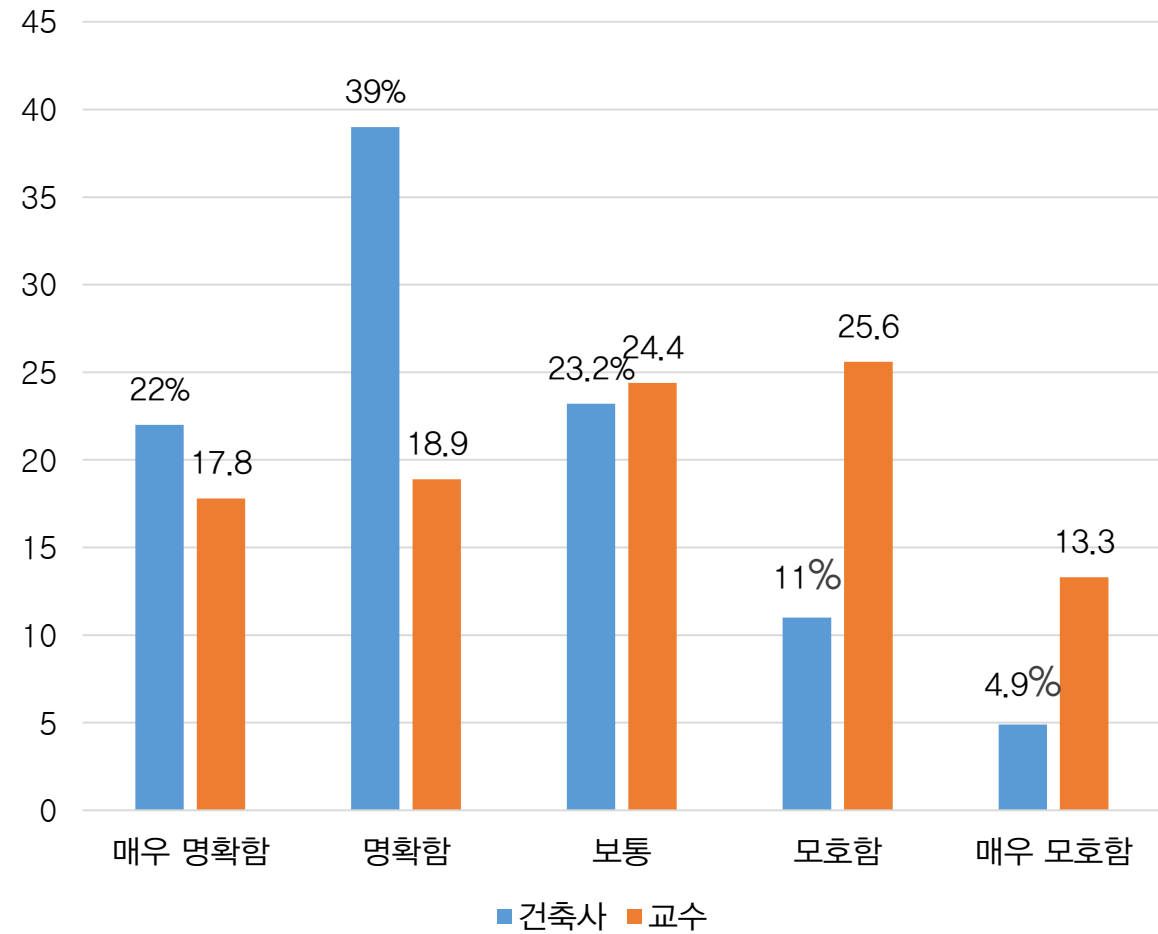
필요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80 (1.07) / 교수용 : 3.13 (1.31)

P= 0.000 / t-value= -3.678

명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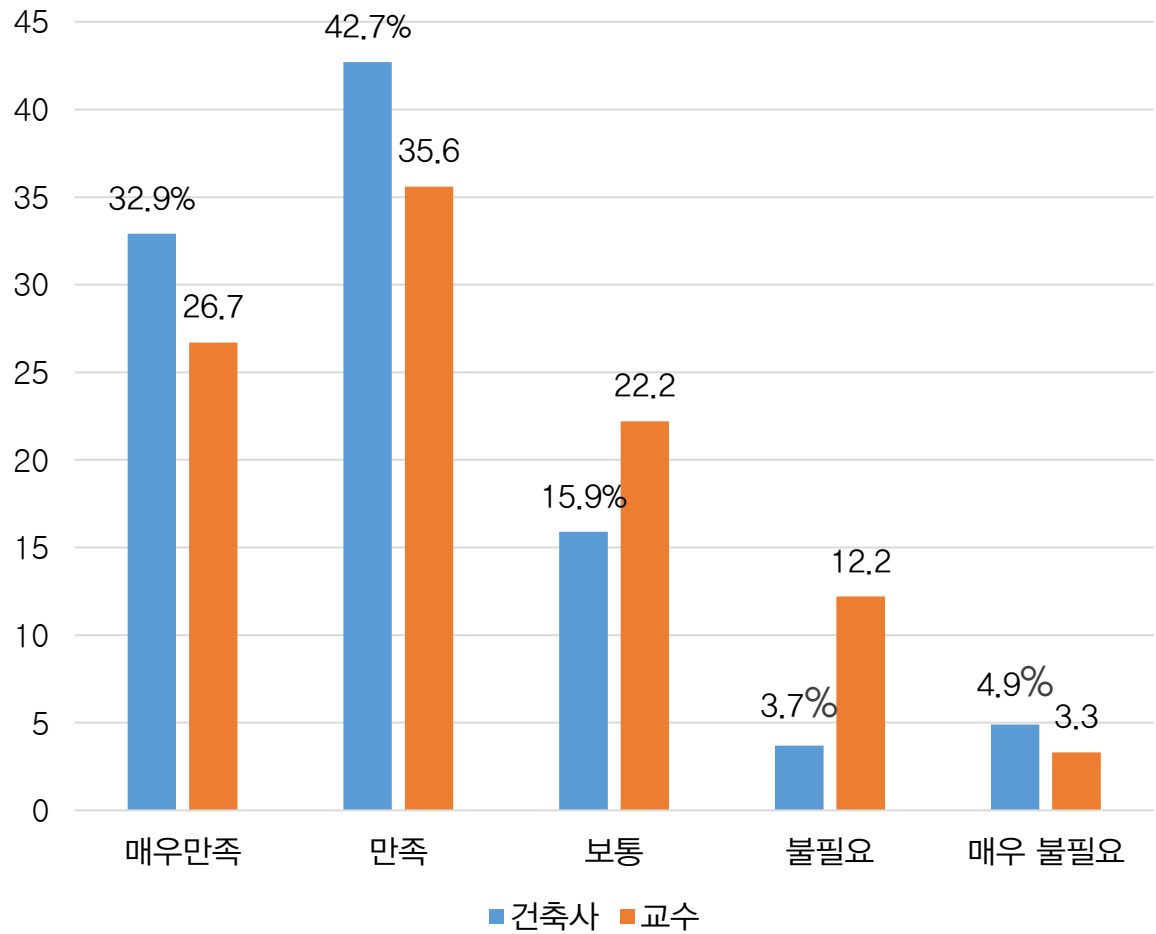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62 (1.10) / 교수용 : 3.03 (1.31)

P= 0.002 / t-value= -3.171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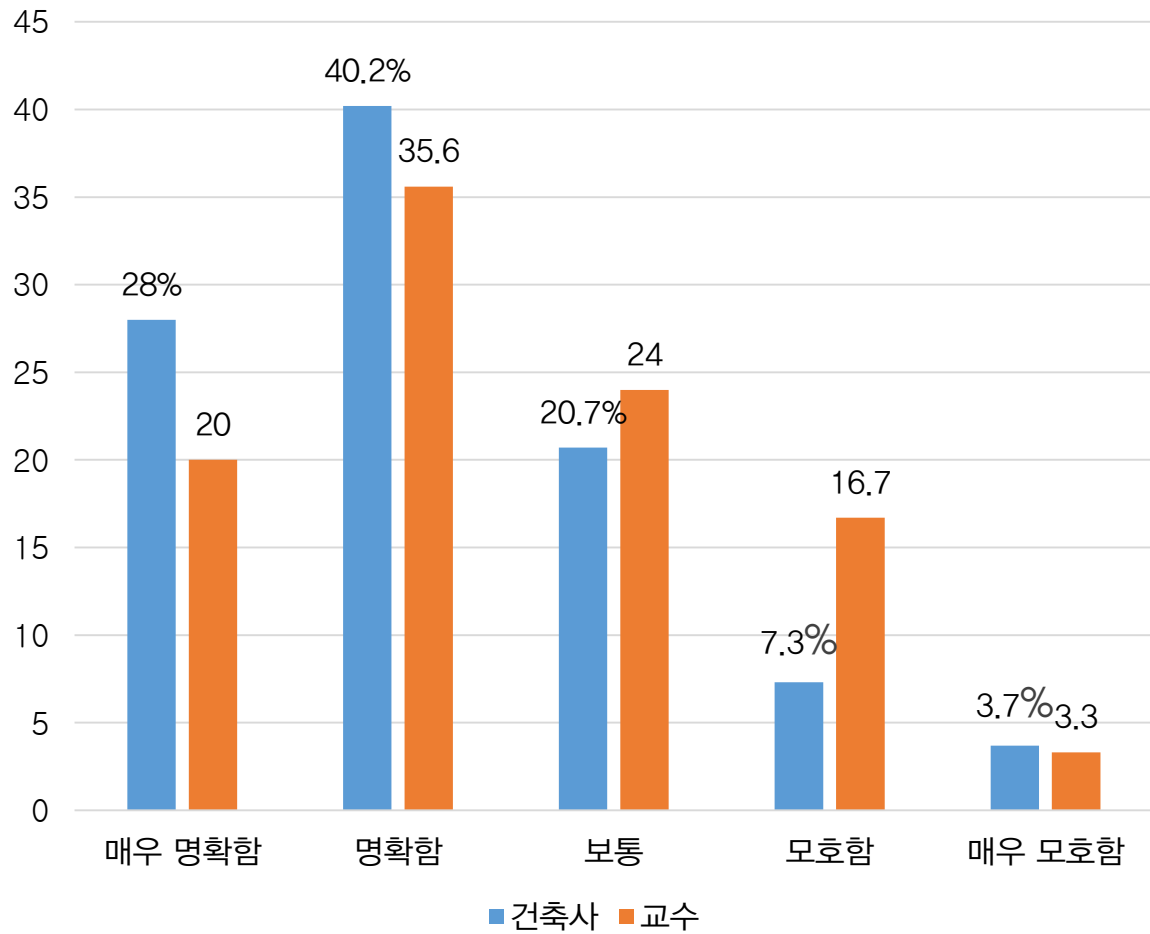
필요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95 (1.04) / 교수용 : 3.72 (1.09)

P= 0.156 / t-value= -1.423

명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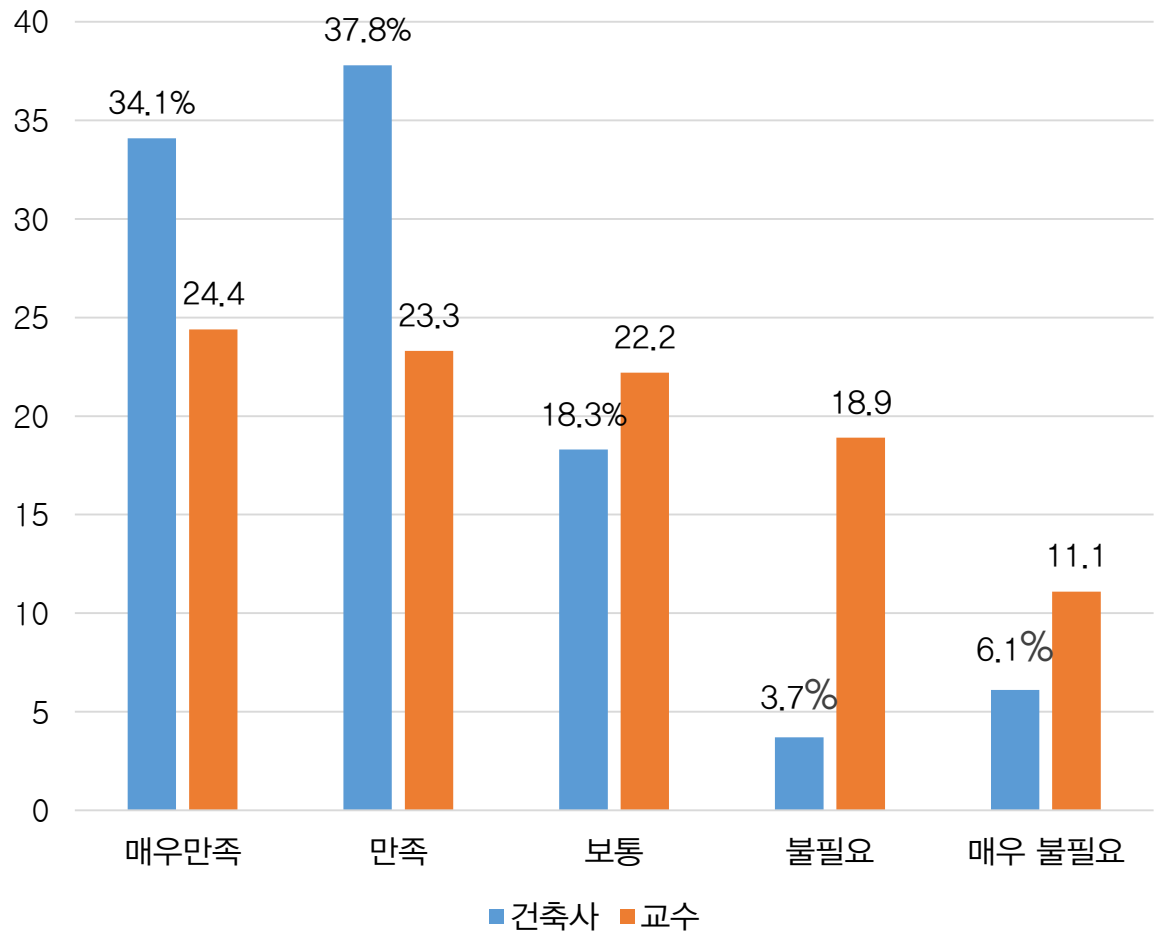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82 (1.04) / 교수용 : 3.54 (1.09)

P= 0.091 / t-value= -1.701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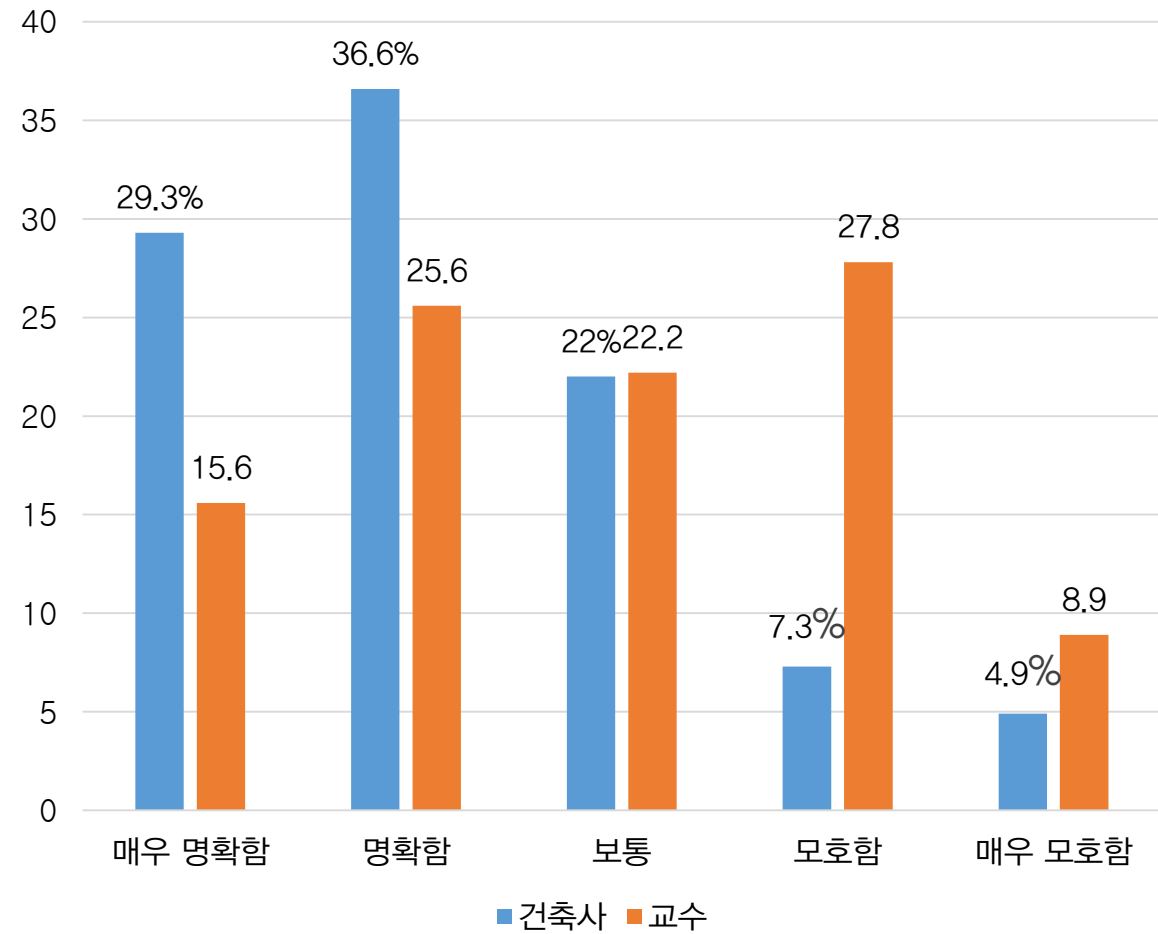
필요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90 (1.11) / 교수용 : 3.33 (1.33)

P= 0.002 / t-value= -3.091

명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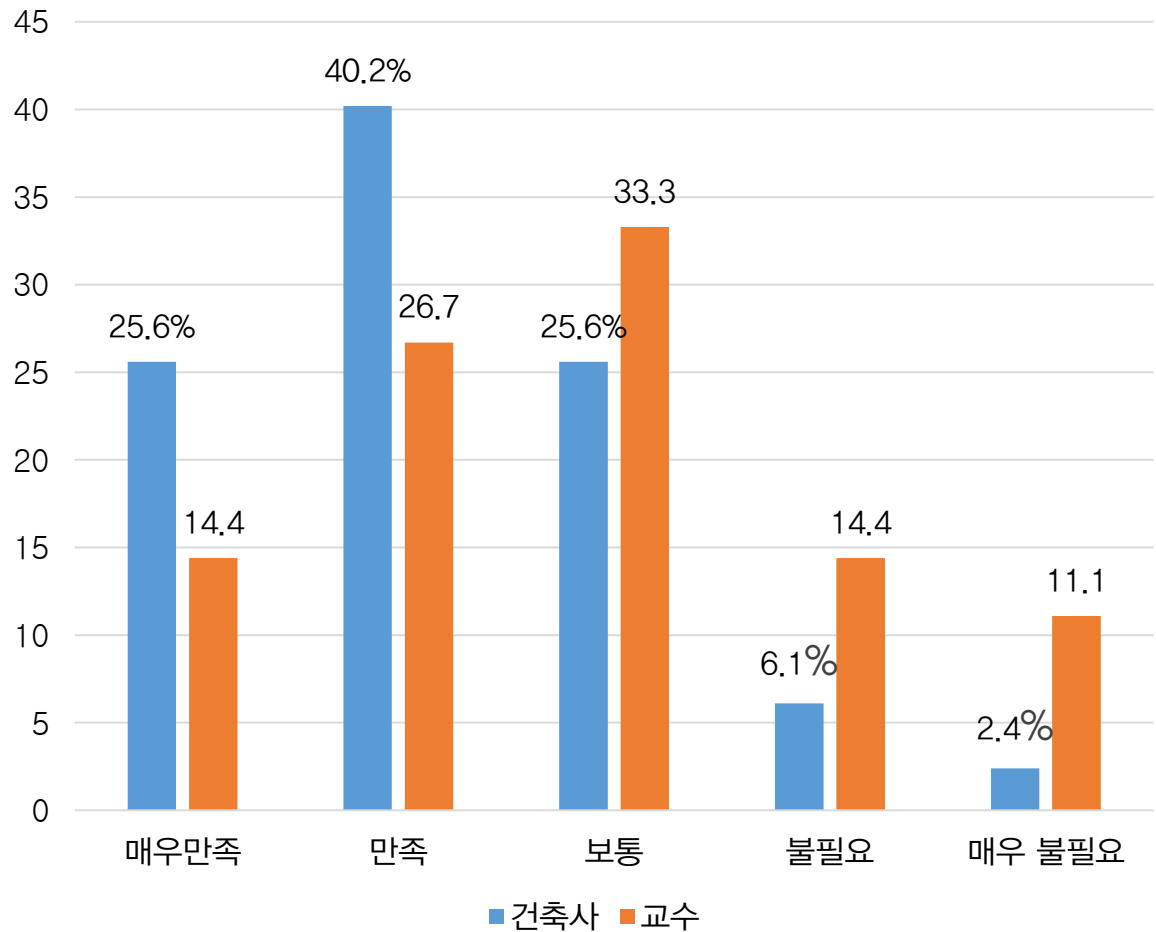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78 (1.10) / 교수용 : 3.12 (1.23)

P= 0.000 / t-value= -3.665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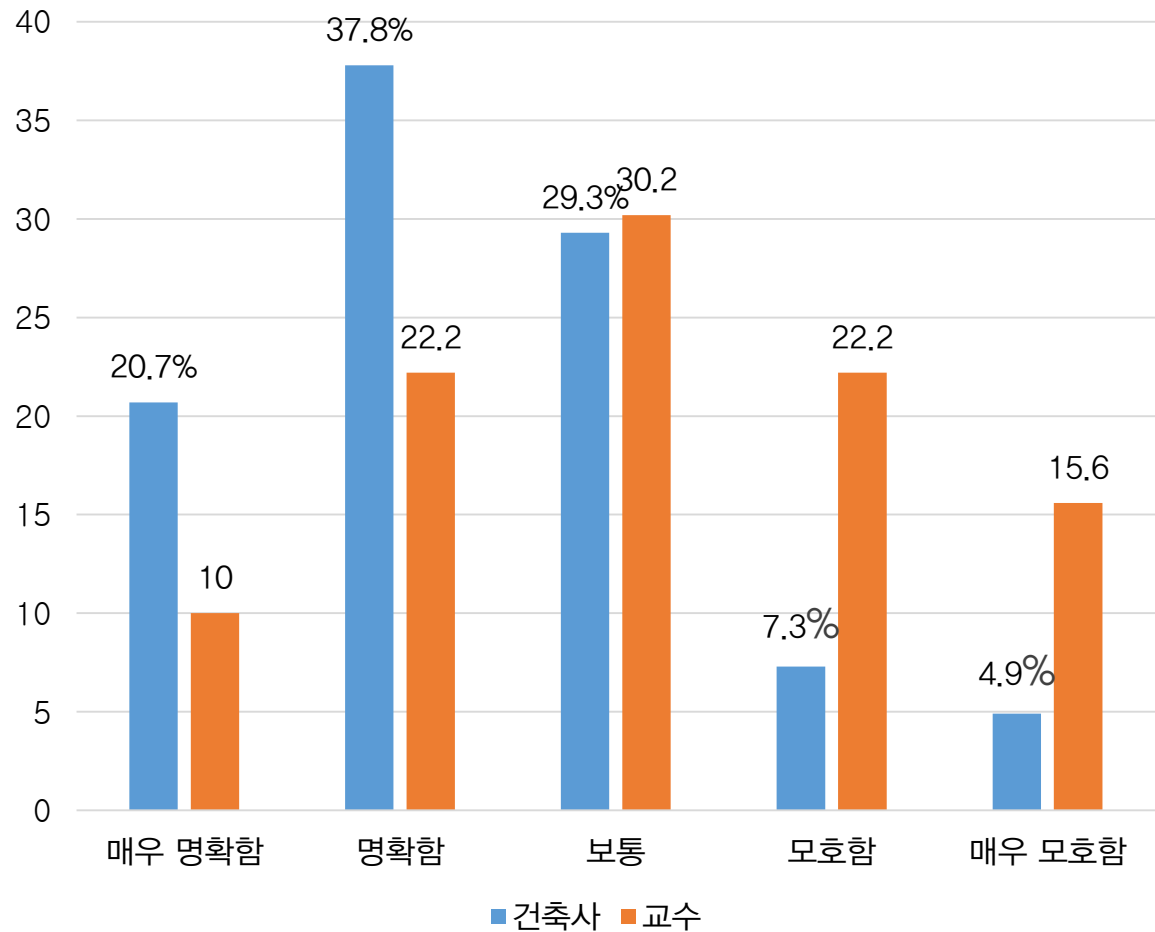
필요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80 (0.97) / 교수용 : 3.20 (1.19)

P= 0.000 / t-value= -3.608

명확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62 (1.05) / 교수용 : 2.90 (1.22)

P= 0.000 / t-value= -4.146

Part 1.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주요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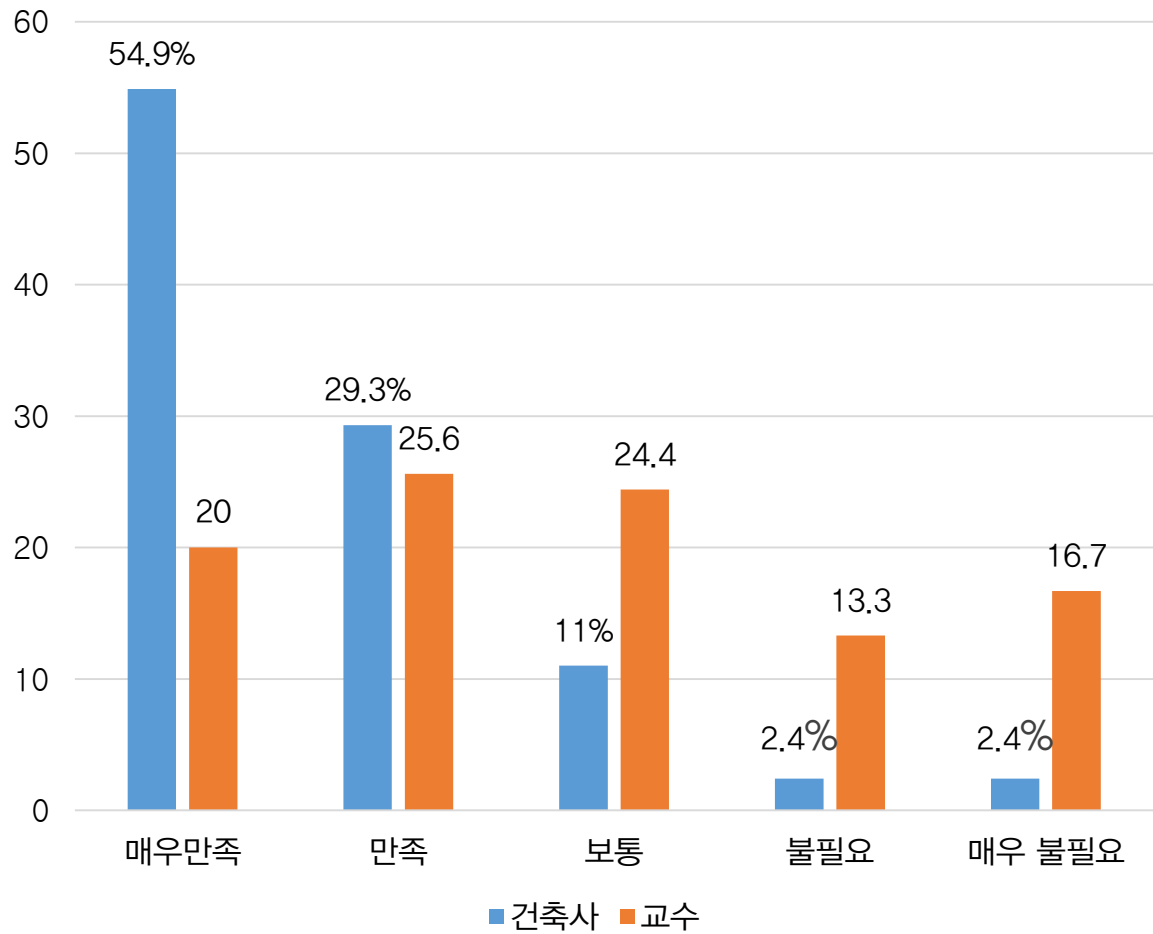
Part 1.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주요관점_건축사	필요도 평균		p값	t값	명확도 평균		p값	t값
	건축사	교수			건축사	교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소속 대학교	3.80	3.13	0.000	-3.678	3.62	3.03	0.002	-3.171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학생	3.95	3.72	0.156	-1.423	3.82	3.54	0.091	-1.701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건축사	3.90	3.33	0.002	-3.091	3.78	3.12	0.000	-3.665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사회	3.80	3.20	0.000	-3.608	3.62	2.90	0.000	-4.146

Part 2. 교육 프로그램 운용 체계 및 교육환경

—건축사 &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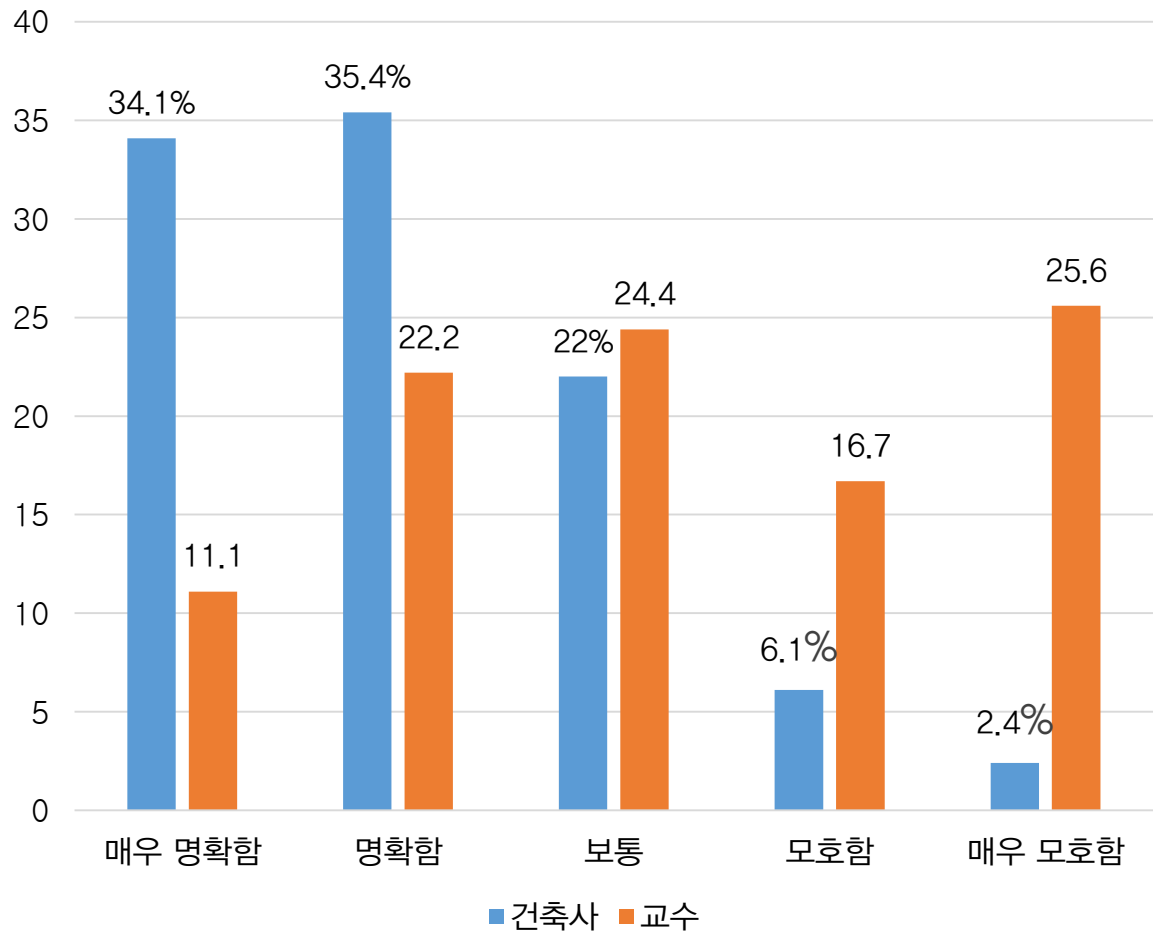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자체평가체계 및 중장기 발전계획

필요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4.32 (0.94) / 교수용 : 3.21 (1.34)
P= 0.000 / t-value= -6.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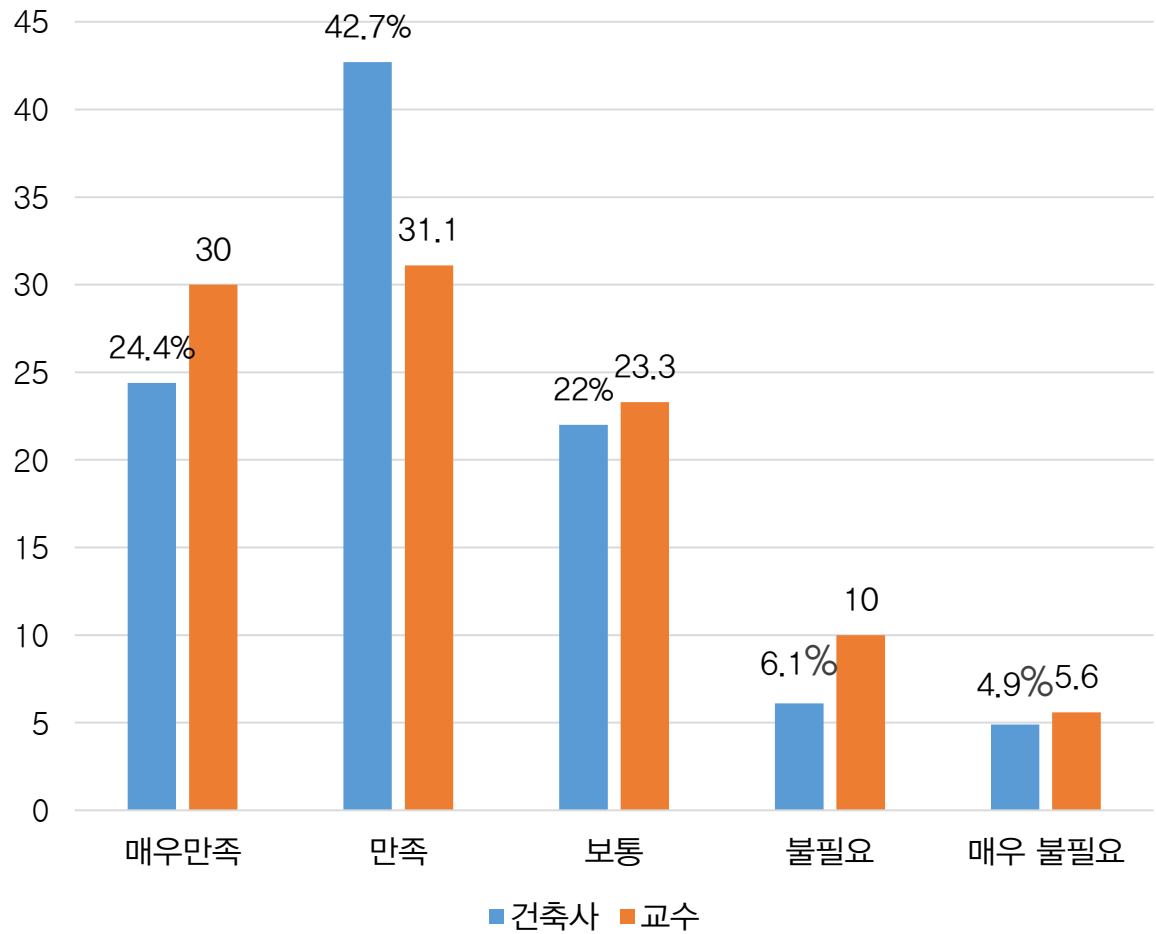
명확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93 (1.02) / 교수용 : 2.79 (1.34)
P= 0.000 / t-value= -6.289

학생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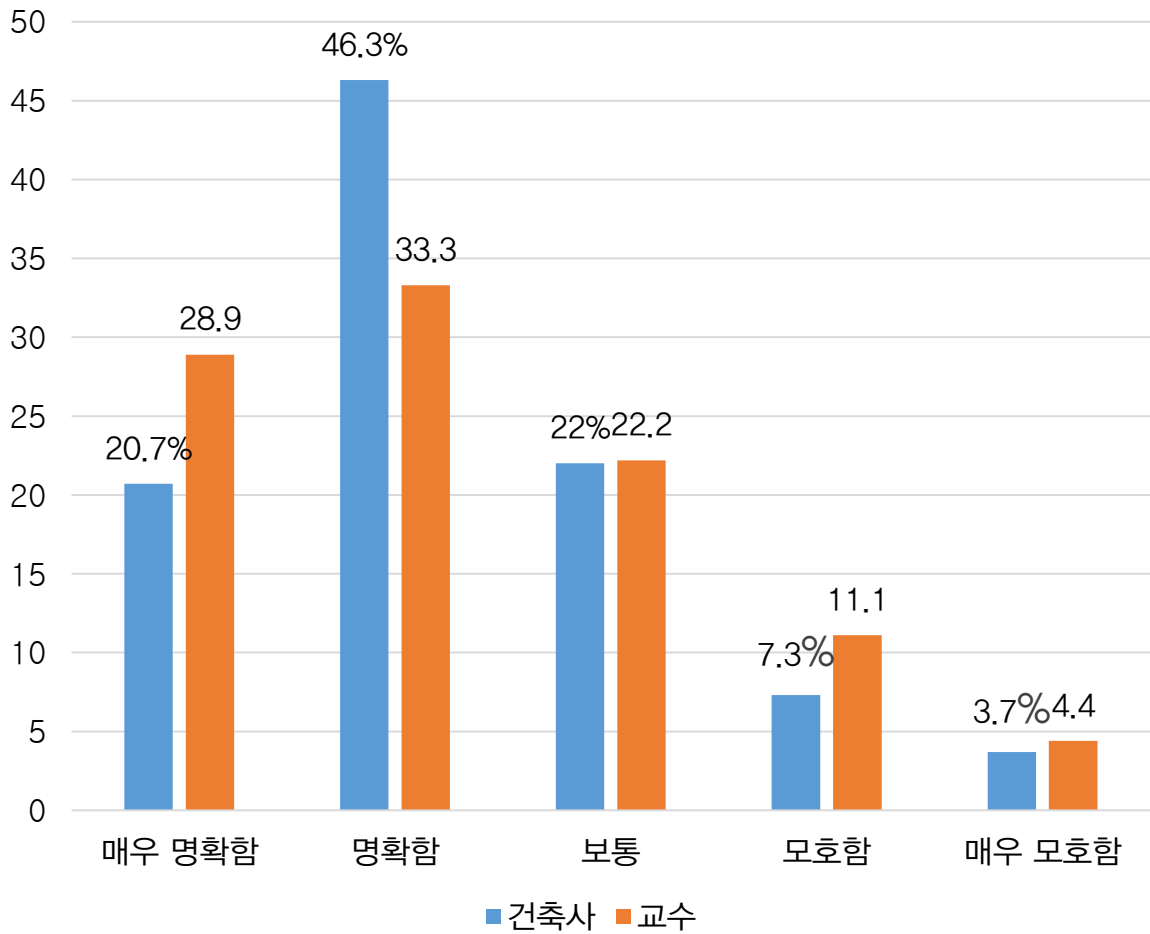
필요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76 (1.05) / 교수용 : 3.71 (1.17)

P= 0.778 / t-value= -0.283

명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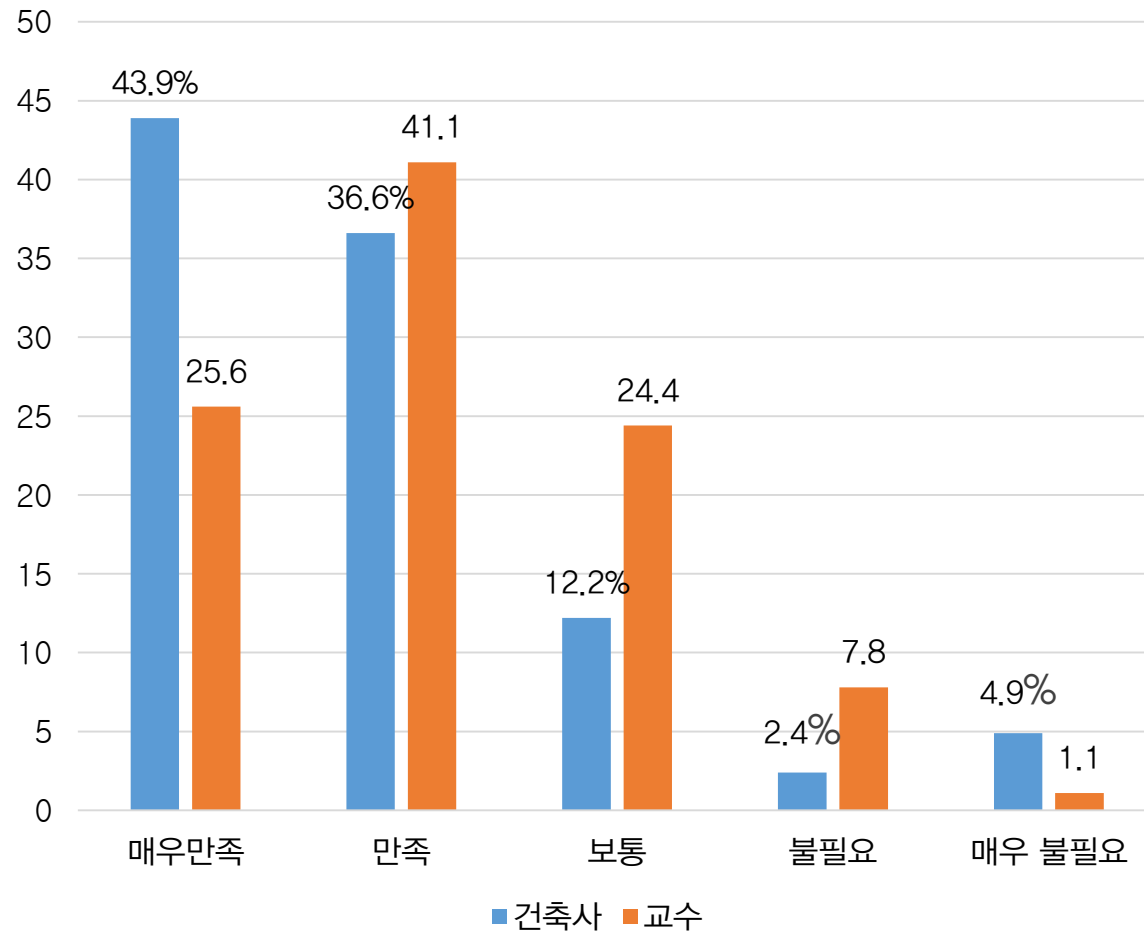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73 (0.99) / 교수용 : 3.72 (1.14)

P= 0.939 / t-value= -0.077

인적자원 및 운용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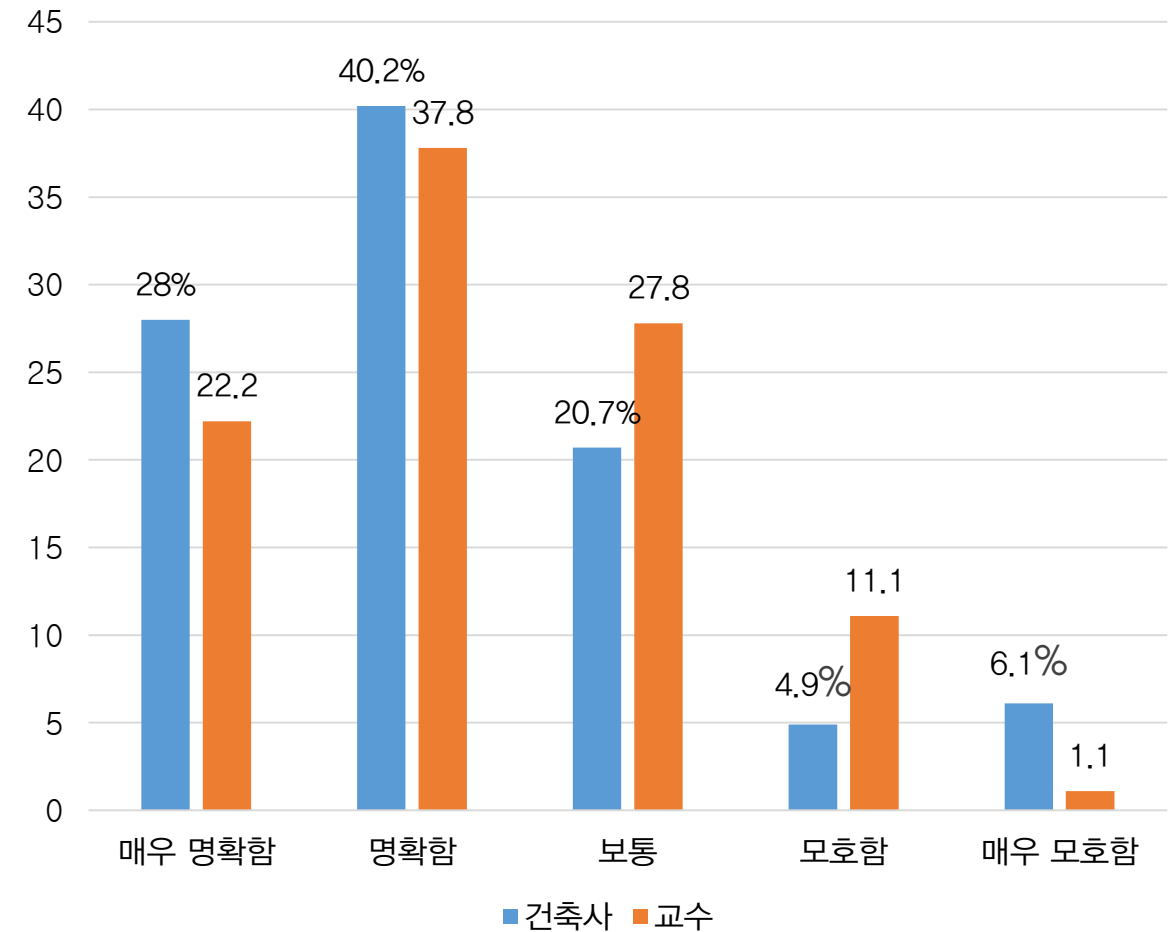
필요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4.12 (1.05) / 교수용 : 3.82 (0.95)

P= 0.050 / t-value= -1.978

명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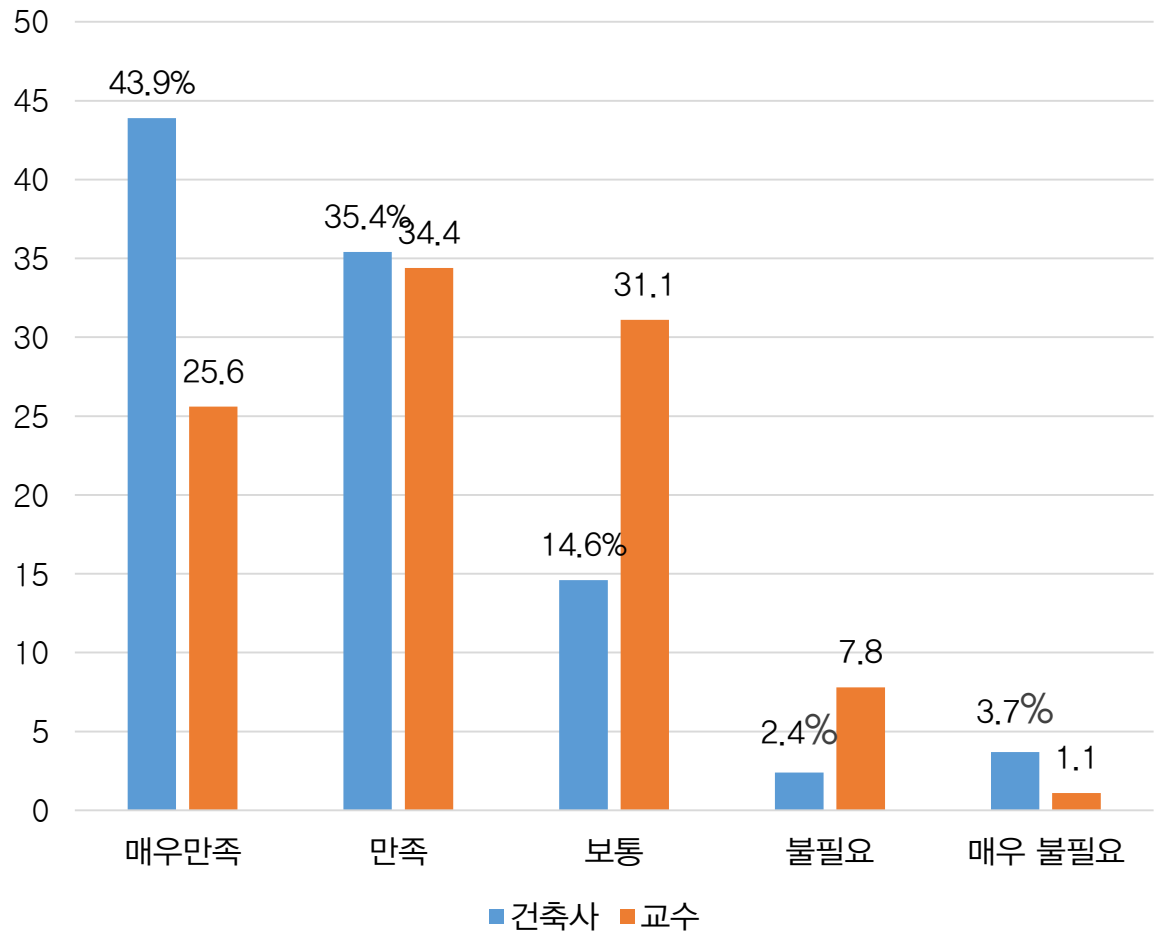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79 (1.10) / 교수용 : 3.69 (0.98)

P= 0.501 / t-value= -0.674

물리적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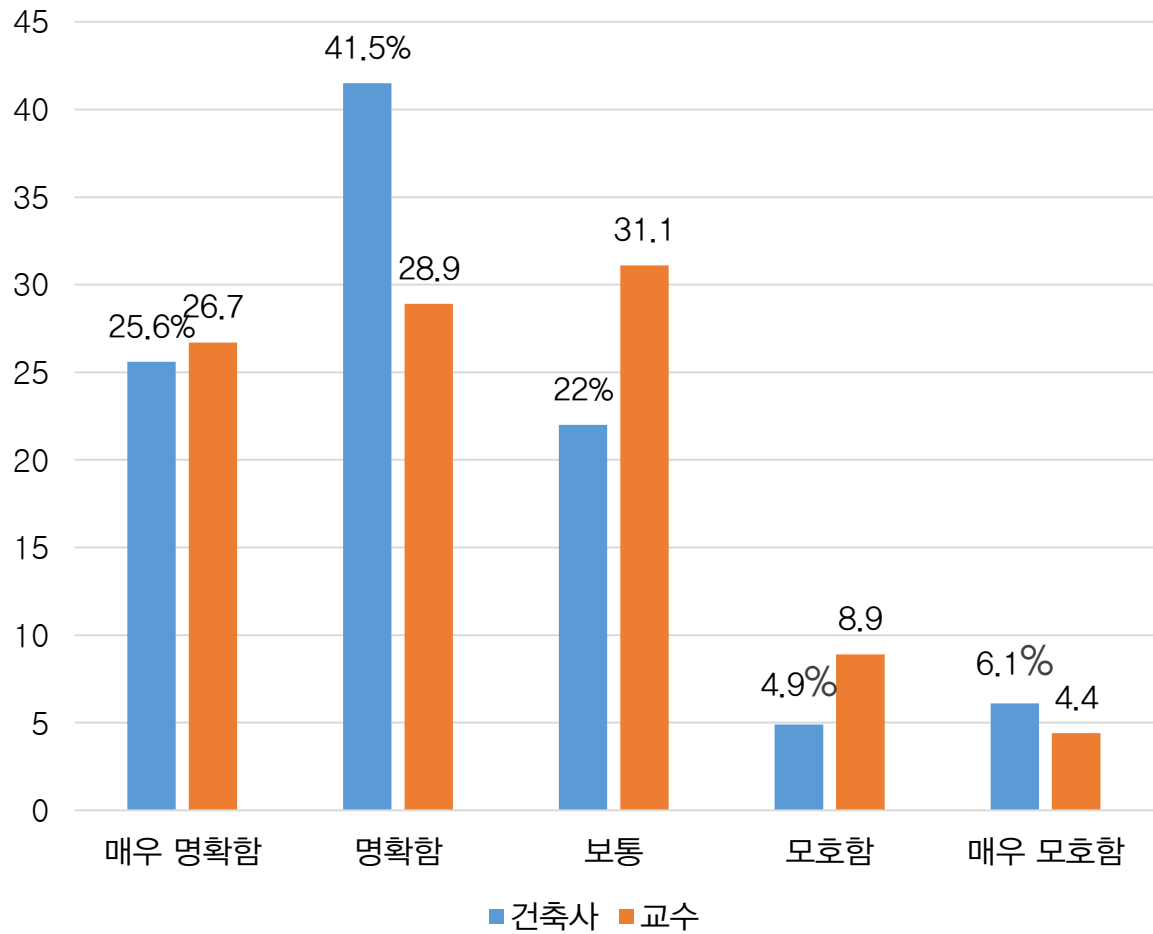
필요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4.13 (1.00) / 교수용 : 3.76 (0.97)

P= 0.015 / t-value= -2.458

명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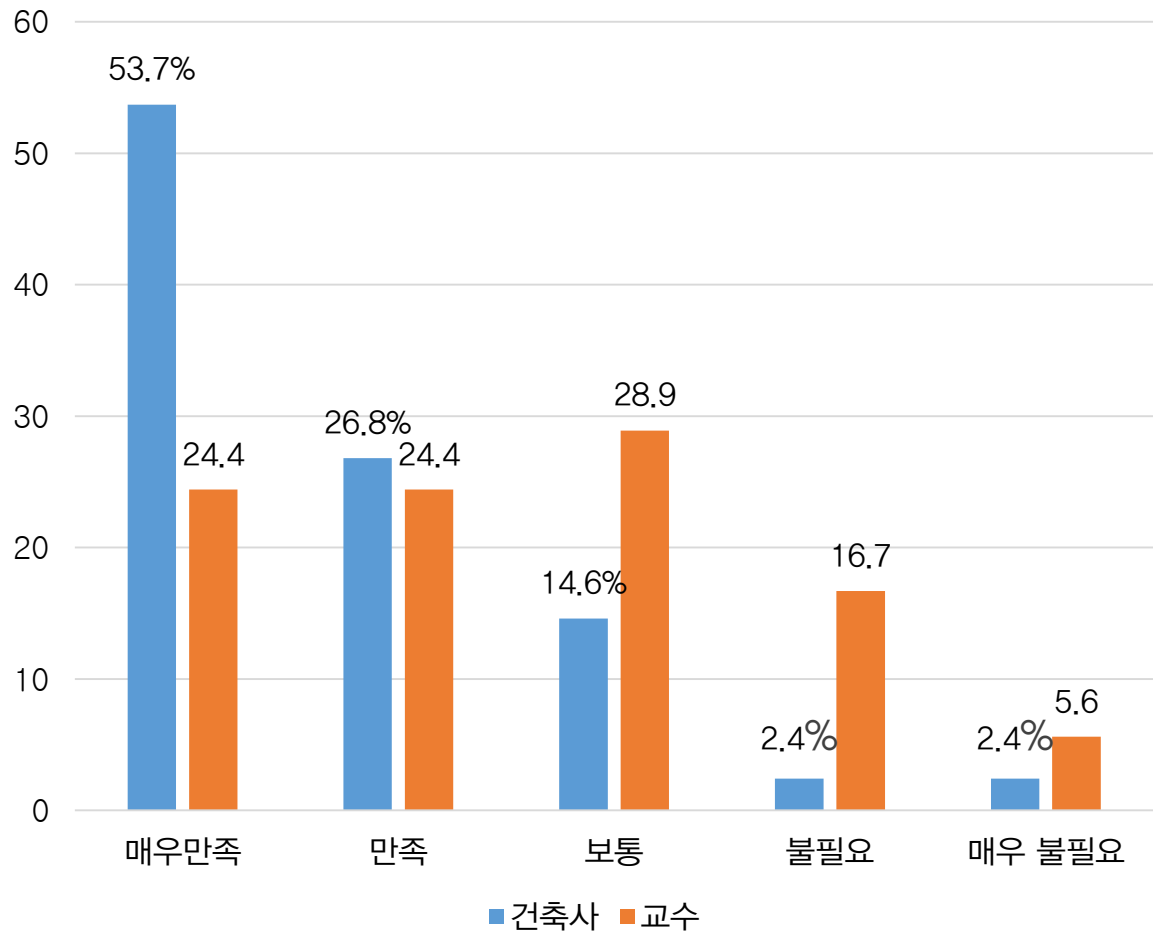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76 (1.08) / 교수용 : 3.64 (1.11)

P= 0.492 / t-value= -0.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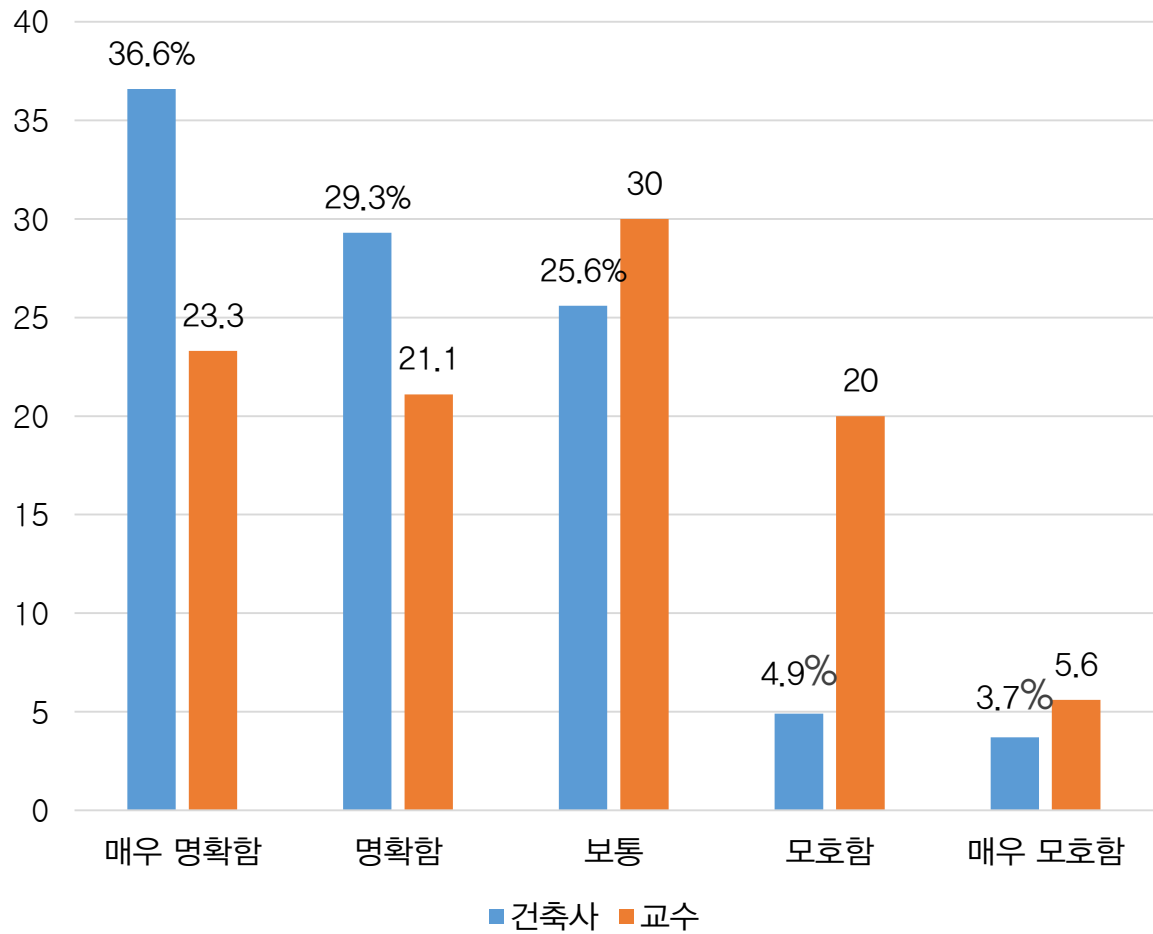
재정자원

필요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4.27 (0.97) / 교수용 : 3.45 (1.20)
P= 0.000 / t-value= -4.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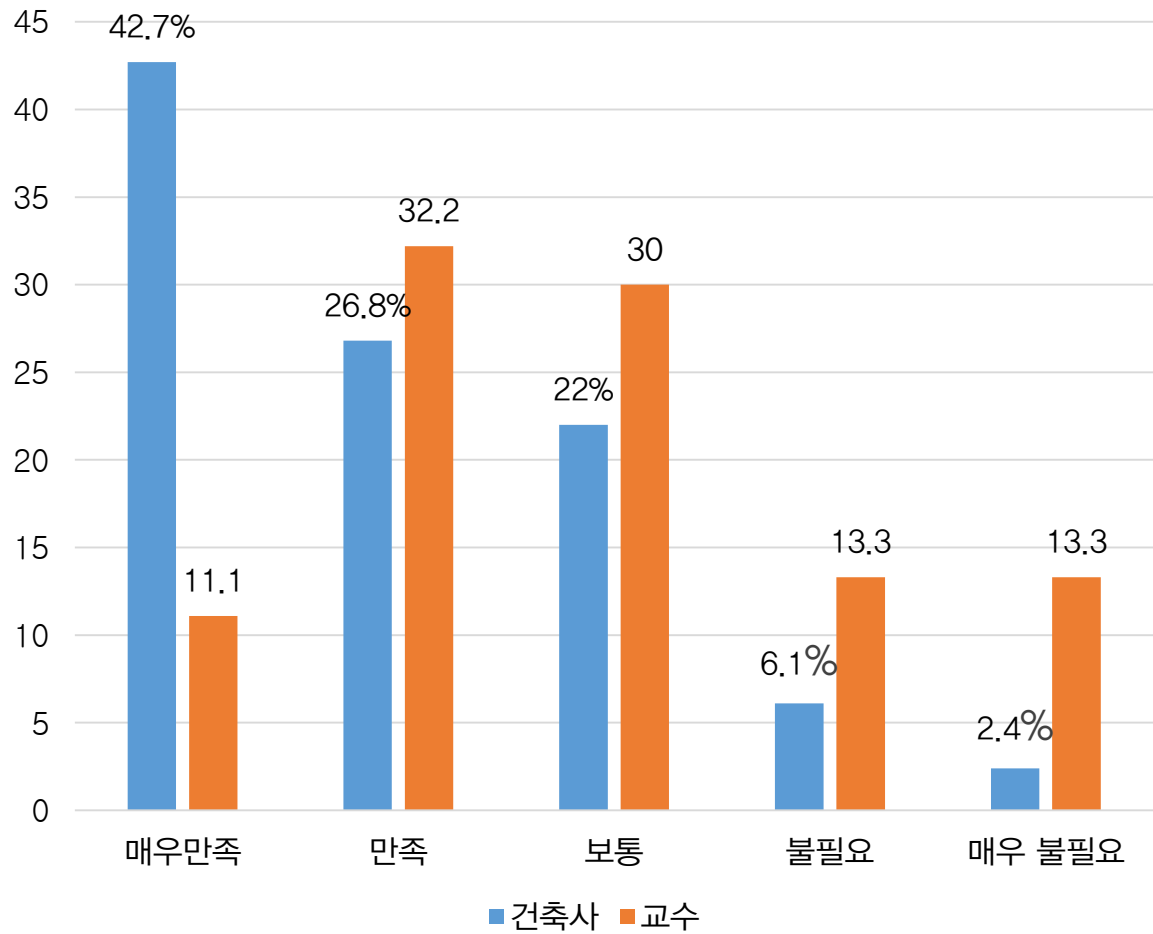
명확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90 (1.07) / 교수용 : 3.37 (1.21)
P= 0.003 / t-value= -3.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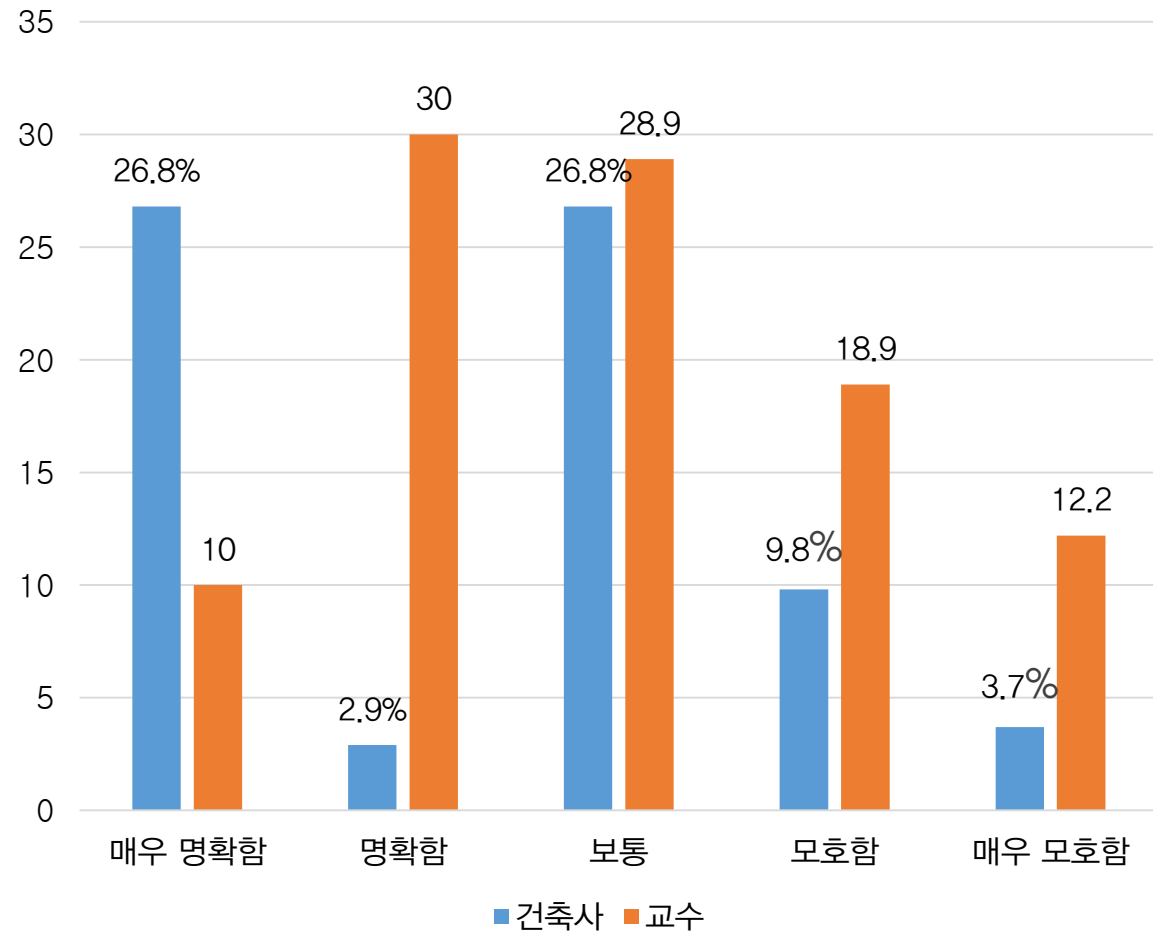
연구활동

필요도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4.01 (1.06) / 교수용 : 3.16 (1.20)
P= 0.000 / t-value= -4.931

명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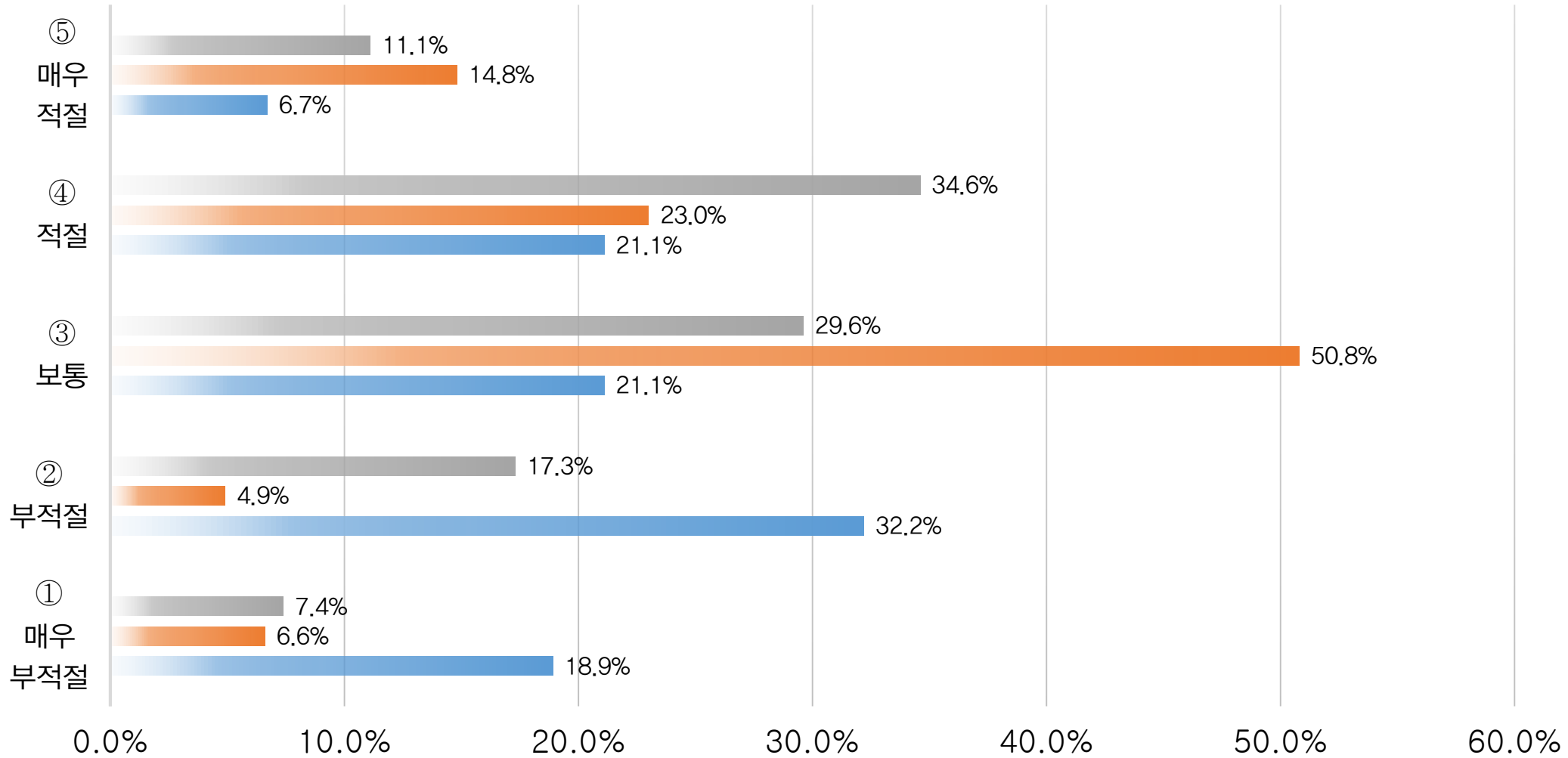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70 (1.09) / 교수용 : 3.08 (1.18)
P= 0.001 / t-value= -3.547

Part 2. 교육 프로그램 운용체계 및 교육환경

Part 2. 교육 프로그램 운용체계 및 교육환경	필요도 평균		p값	t값	명확도 평균		p값	t값
	건축사	교수			건축사	교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자체평가체계 및 중장기 발전계획	4.32	3.21	0.000	-6.258	3.93	2.79	0.000	-6.289
학생정보	3.76	3.71	0.778	-0.283	3.73	3.72	0.939	-0.077
인적자원 및 운용체계	4.12	3.82	0.050	-1.978	3.79	3.69	0.501	-0.674
물리적 자원	4.13	3.76	0.015	-2.458	3.76	3.64	0.492	-0.688
재정자원	4.27	3.45	0.000	-4.934	3.90	3.37	0.003	-3.031
연구활동	4.01	3.16	0.000	-4.931	3.70	3.08	0.001	-3.547

학생수행평가기준(S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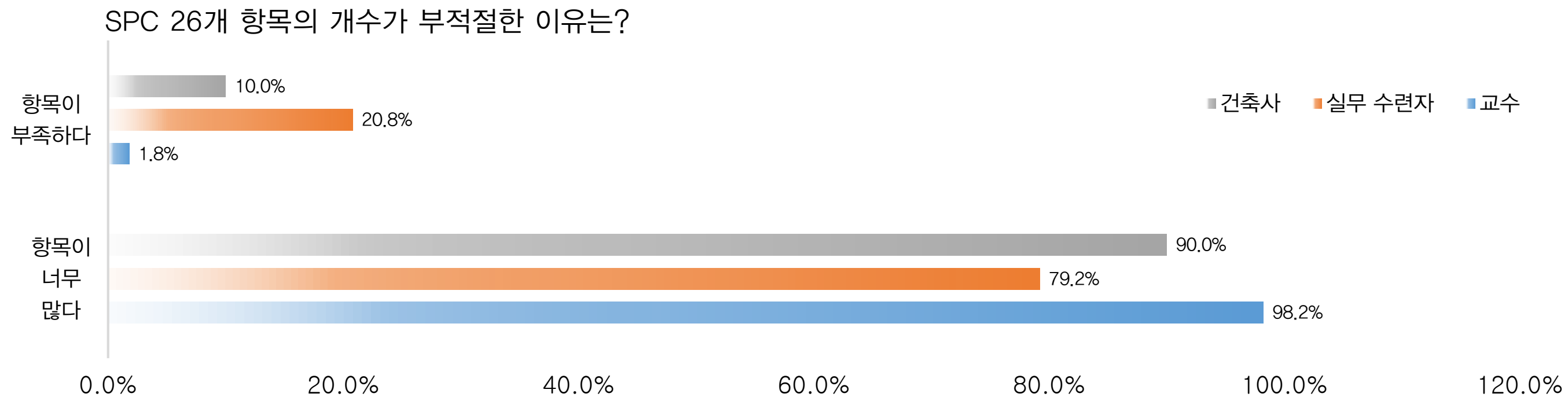
2018 학생수행평가기준의 26개의 개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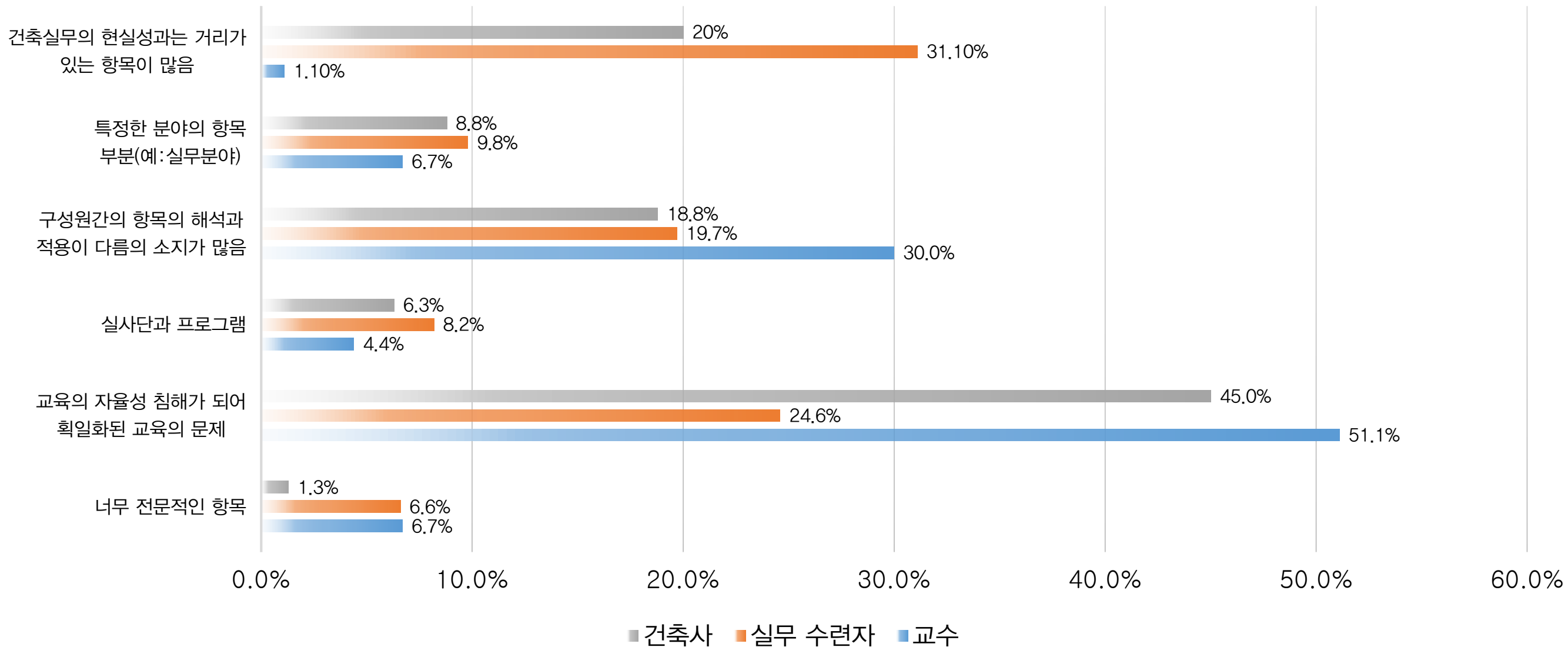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건축사: 3.247(1.10)
실무수련자: 3.350(1.02)
교수용: 2.652(1.21)

P=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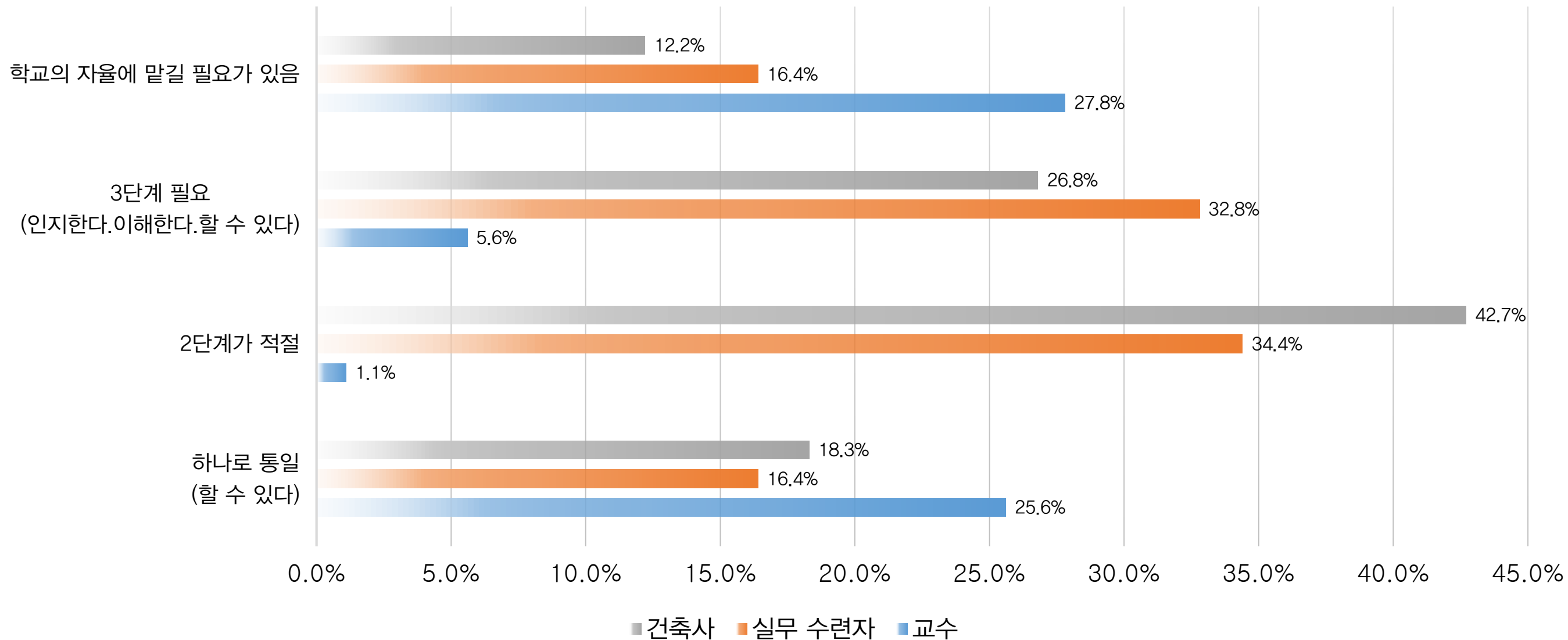


2018 학생수행평가기준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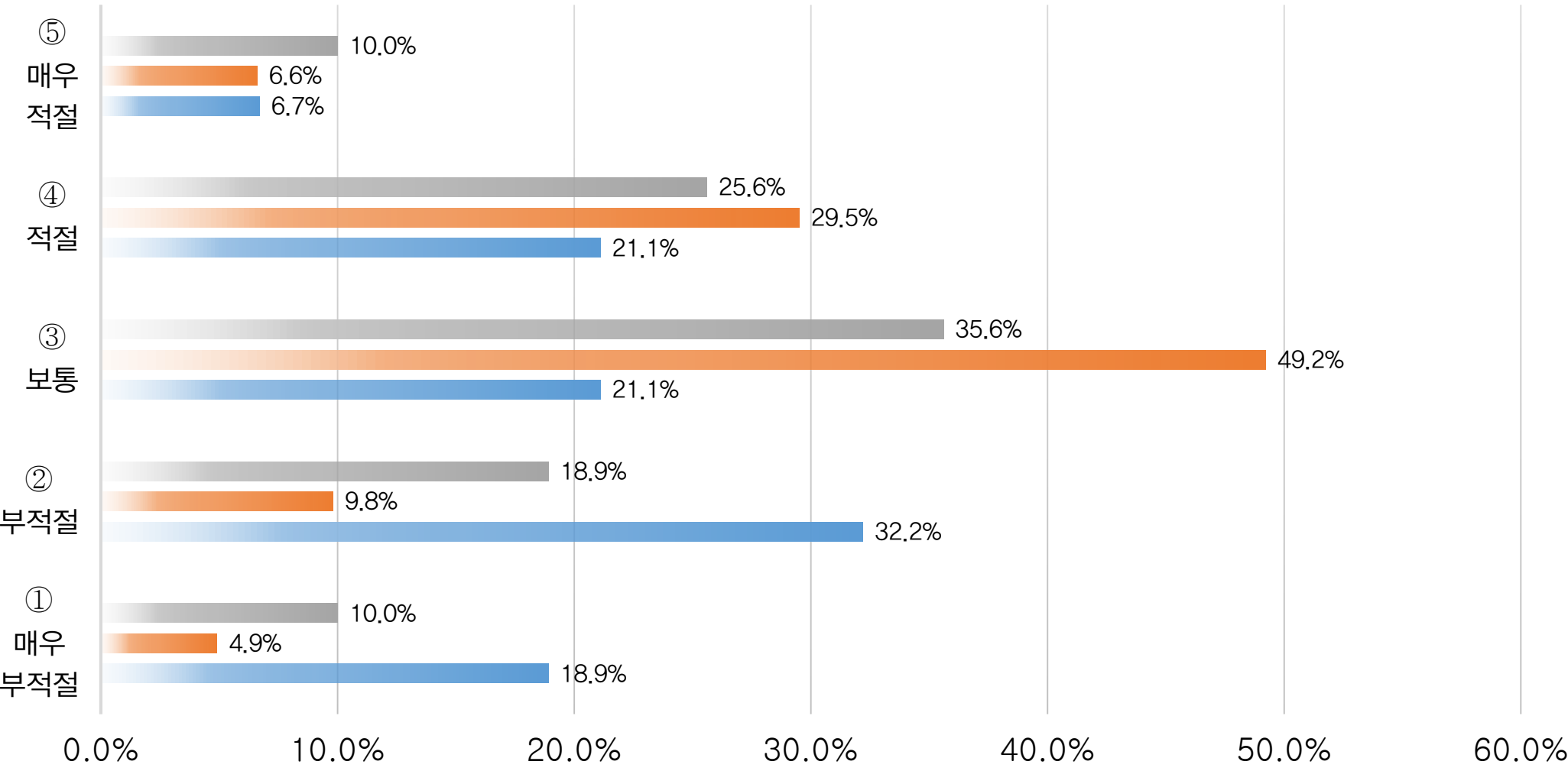


학생수행평가기준(SPC)

2018 학생수행평가기준은 ‘이해한다’와 ‘할 수 있다’ 2개의 성취도가 있습니다. 이의 적절성은?



현재 학생수행평가기준의 분류체계는 적절한가? (종합적 평가)



평균값(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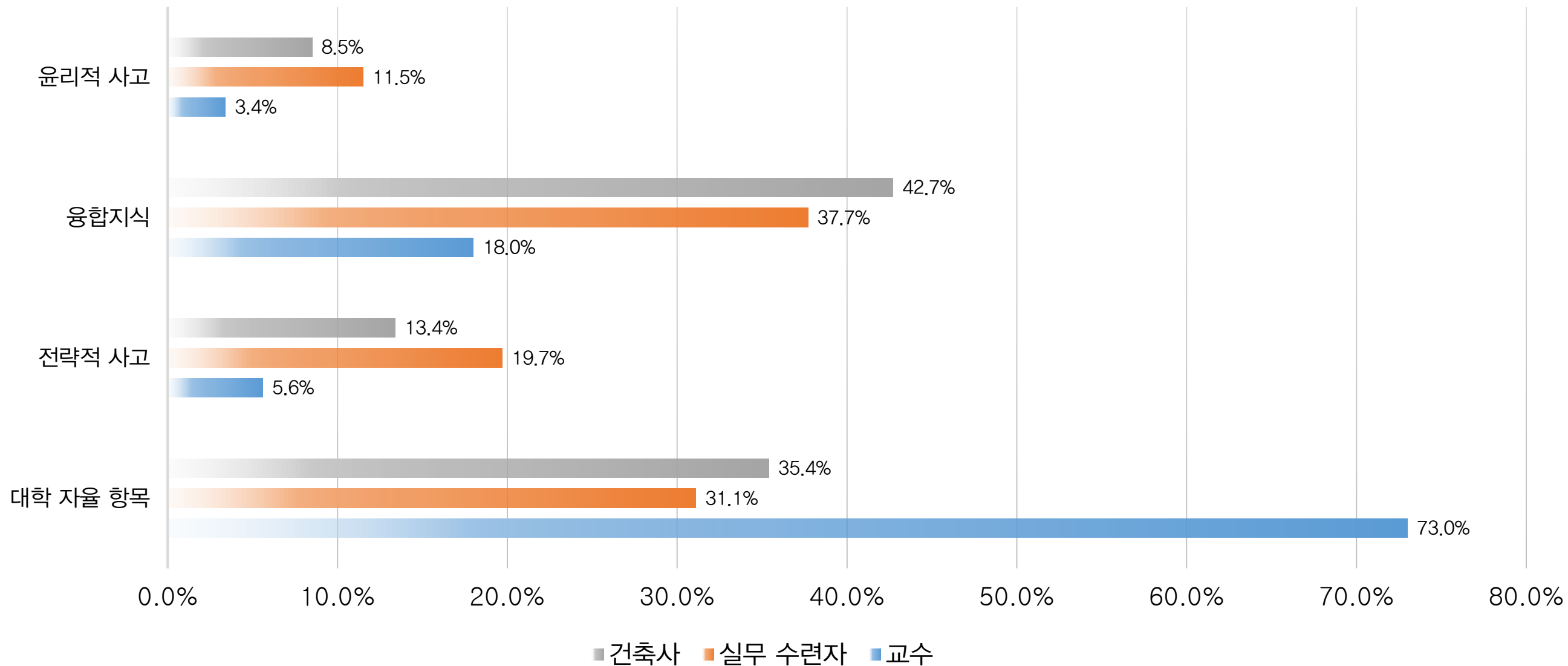
■ 건축사: 3.48(0.89)

■ 실무수련자: 3.23(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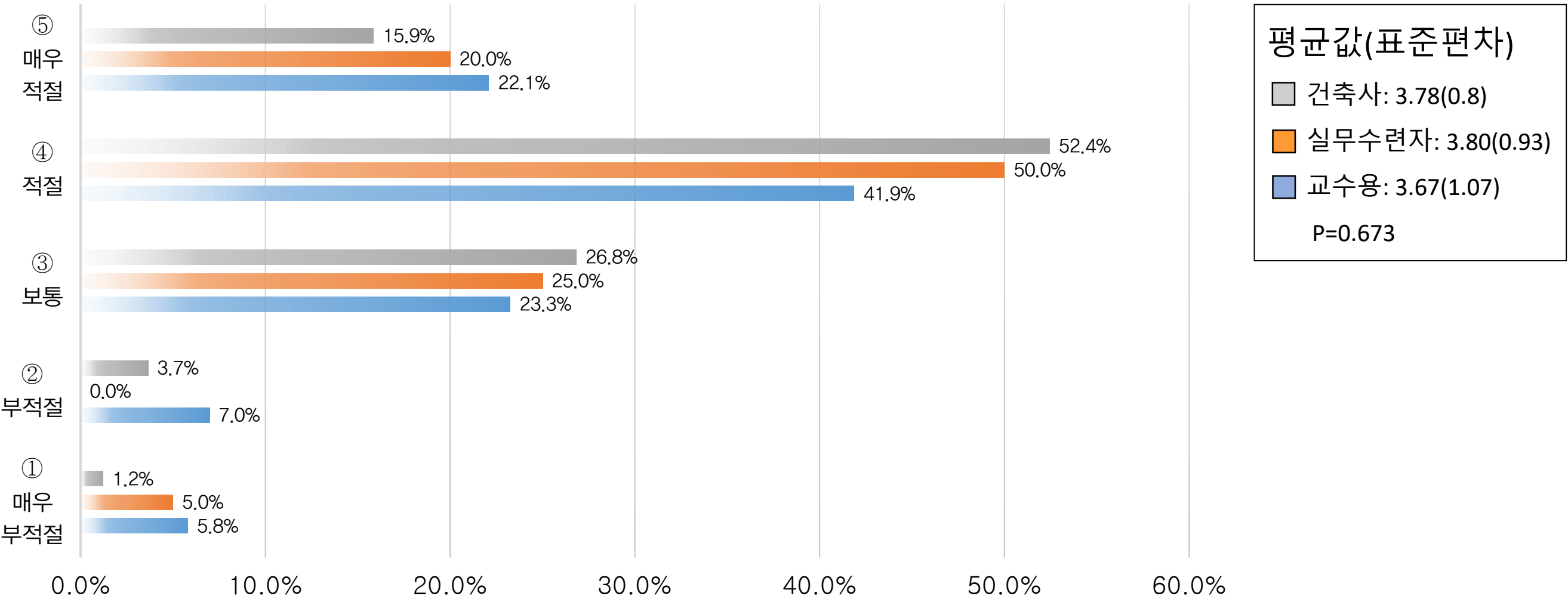
■ 교수용: 3.06(1.212)

P=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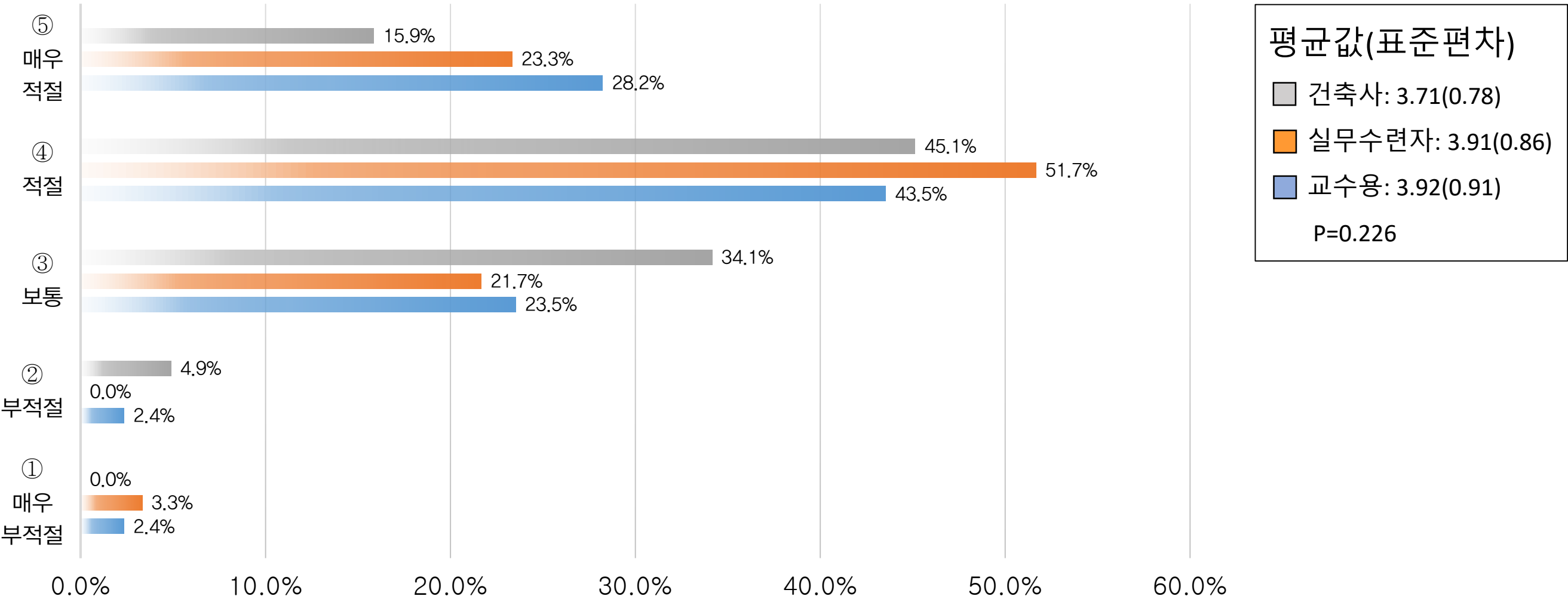
추가되어야 하는 분야로 적절한 항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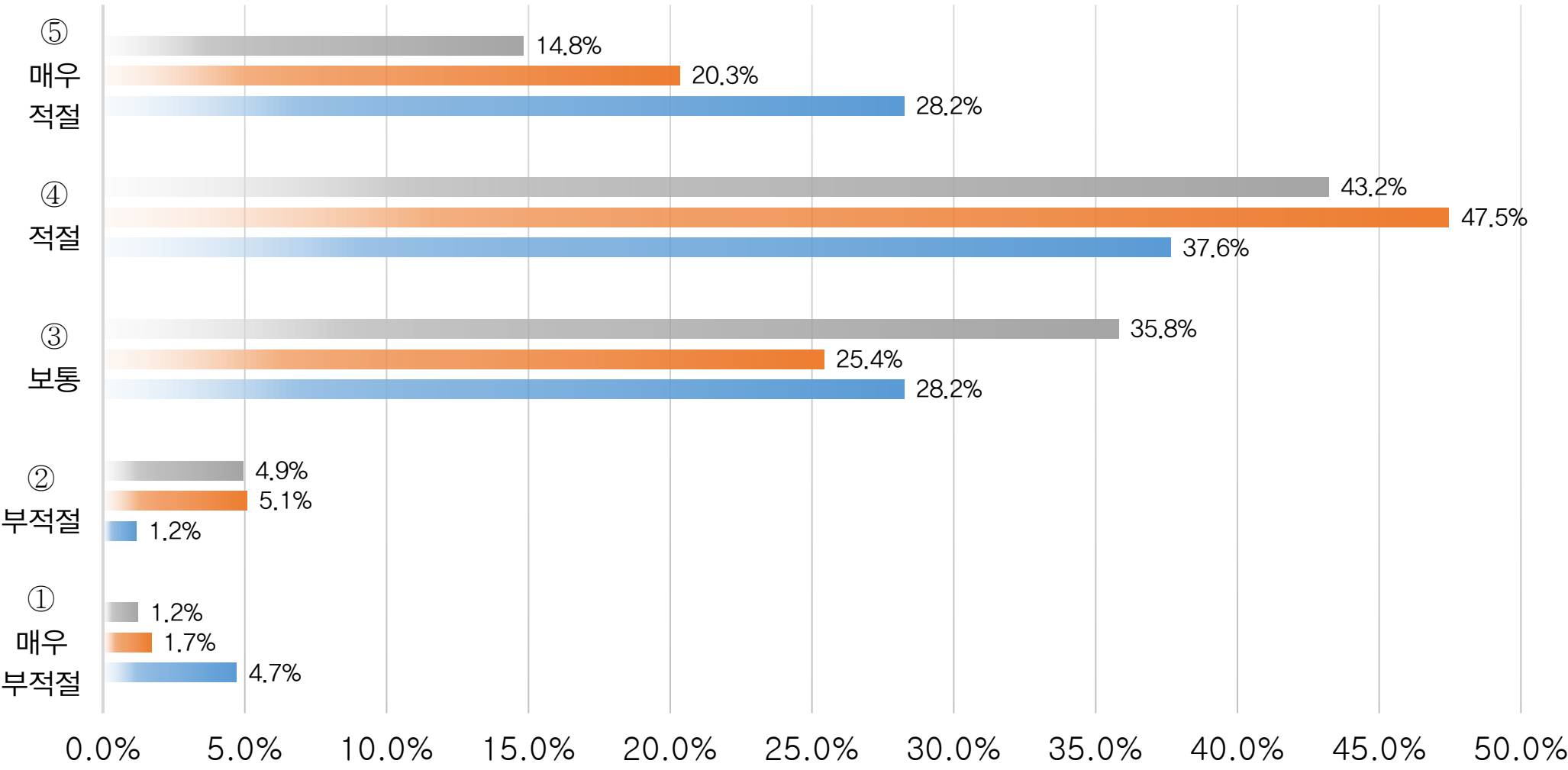
01. 건축과 과학기술 및 예술



02. 세계 건축의 역사와 문화



03. 한국 건축과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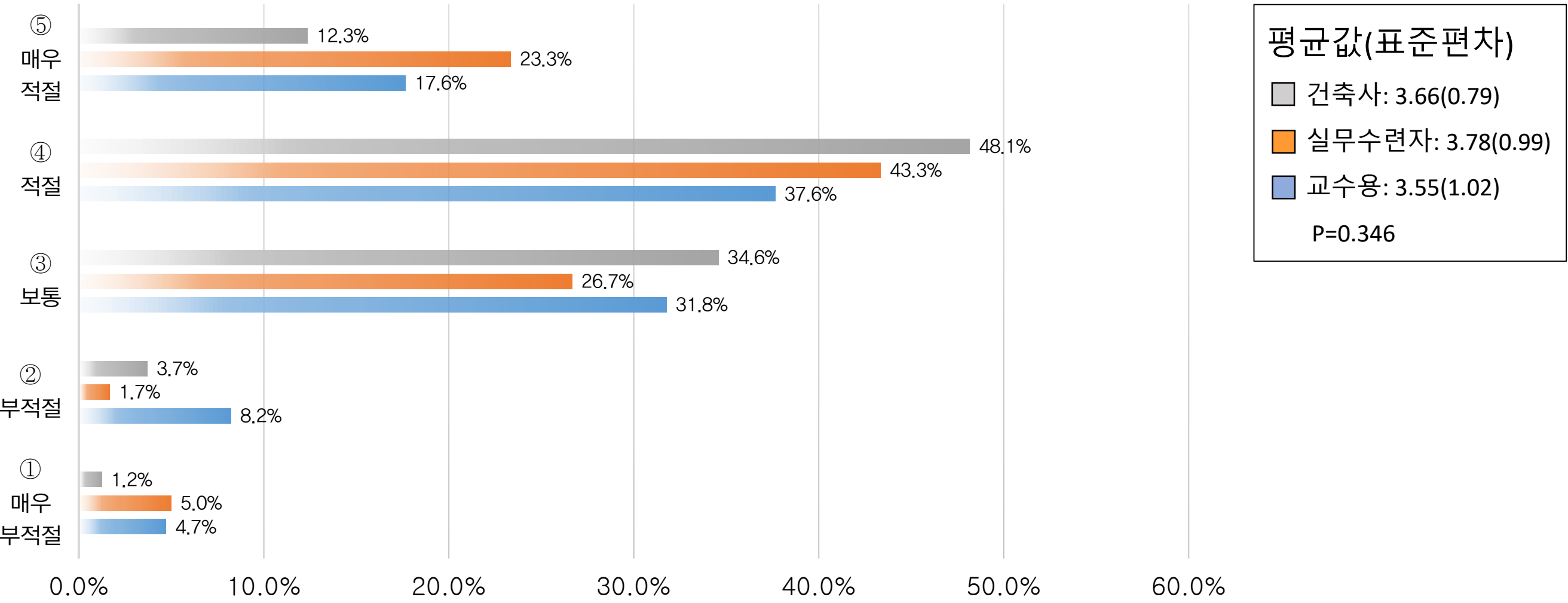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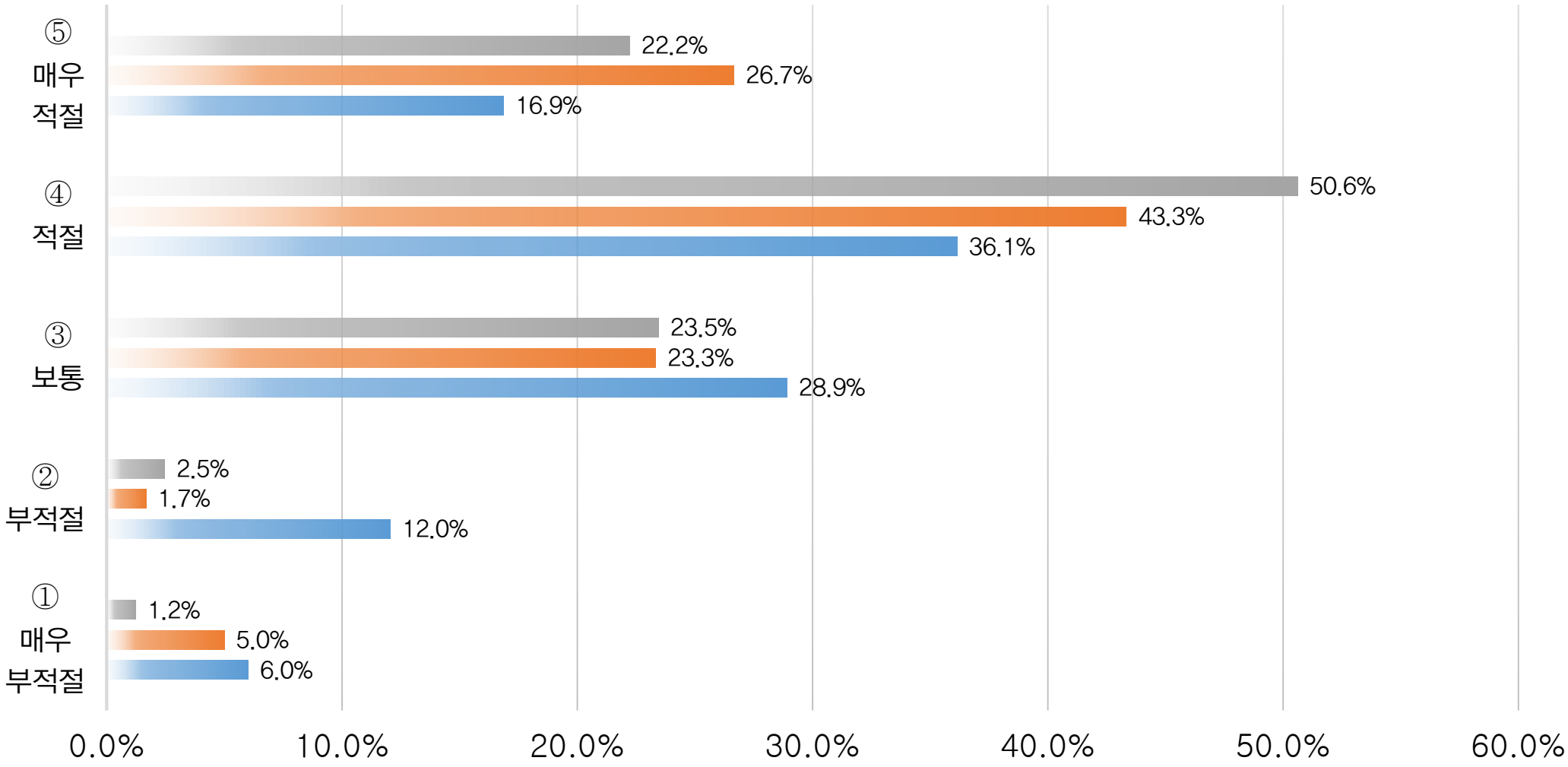
- 건축사: 3.65(0.83)
- 실무수련자: 3.79(0.83)
- 교수용: 3.83(1.01)

P=0.422

04. 건축과 사회



05. 인간행태와 공간



평균값(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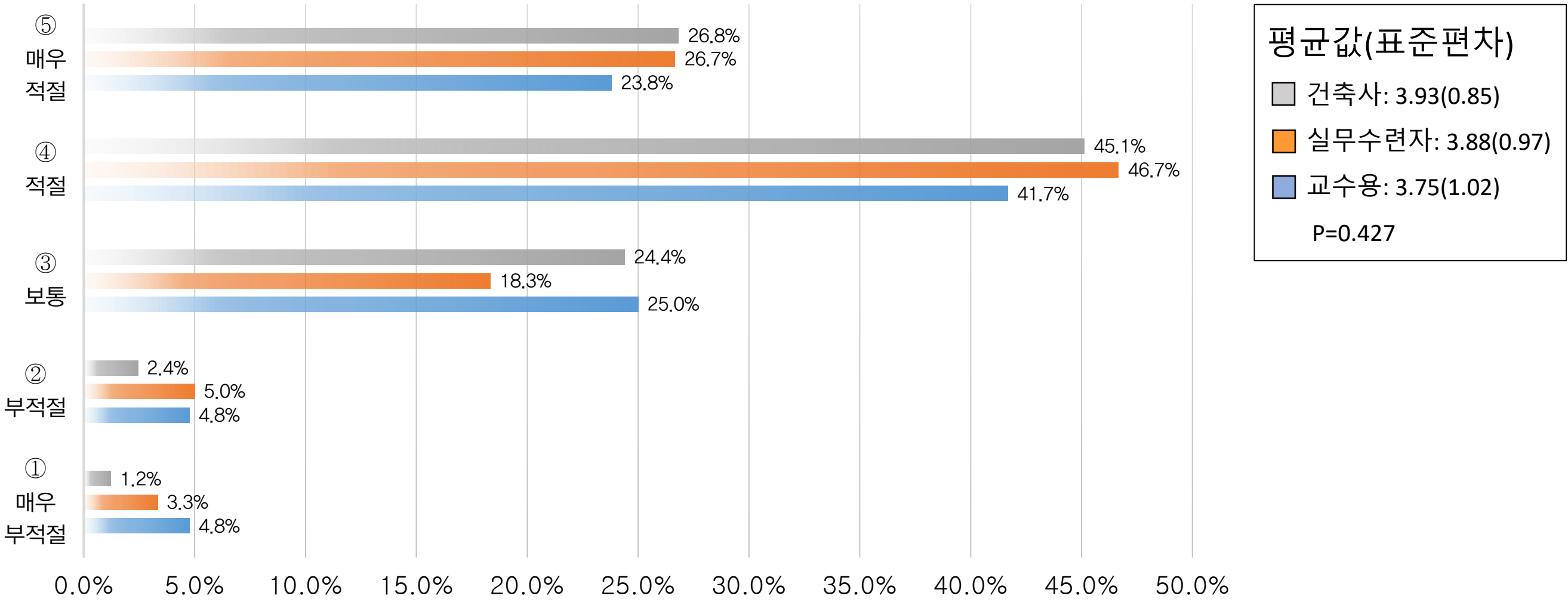
건축사: 3.90(0.81)

실무수련자: 3.85(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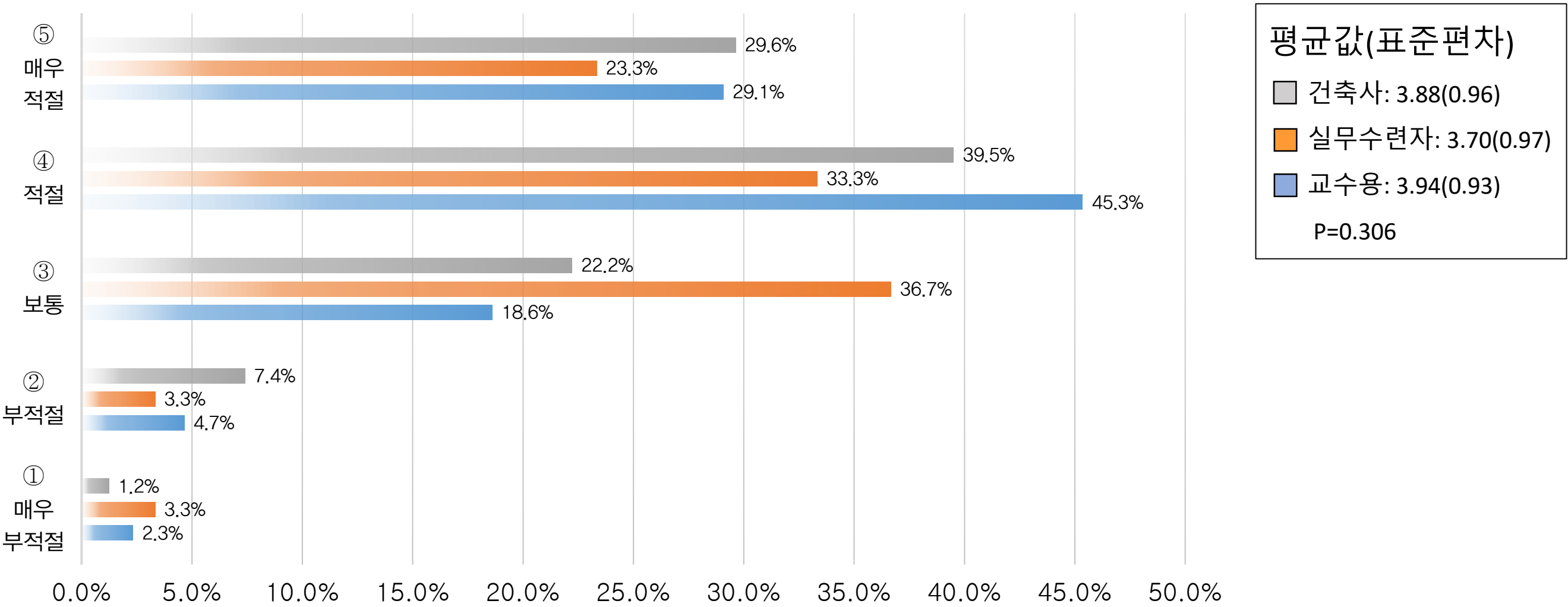
교수용: 3.45(1.09)

P=0.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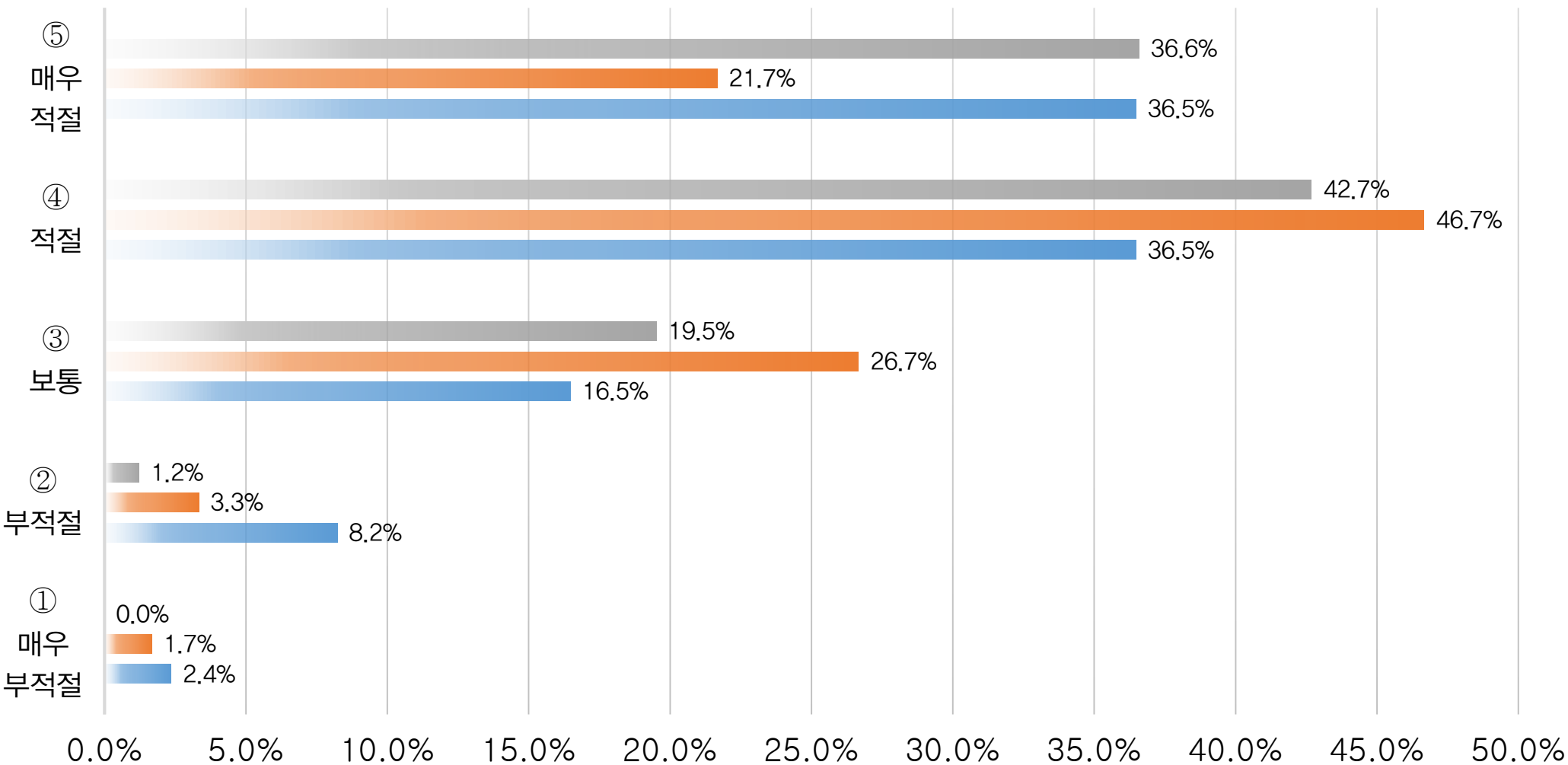
06.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



07. 건축 소통능력



08. 형태 및 공간구성



평균값(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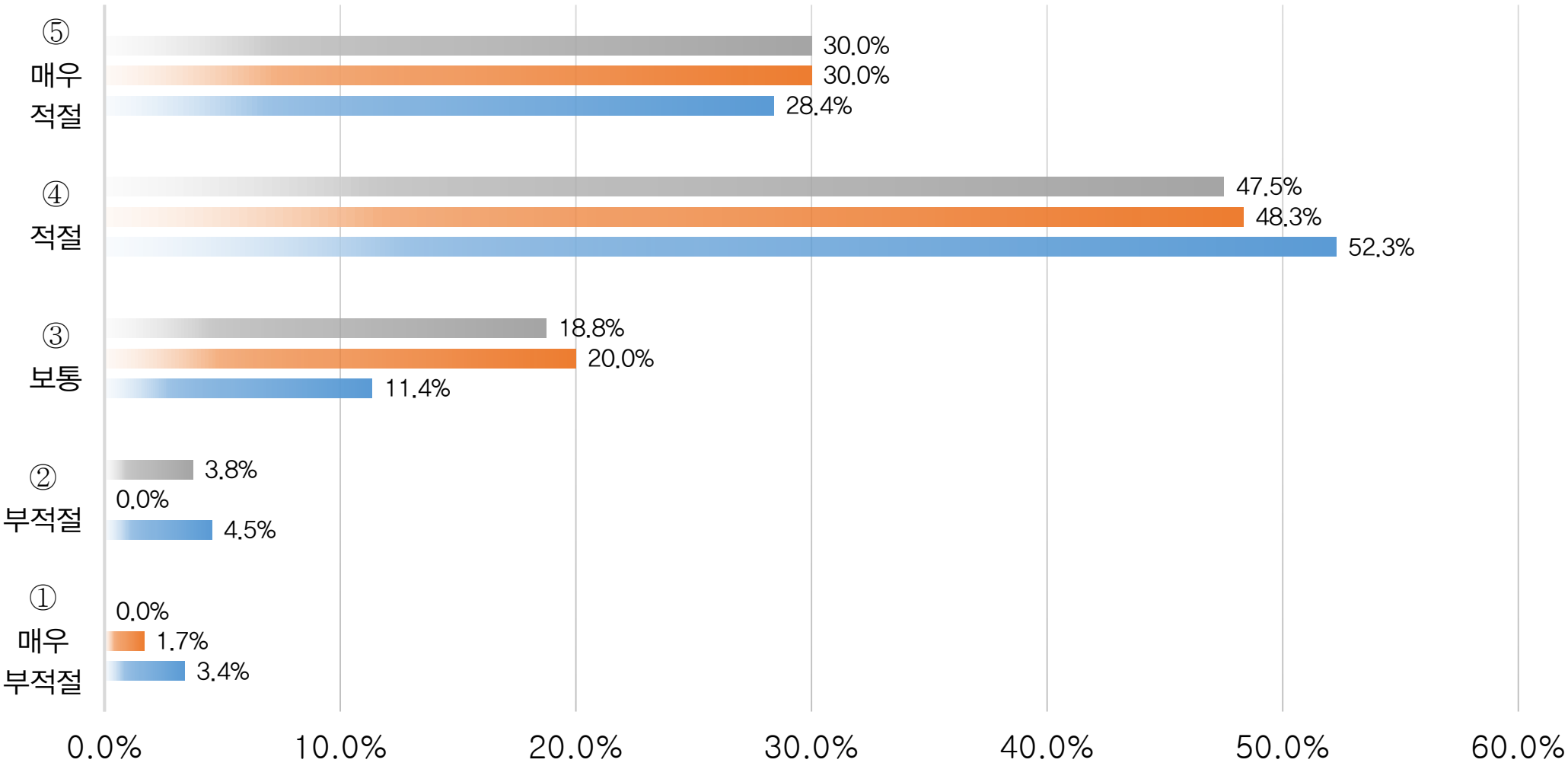
건축사: 4.14(0.77)

실무수련자: 3.83(0.86)

교수용: 3.96(1.04)

P=0.119

09. 조사 및 분석



평균값(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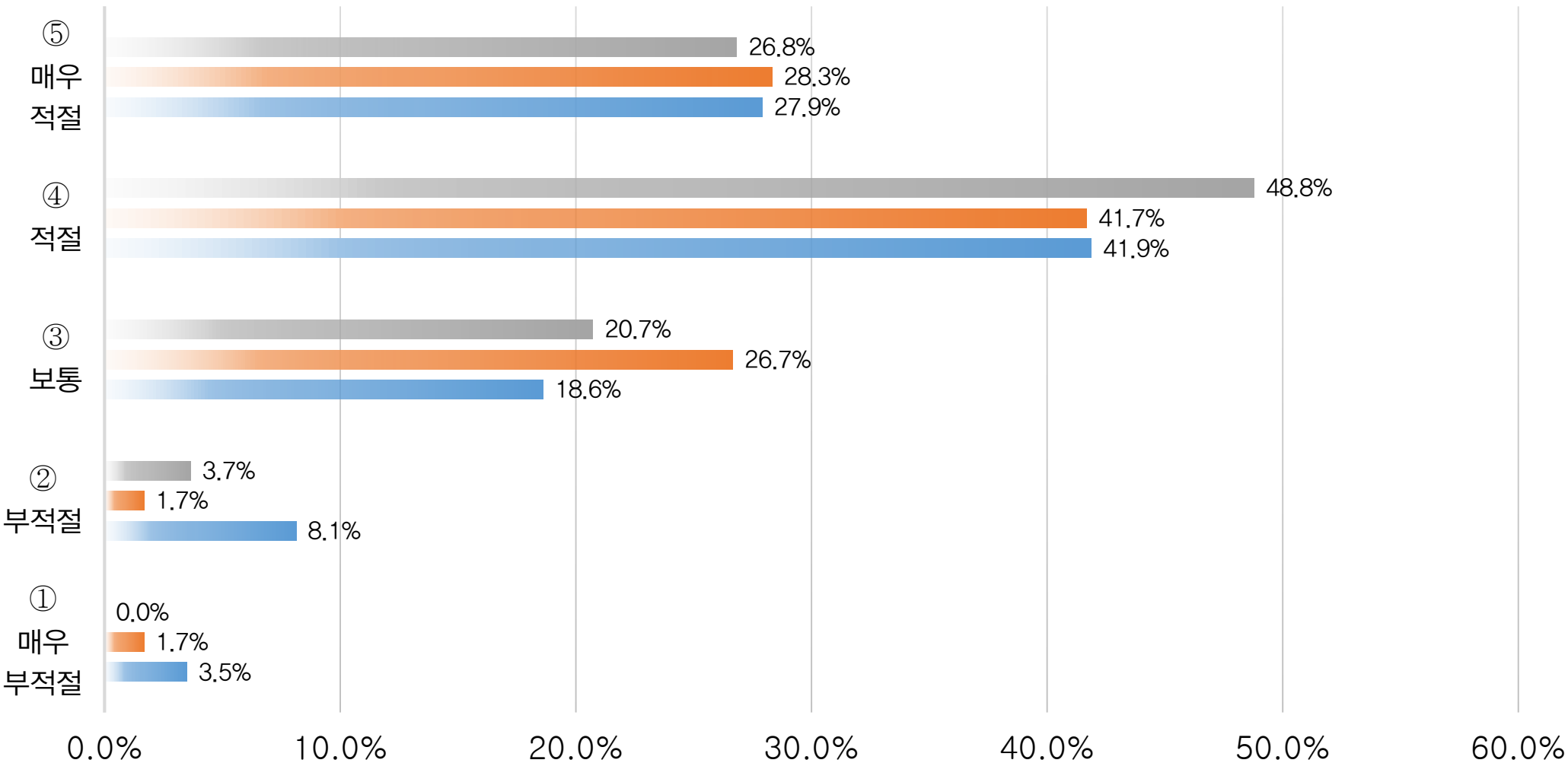
건축사: 4.03(0.80)

실무수련자: 4.05(0.81)

교수용: 3.97(0.94)

P=0.853

10. 대지 계획



평균값(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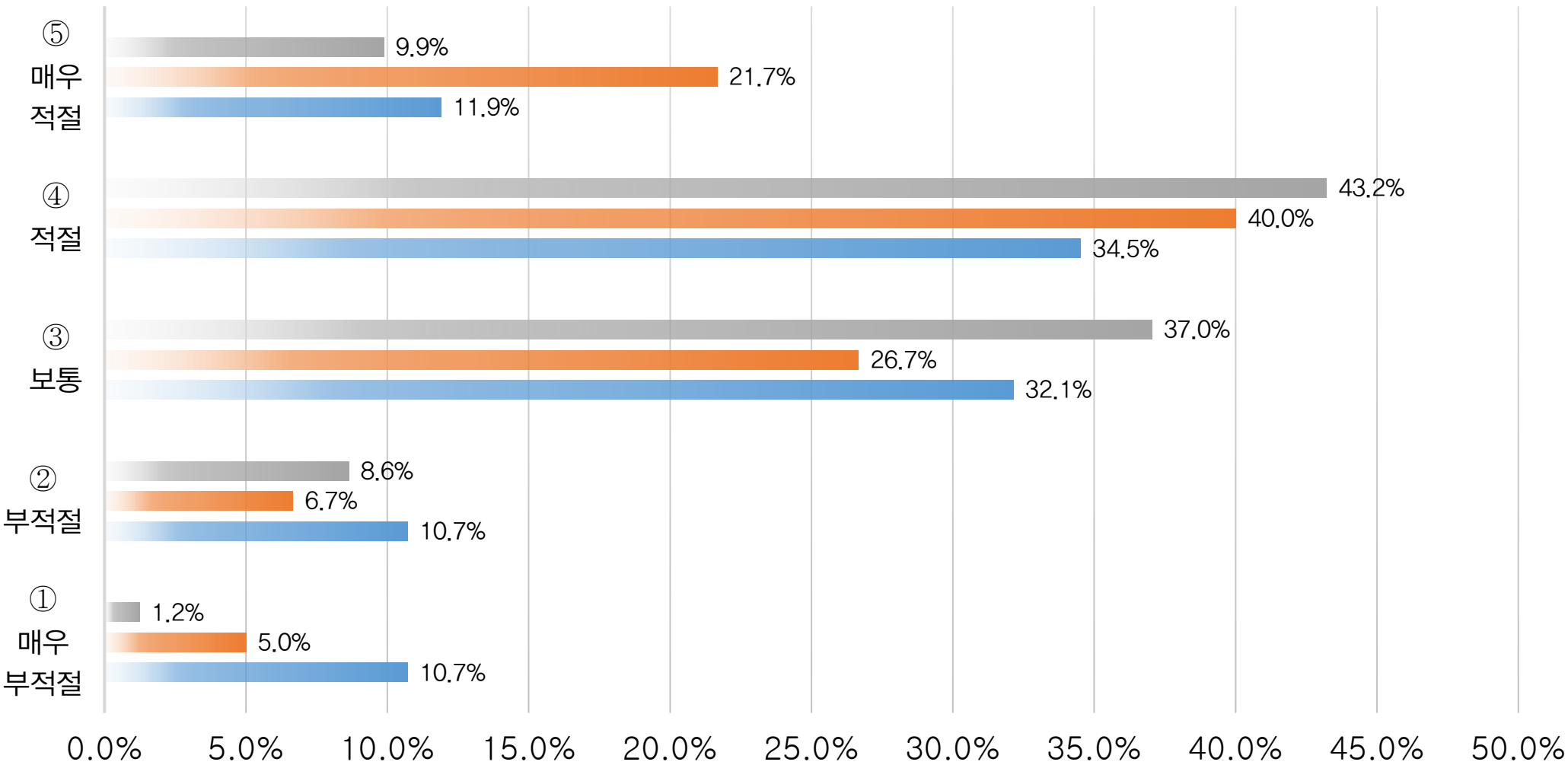
건축사: 3.98(0.79)

실무수련자: 3.93(0.88)

교수용: 3.82(1.04)

P=0.508

11. 무장애 설계



평균값(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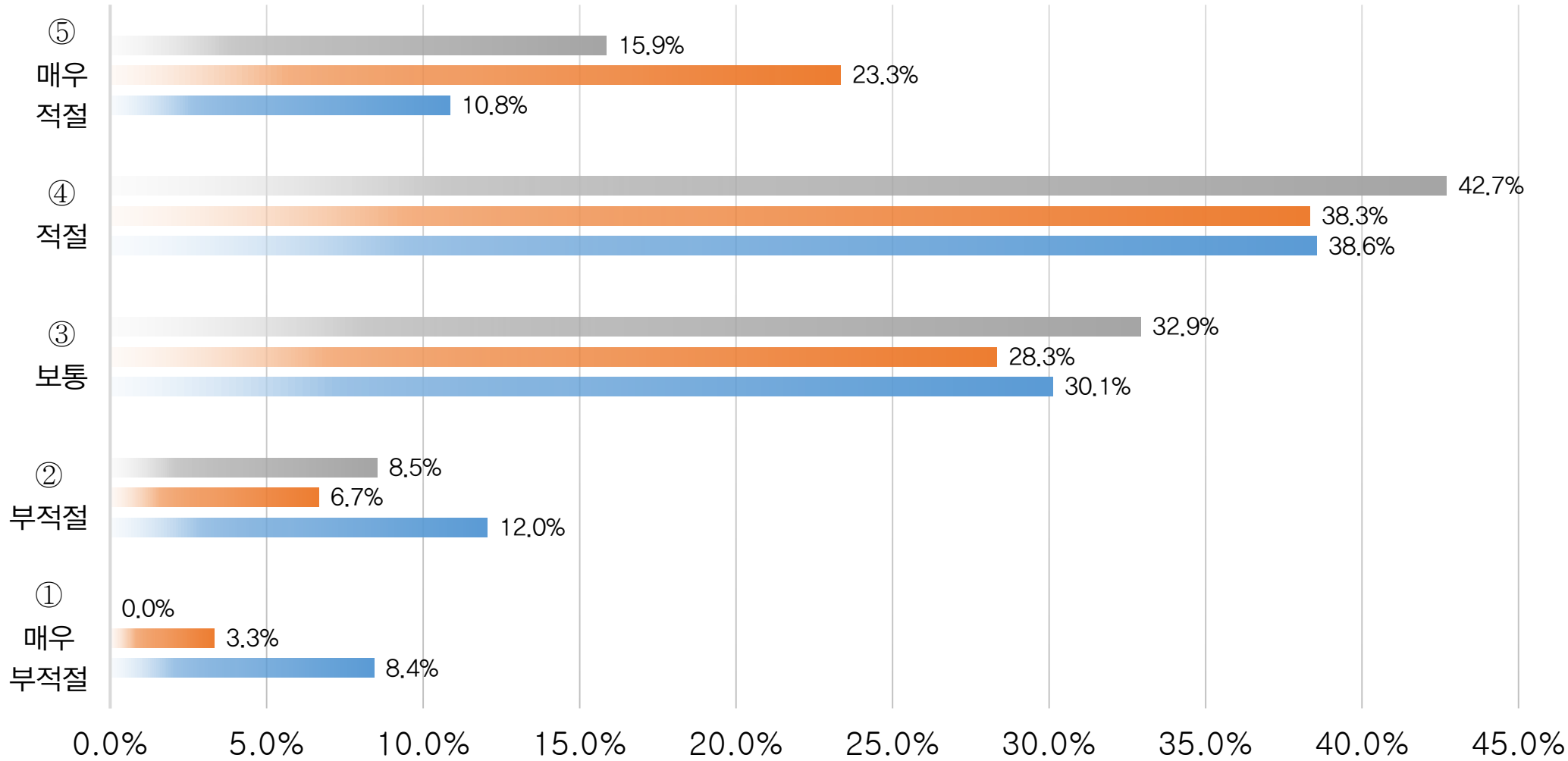
건축사: 3.51(0.79)

실무수련자: 3.66(1.05)

교수용: 3.26(1.14)

P=0.054

12. 안전 및 피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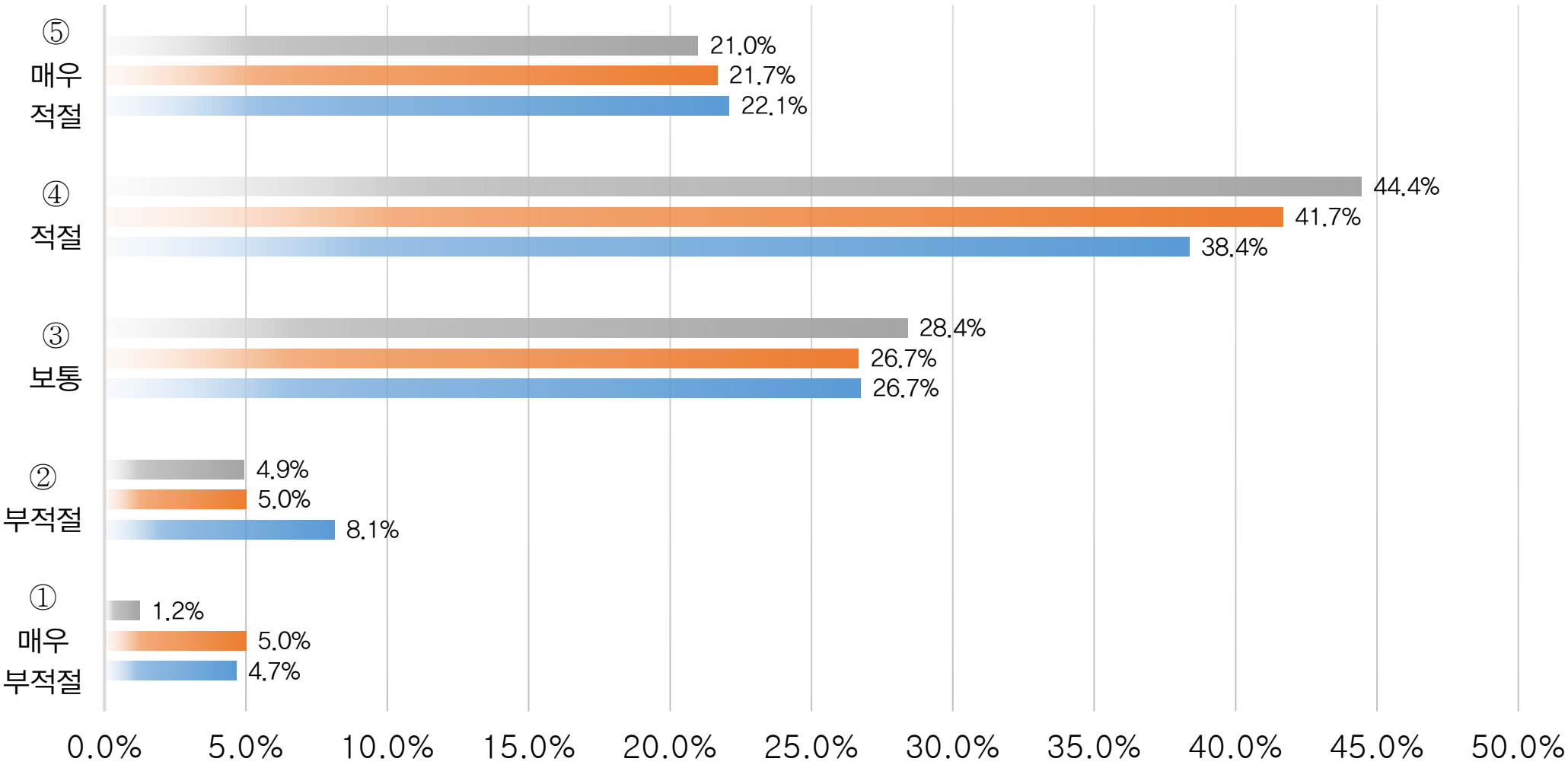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65(0.84)
- 실무수련자: 3.71(1.01)
- 교수용: 3.31(1.09)

P=0.025

13. 건물시스템 통합설계



평균값(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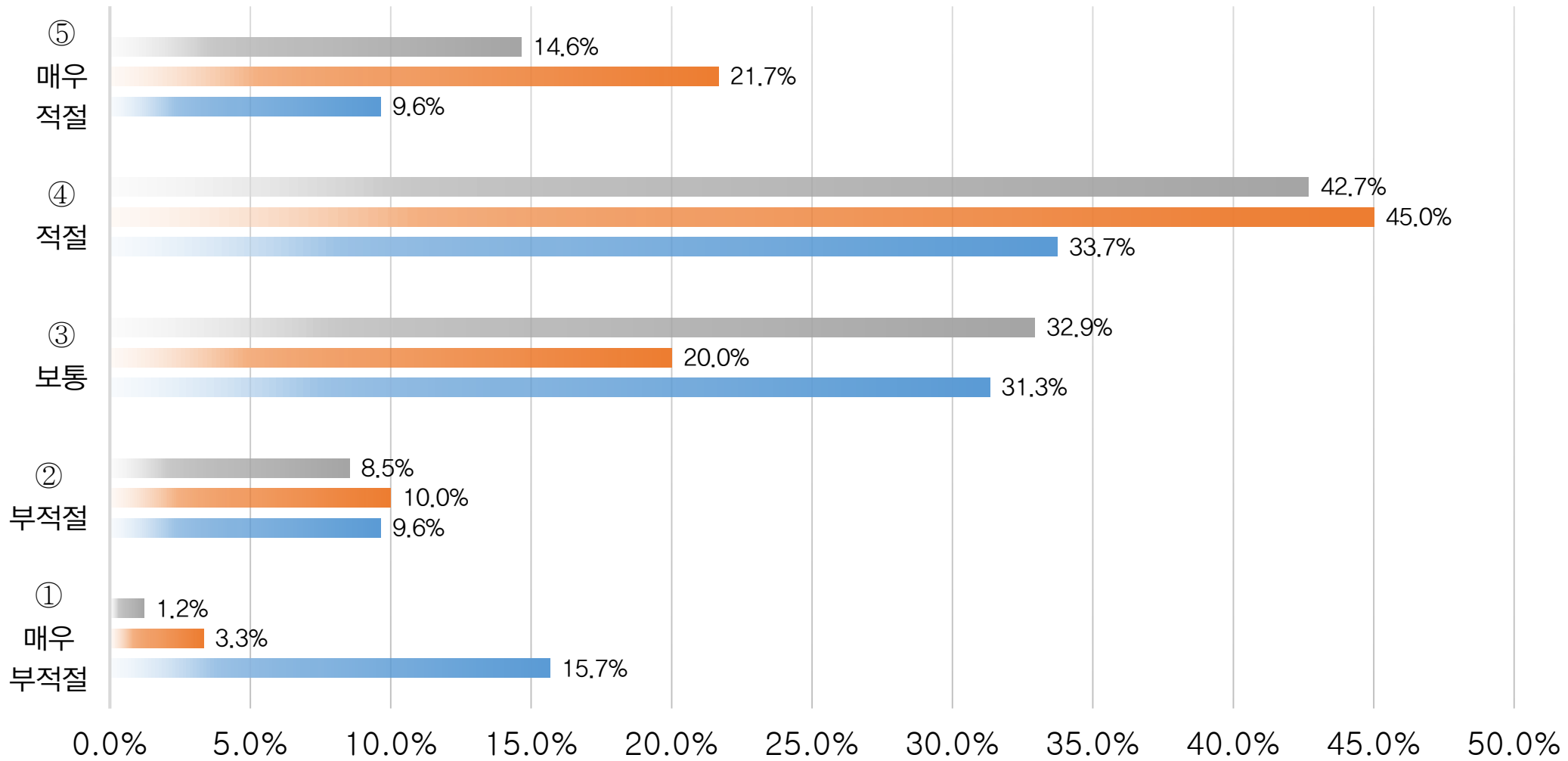
■ 건축사: 3.79(0.87)

■ 실무수련자: 3.70(1.03)

■ 교수용: 3.65(1.06)

P=0.658

14. 리모델링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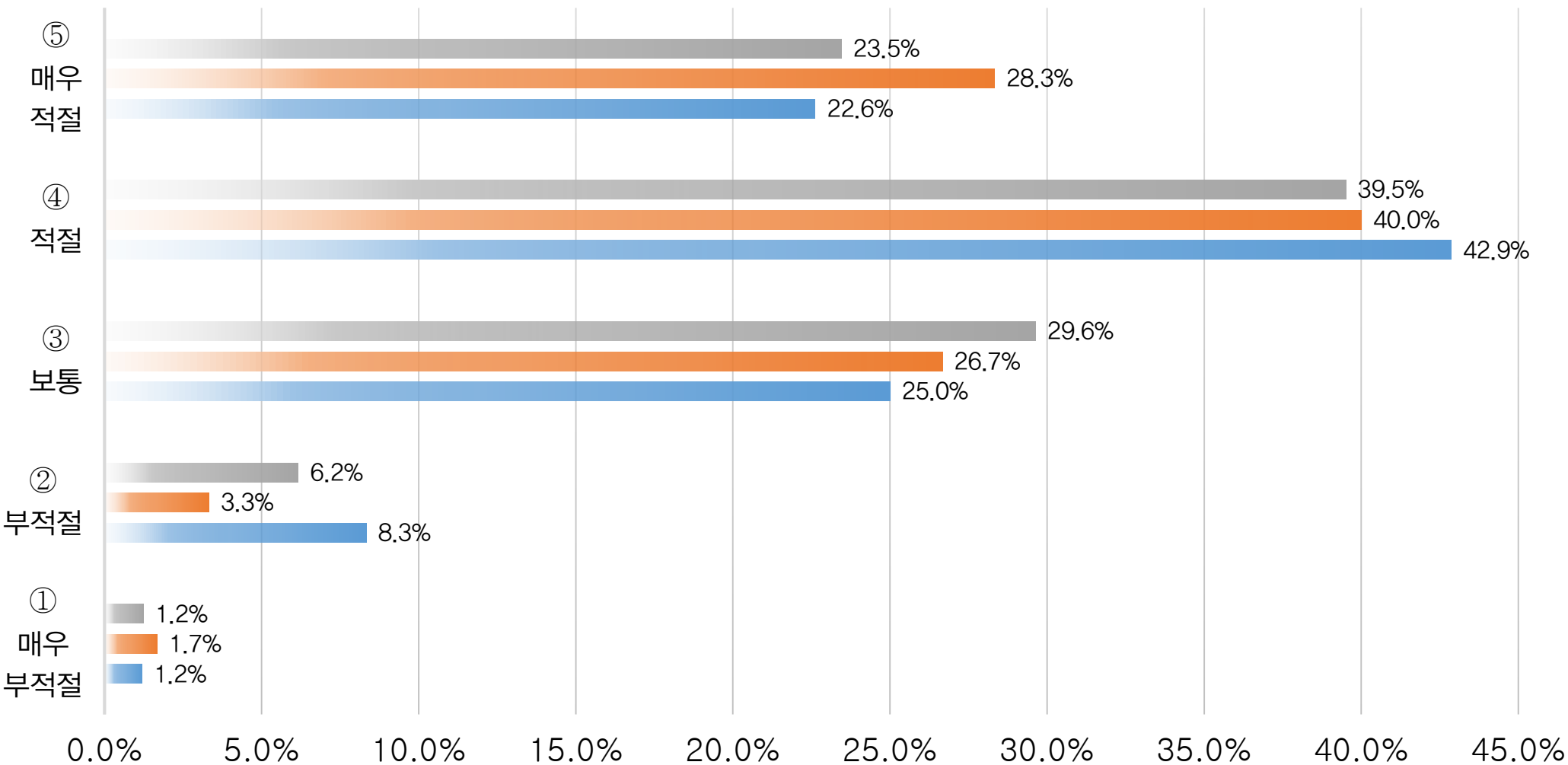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60(0.88)
■ 실무수련자: 3.71(1.02)
■ 교수용: 3.12(1.20)

P=0.001

15. 건축과 도시설계



평균값(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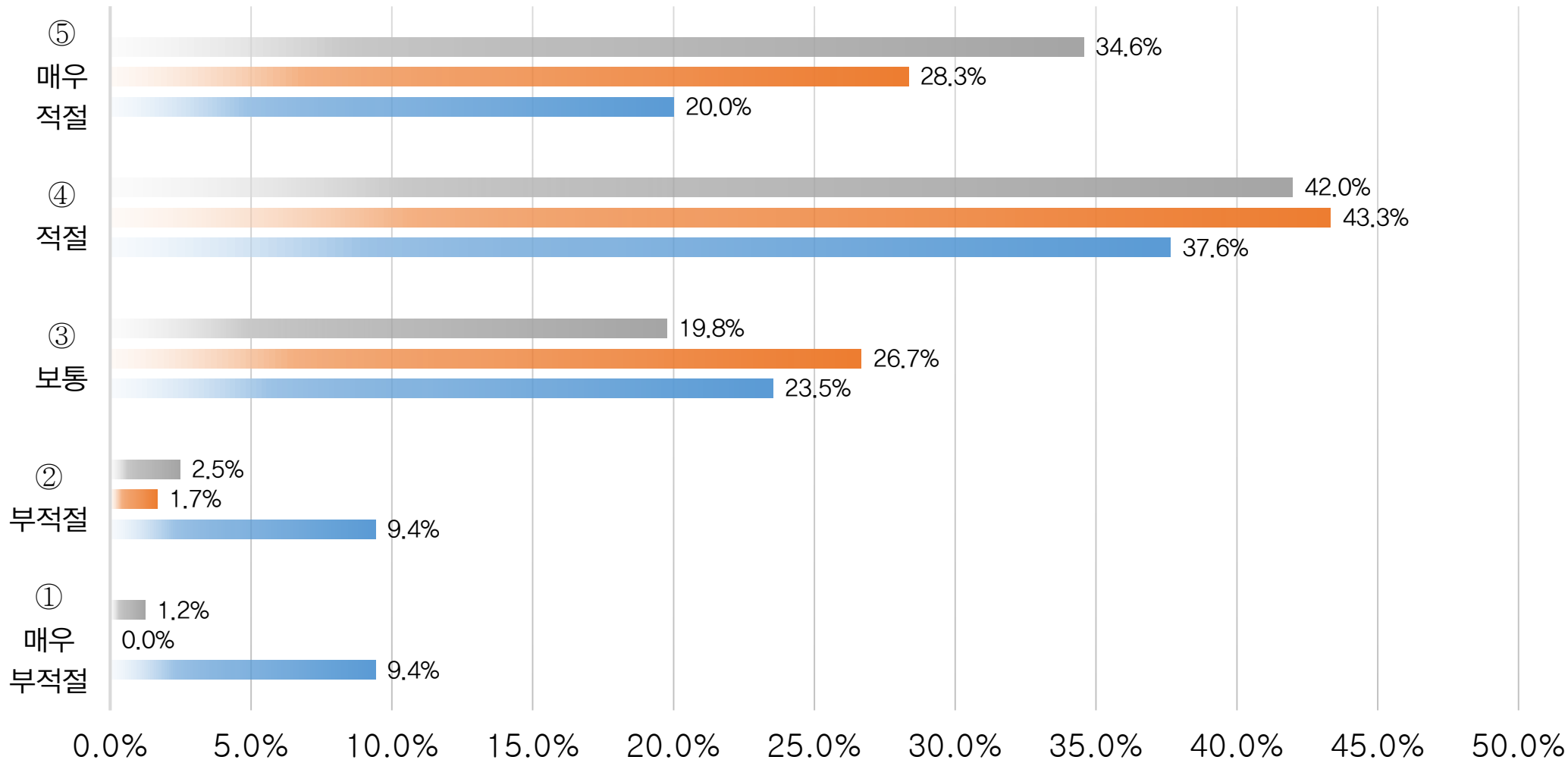
건축사: 3.77(0.92)

실무수련자: 3.90(0.91)

교수용: 3.77(0.93)

P=0.673

16. 종합 설계



평균값(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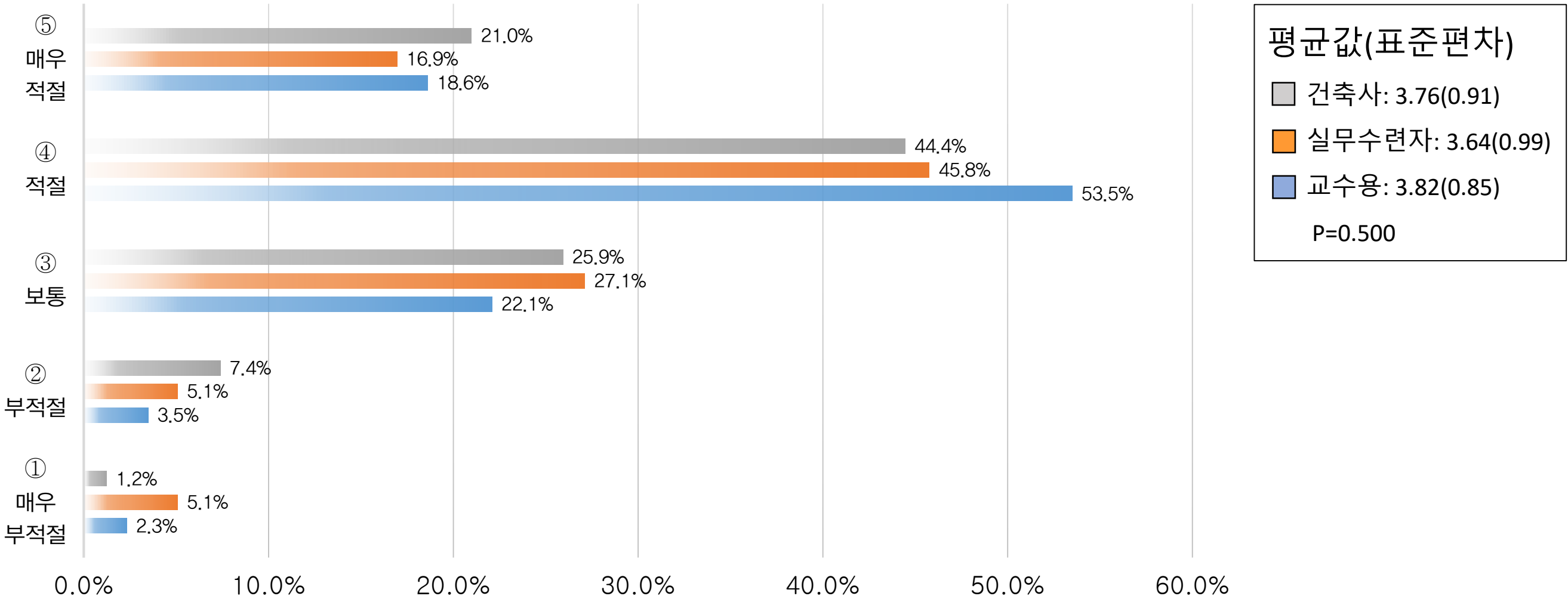
■ 건축사: 4.06(0.87)

■ 실무수련자: 3.98(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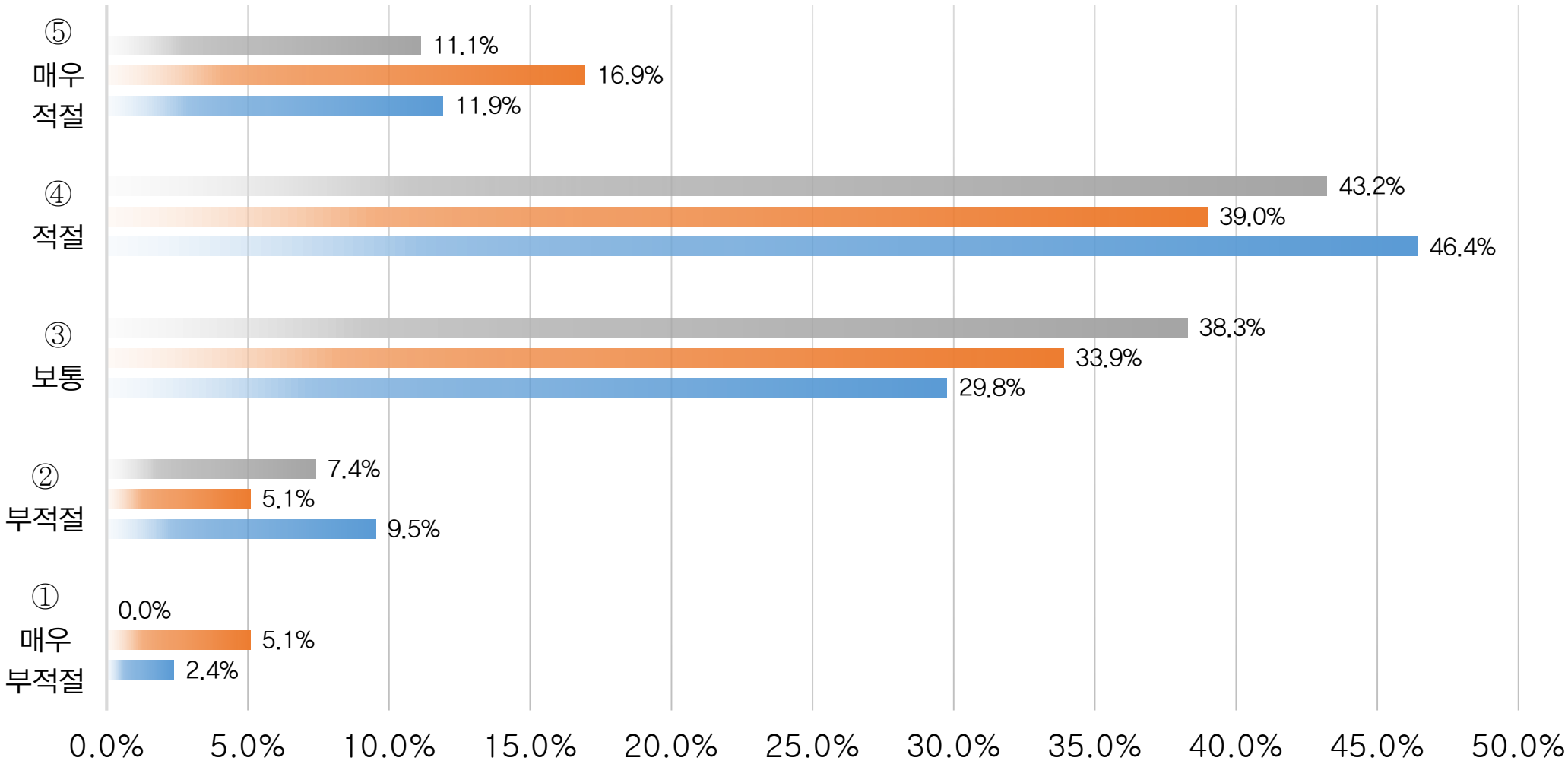
■ 교수용: 3.49(1.19)

P=0.000

17. 구조원리와 시스템



18. 환경 조절 시스템



평균값(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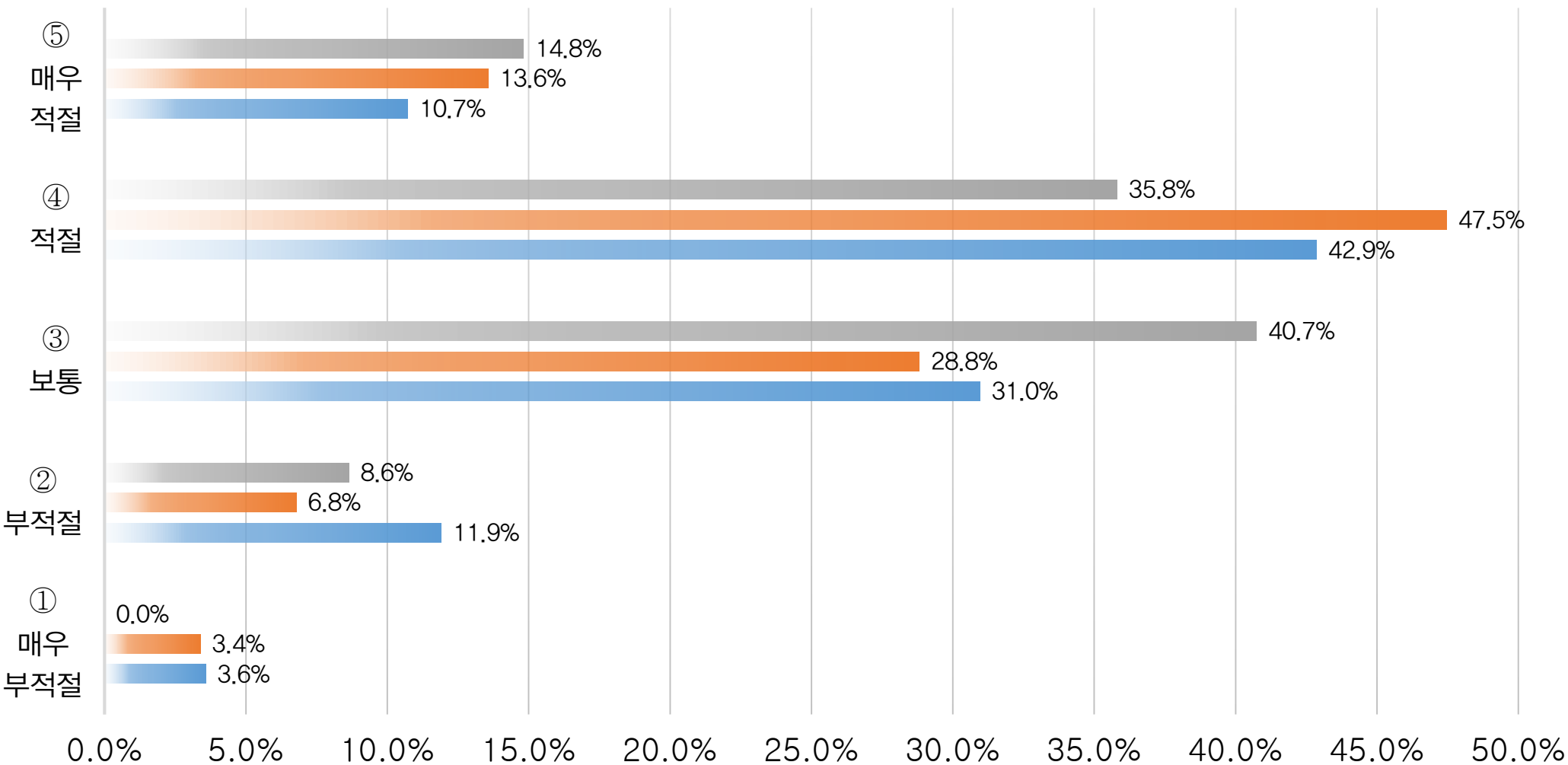
■ 건축사: 3.58(0.78)

■ 실무수련자: 3.57(1.00)

■ 교수용: 3.55(0.90)

P=0.988

19. 건축 설비 시스템



평균값(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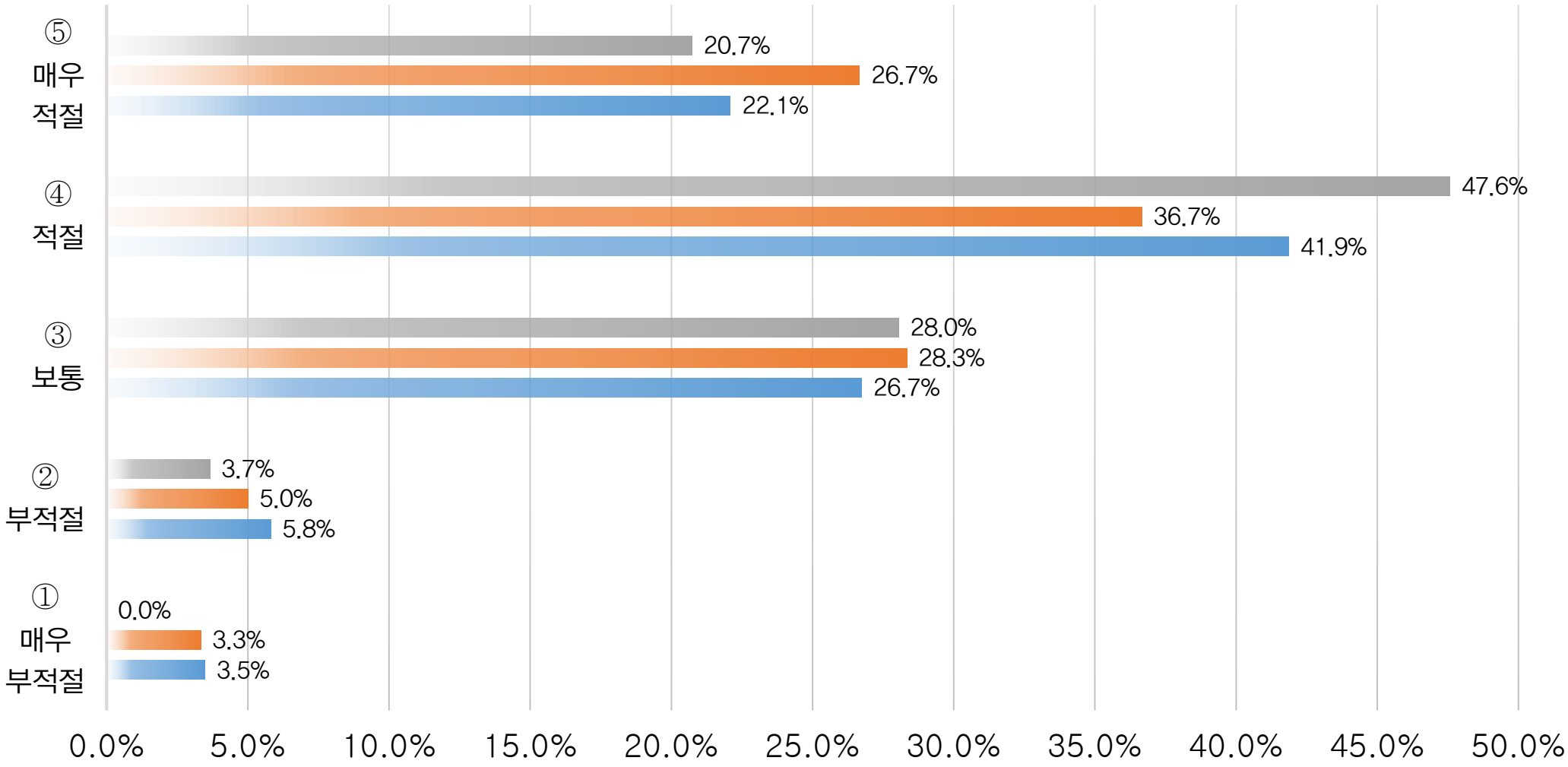
건축사: 3.56(0.85)

실무수련자: 3.61(0.92)

교수용: 3.45(0.96)

P=0.553

20. 디지털 활용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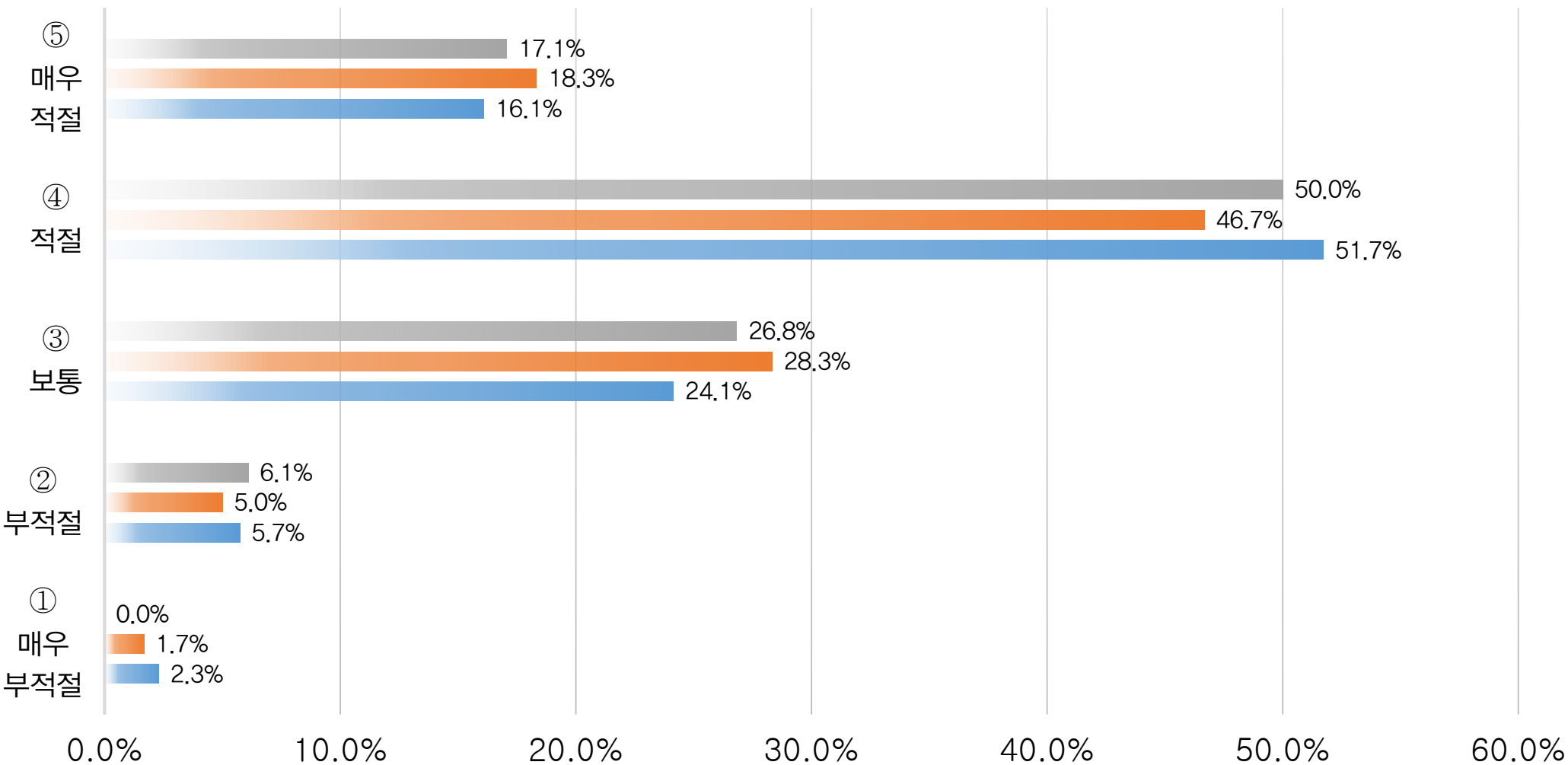


평균값(표준편차)

- 건축사: 3.85(0.78)
- 실무수련자: 3.78(1.01)
- 교수용: 3.73(0.98)

P=0.698

21. 건축재료와 구성방법



평균값(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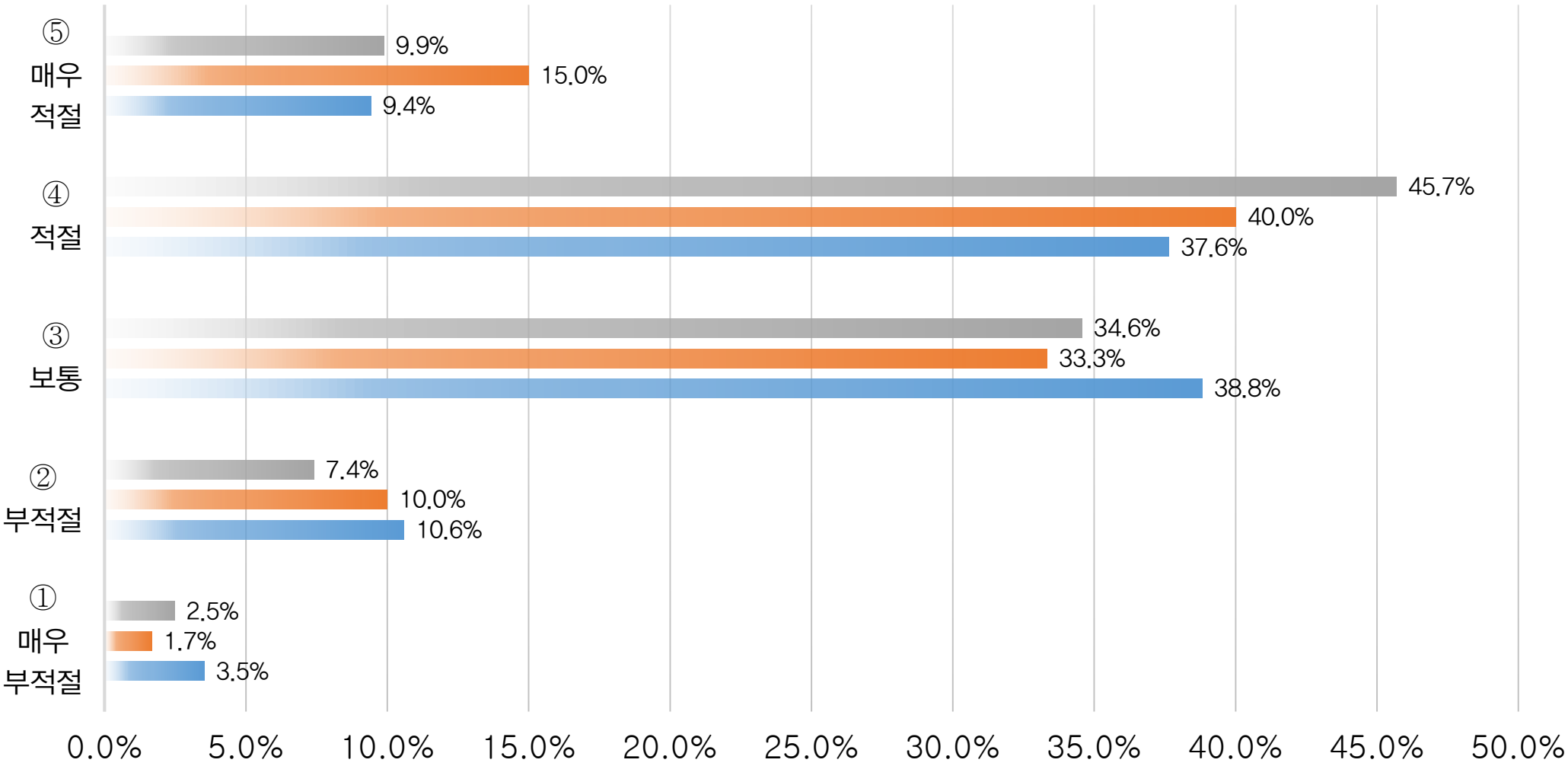
건축사: 3.78(0.80)

실무수련자: 3.75(0.87)

교수용: 3.73(0.88)

P=0.942

22. 시공 및 건설관리



평균값(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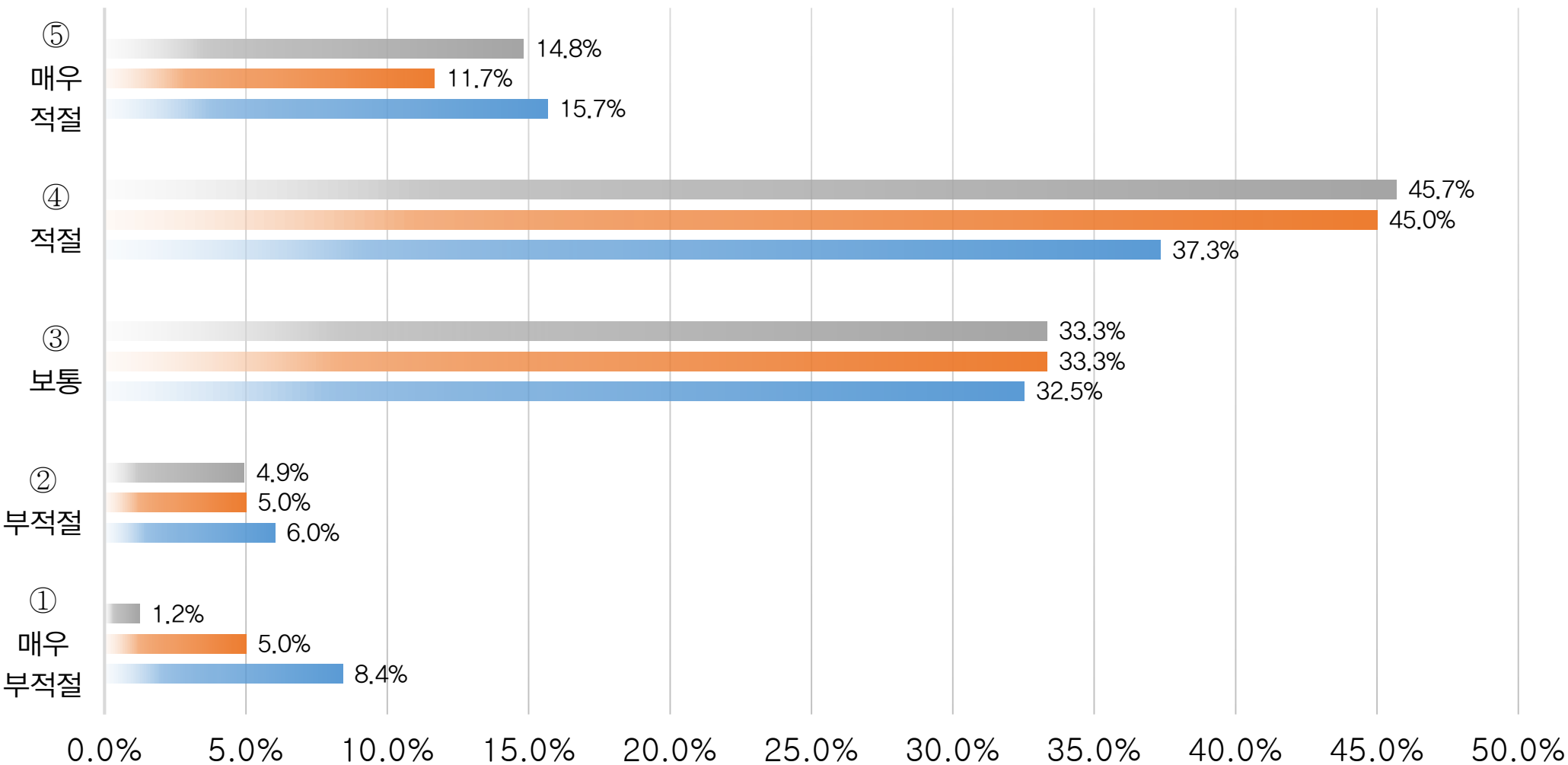
건축사: 3.53(0.86)

실무수련자: 3.56(0.92)

교수용: 3.38(0.92)

P=0.437

23. 건축사의 책임과 직업윤리



평균값(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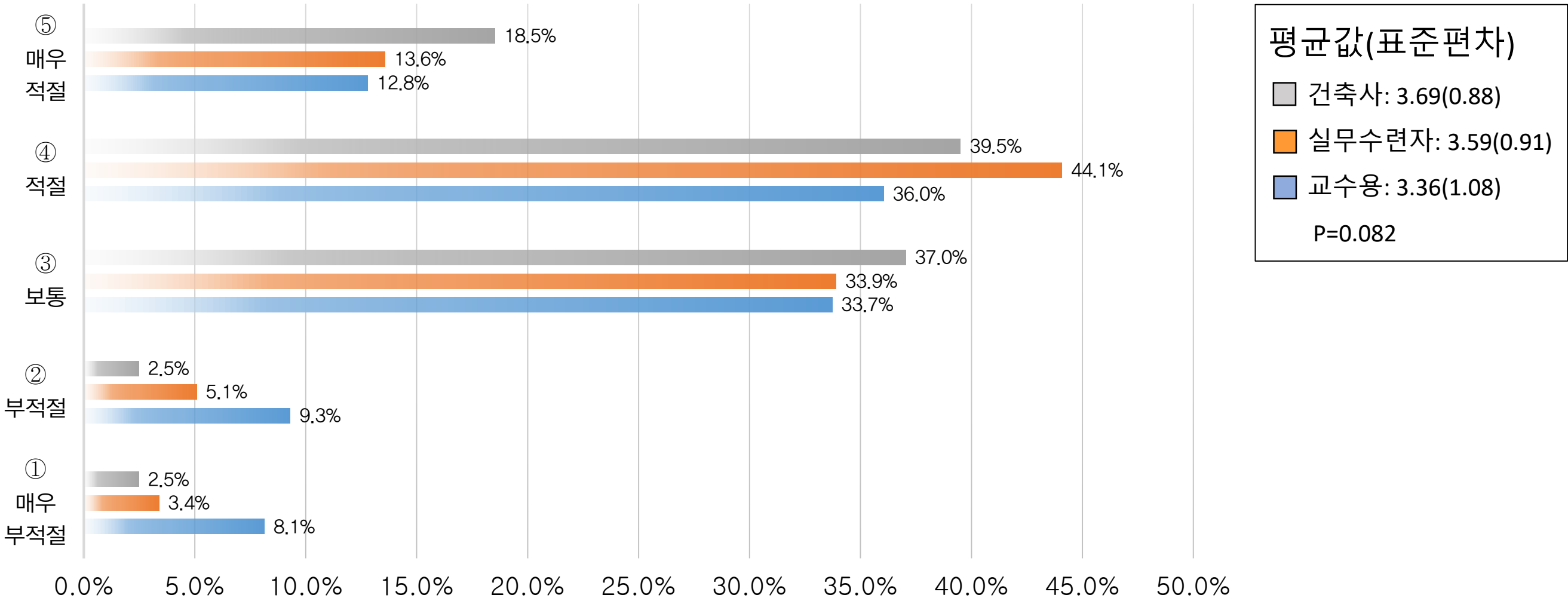
건축사: 3.67(0.83)

실무수련자: 3.53(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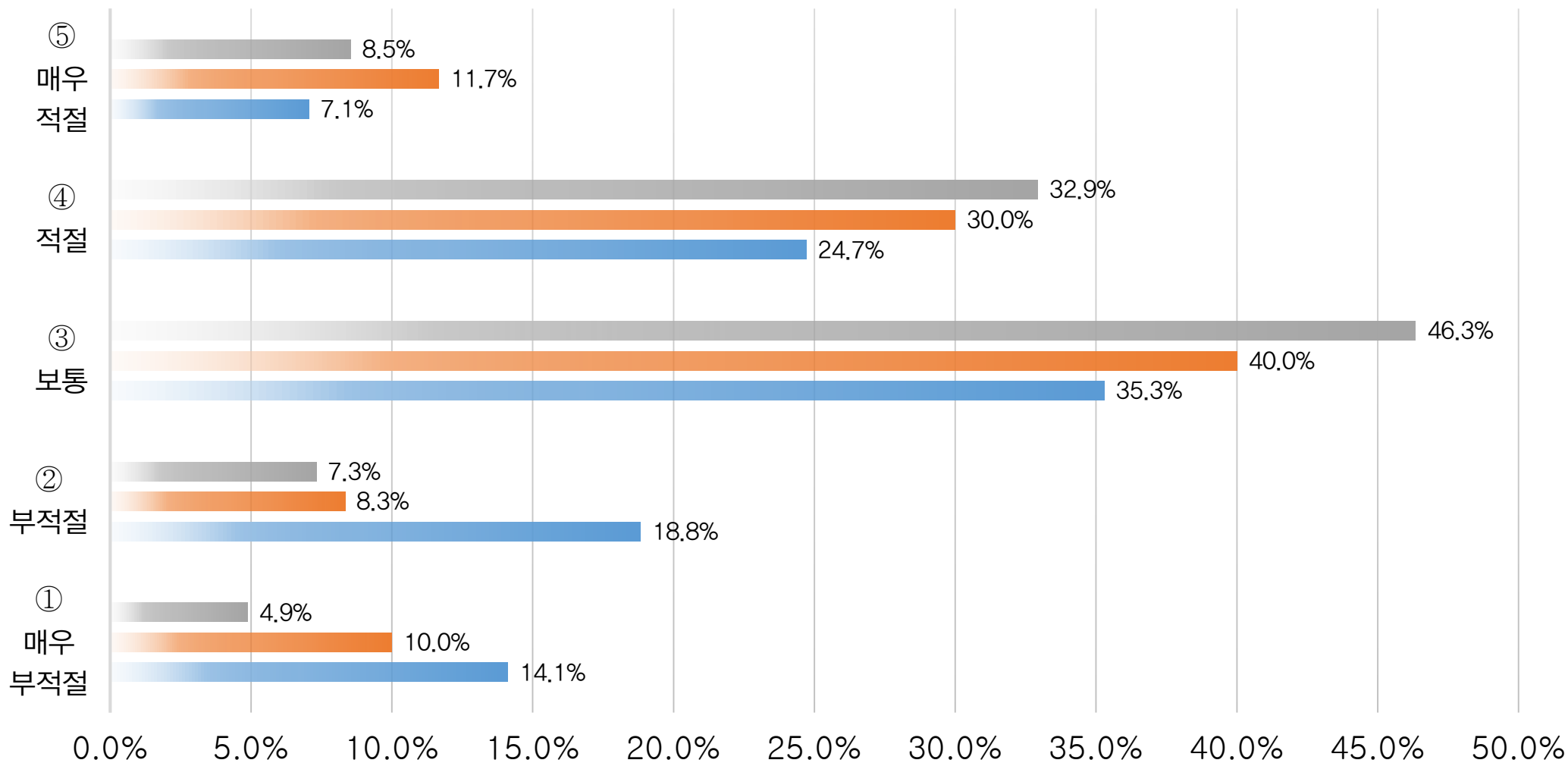
교수용: 3.45(1.09)

P=0.336

24. 프로젝트 수행과 건축사의 역할



25. 건축사 사무소의 운영과 관리



평균값(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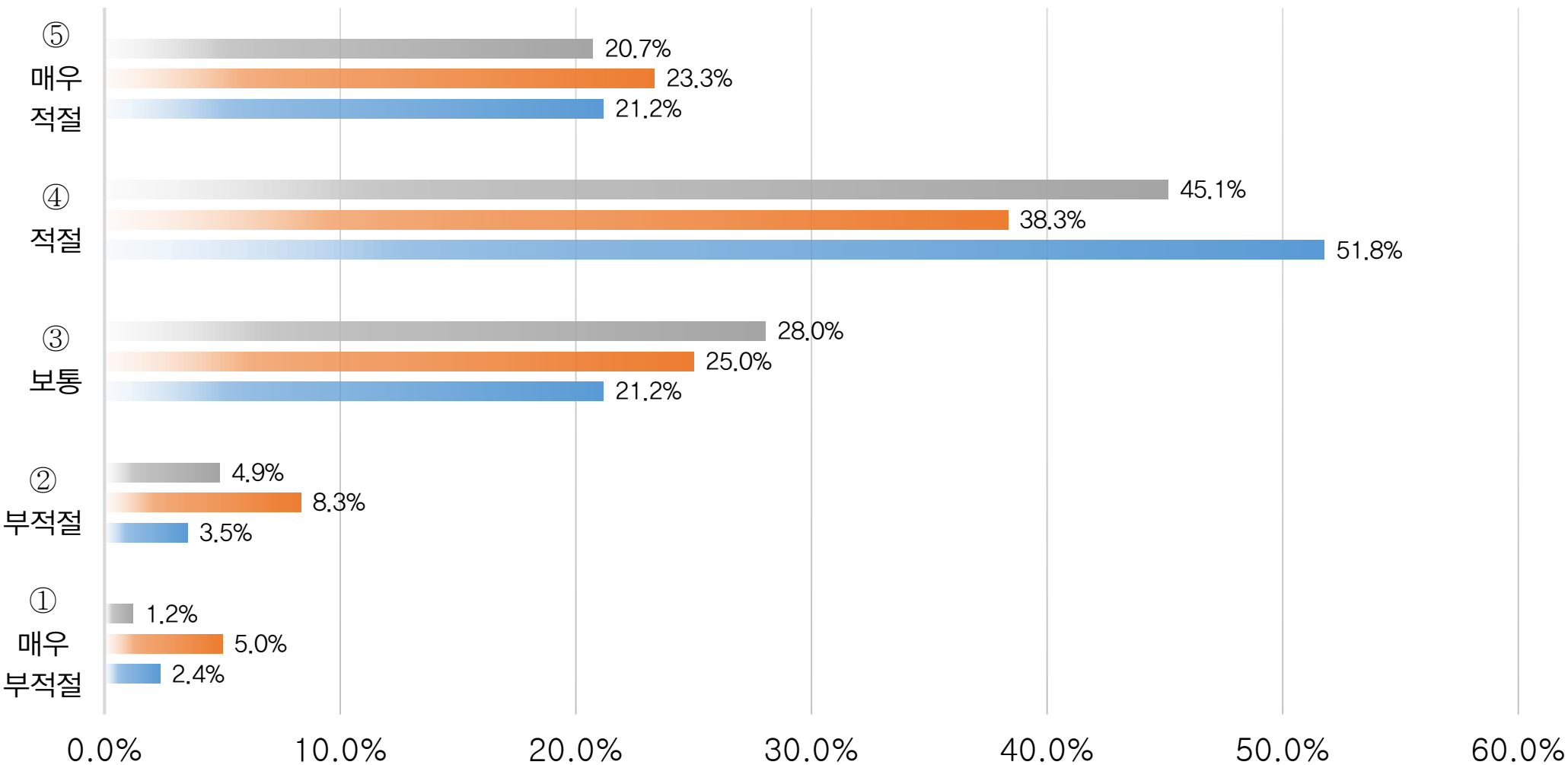
건축사: 3.32(0.91)

실무수련자: 3.25(1.09)

교수용: 2.91(1.13)

P=0.031

26. 건축법 및 관계 법령



평균값(표준편차)

건축사: 3.79(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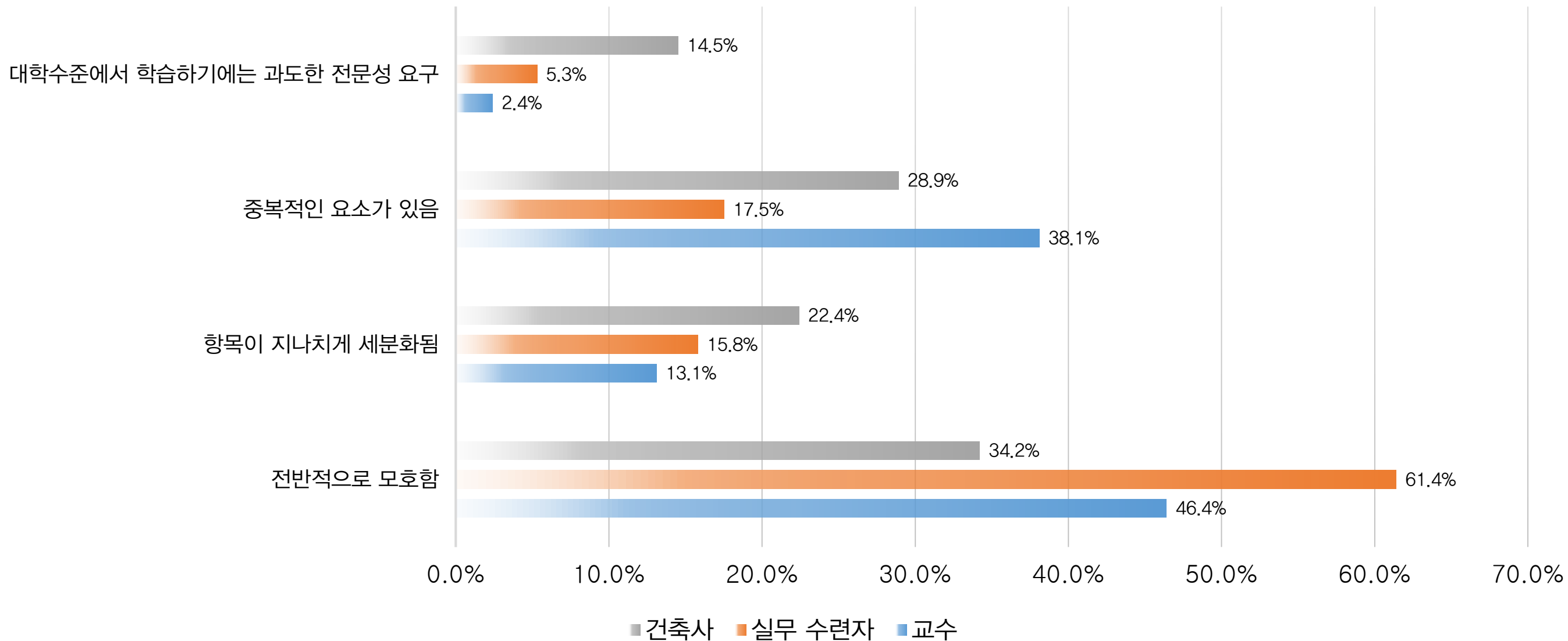
실무수련자: 3.66(1.08)

교수용: 3.85(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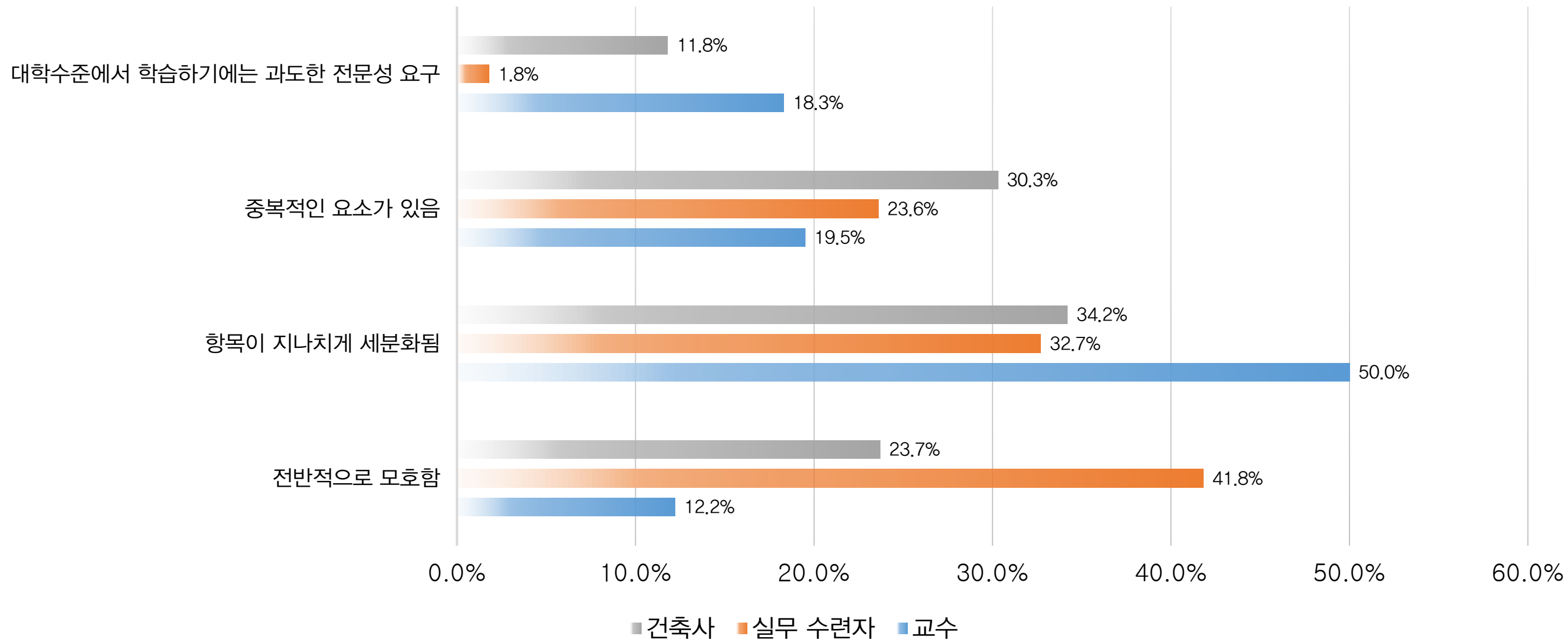
P=0.473

학생수행평가기준(SPC)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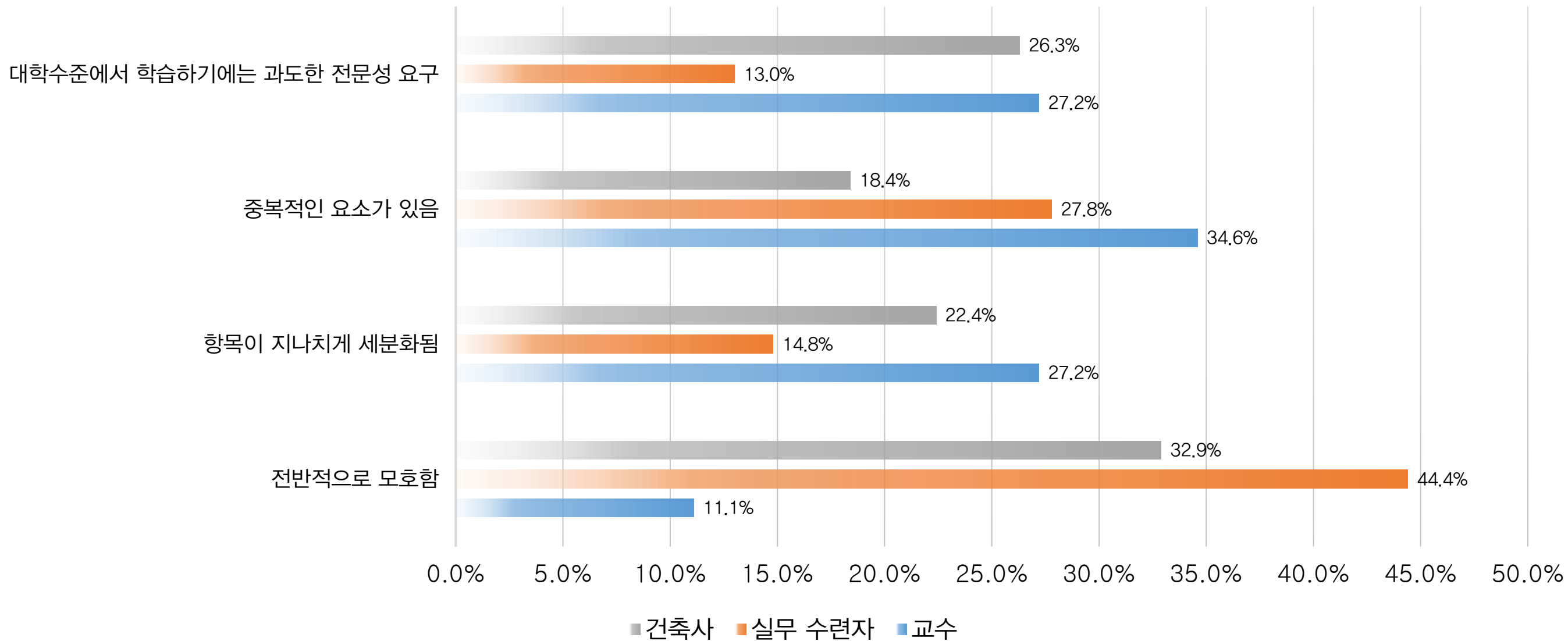
건축적 사고 영역



설계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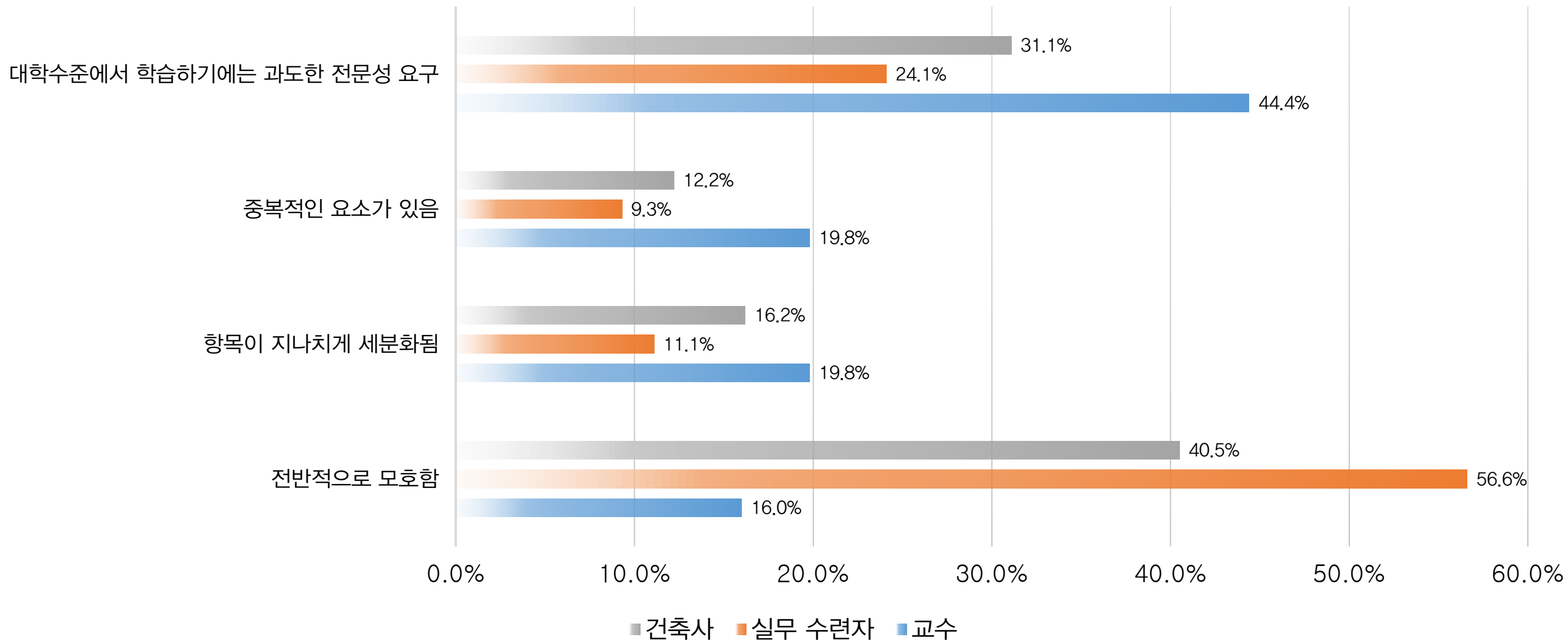


기술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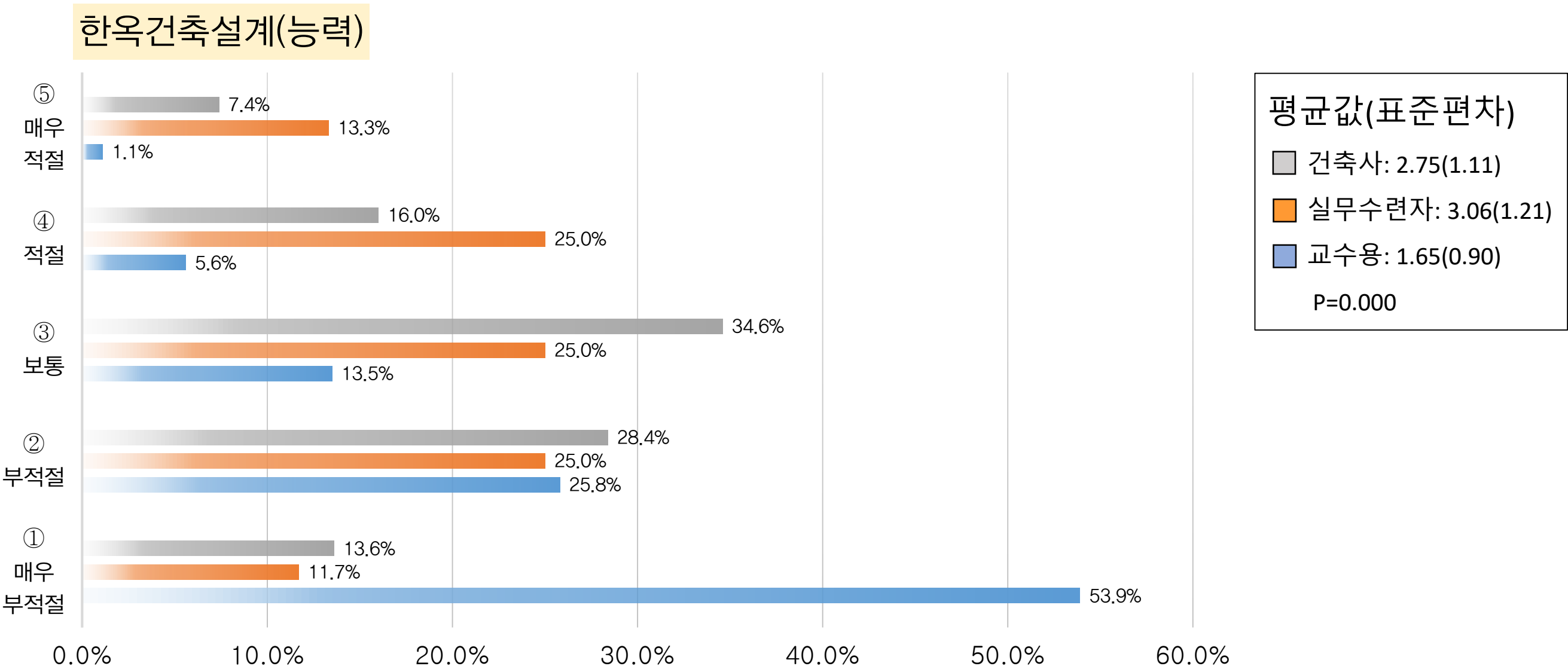


학생수행평가기준(SPC)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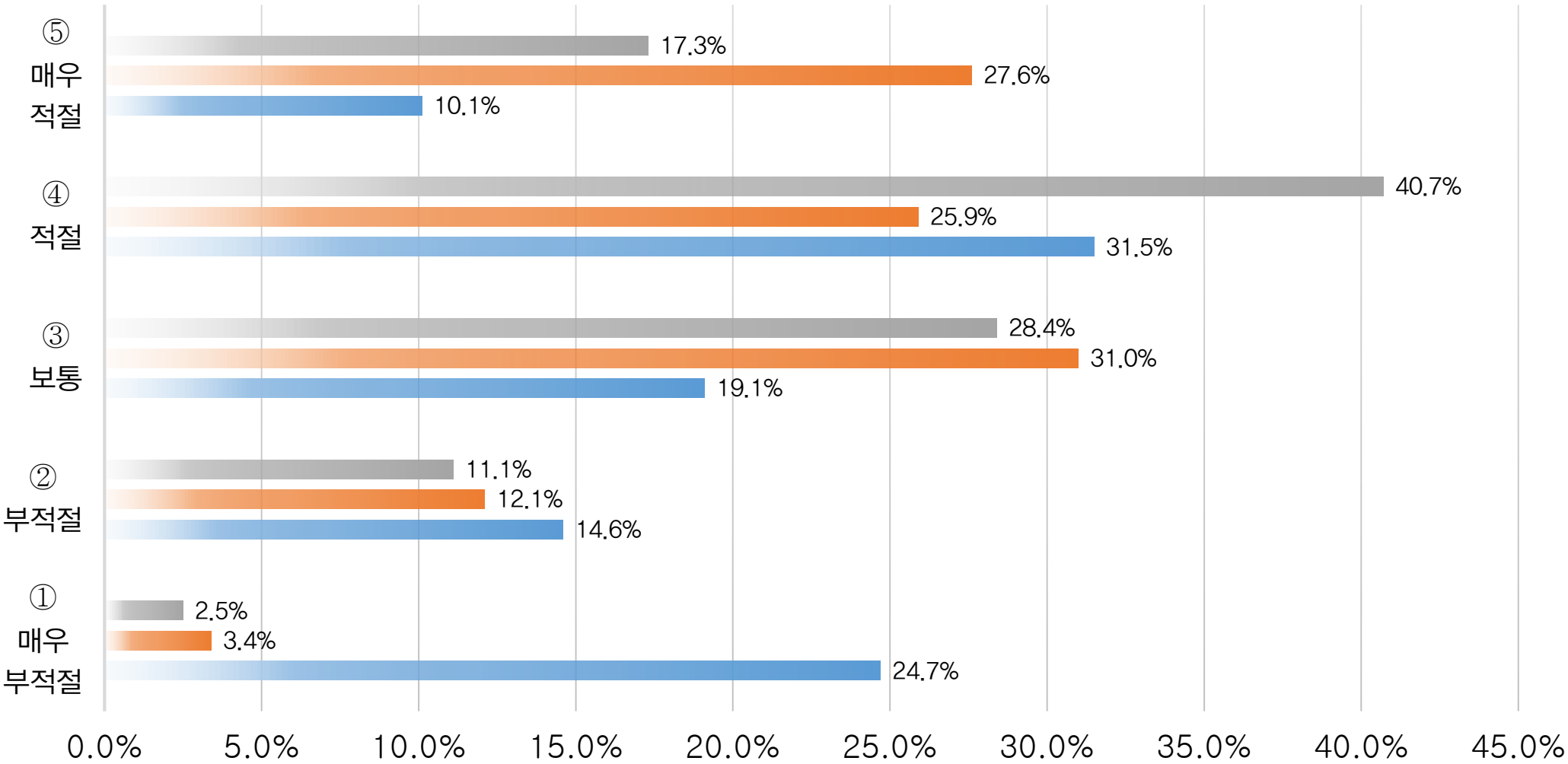
실무 영역



학생수행평가기준(SPC)에 추가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평가



도시재생(이해,능력)



평균값(표준편차)

건축사: 3.59(0.98)

실무수련자: 3.64(1.10)

교수용: 3.00(1.39)

P=0.006

건축적 사고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건축사

인문, 철학, 및 경제학적 관점 필요

건축이론에 대한 학년별 다양한 강좌가 필요함

건축과 사회 항목과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 항목을 결합-
> 비슷하고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음.

'건축과 과학기술 및 예술'을 제외했으면 합니다. 과학기술은 건축에 전반적으로 포함된 내용으로 이해되며 '기술'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의 공공성 이해 필요, 건축은 지어지는 순간 나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회에 존재하는 어절 수없이 봐야 하는 공공재임

실무수련자

평가기준이 모호함.

교수

01(건축과 과학기술 및 예술)은 04(건축과 사회)와 통합하거나 삭제: 매우 모호한 항목으로 보이며, 교양적 성격이 강함

도시의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

건축적 사고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우선되어야 함

건축과 과학기술 및 예술: 별도의 SPC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교과목에 필연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함. 또한 적용 범위와 해석이 광범위할 수 있음. - 조사 및 분석: 설계 외 건축가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전문 영역에 조사 및 분석의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보다 포괄적인 영역인 건축적 사고에 적합하다고 생각함

2 세계 건축의 역사와 문화와 3 한국 건축과 전통을 "건축의 역사와 문화"로 통합

4 건축과 사회와 5 인간행태와 공간을 "건축과 사회"로 통합. (인간행태와 공간은 상대적으로 세부사항이며, 건축과 사회로 통합가능)

건축적 사고가 융합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세부적으로 구성됨

설계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건축사

'리모델링 설계'를 제외했으면 합니다. 기존건물이 있는 상태에서의 설계행위를 특정하여 평가하기 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년별 설계 프로그램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좀 더 다양한 시설용도를 설계할 수 있게 선택성을 부여하면 좋을 듯 함

제대로된 도면의 이해 필요, 도면을 왜 그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그림으로 존재하는 건축은 의미가 없음 (실무와 중복)

13. 건물시스템 통합설계 : 대학교육에서 전문성이 강한 항목으로 사료됨

개념과 형태 그리고 자연과의 연관된 통합된 SPC. 장애와 피난 관련은 핵심 사항만 계획 SPC에 합병하고 SPC 제외. 이유는 법적으로 시설에 따라 꼭 지켜야하는 강제 사항임으로 수행단계에서 수렴 가능함.

무장애 설계와 안전 및 피난 설계 항목 결합 -> 비슷하고 함께 수행할 수 있음.

실무수련자

구조지식 혹은 창의적 디자인의 현실화 방법론 추가요망
재료 관련 설계 : 더 세분화 된 분야 공부

실시 설계 및 건축상세도 추가 교육

교수

리모델링은 현대 건축에서 기본이지만 굳이 별로 SPC로 지정하여 학습할 필요는 없음

SPC 항목이 설계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간혹 특정 분야를 특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됨

무장애설계 > 실무에서도 인허가시 경력자도 건별로 상이한 경우가 많은 SPC로 학사과정에서 일정 수준 능력을 갖추기엔 무리이며, 다양한 레벨의 공간 디자인을 창출하는 데 사고의 제약이 심함

무장애 / 안전 및 피난은 건축설계의 본질이 아닌 실무를 위한 기능적 교육으로 질적 저하를 일으키는 주요한 항목으로 여겨짐. 따라서 기초 교육 및 체크리스트 등을 개발하여 이수케 하고 이를 SPC에서 제외하거나 교육 이수율로 대체.

10 대지계획 : 범위가 너무 넓고 학생 수준에서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움. 15 건축과 도시설계 : 도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건축설계 진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도시계획의 기본원리까지 이해하고 비평적 관점으로 건축설계하라는 부분은 학생으로서 달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설계에서 방점을 두고 주제와 규모의 전반적인 다양성을 고민하게 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지만 SPC를 나누어 선정하여야 하는 부분이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느낌. 또한 시대적으로 추가 또는 배제되어도 되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고 강조할 수 있는 요소는 각 대학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보여짐.

설계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교수

종합설계가 건축설계의 통합적 완성도를 판단하는 질적 내용이 아닌, 실시도면을 작성하는 기능인 양성을 위한 질적 저하가 되는 항목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는 대학교들의 설계교육의 획일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증 받는 학교들이 실시도서 작성을 하는 기능인 양성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모든 건축대학이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건축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엉뚱한데 쓰게 되는 큰 손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합설계에 대한 항목이 보다 정성적·통합적으로 설계의 종합적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종합설계와 통합설계가 모호함 하나로 합칠 수 있으면 좋겠음

조사 및 분석: 건축적 사고 영역으로 추가하고 설계에서는 제외

건축법 및 관계법령: 설계 영역으로 추가하고 실무에서 제외. 실무영역은 법과 제도에 대한 윤리적 책임 등을 교육하는 것이 적절하며 실제 설계 과정에서 법의 적용은 설계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함.

대지계획과 도시설계 통합: 건축학에서 도시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지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대지계획과 도시설계 분석 내용 중 중복되는 항목이 있음

11. 무장애 설계와 12. 안전 및 피난 설계를 "무장애 및 피난설계"로 통합 13. 건물시스템 통합설계와 16. 종합설계를 "종합설계"로 통합

기술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건축사

철근콘크리트구조에 대한 심화교육 필요

'시공 및 건설관리'를 '실무'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은 건축물 설계 또는 계획에 필요한 '기술'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에 대한 이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스튜디오 설계과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과 그 의미(비용, 기간, 리스크 등)를 연계하여 이해 필요.

시방, 견적, 구조개념 및 기.전.소방 등 전반적인 통합 개념 필요.

건축사의 직업윤리부분은 요즘 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커지고 있으므로 건축사 윤리규정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용 및 비중이 확대되었으면 함.

환경조절시스템과 건축설비시스템 항목 결합 -> 비슷하고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항목임.

실무수련자

건축계획 과정에서 동시에 적용가능 항목 필요

설비와 구조가 실무랑 연결성이 전혀 없음.

건축 디테일과 현장 답사 혹은 체험 직접 연계

기술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교수

건축기술의 통합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함이 인증의 주요 방향임은 알겠으나, 수년간 제도 시행에 따라 오히려 건축 기술 분야의 인력감소 등은 건축설계 산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내용의 축소를 원하는 바는 아니며 이런 실태를 고려하여 추후 인증 방향설정에 반영하였으면 함.

17 구조원리와 시스템 : 구조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

18(환경조절시스템)과 19(건축설비시스템)을 통합하고 [2] 친환경계획(또는 에너지절약계획) 등의 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함

19. 건축설비 시스템: 기능과 설비 중심이 아닌 환경과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기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별도의 항목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18번 환경조절시스템 항목과 함께 보다 통합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지는게 더 발전적이라고 보고, 평가 또한 보다 통합적인 항목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 디지털 활용기술: 거의 모든 학교가 기초적인 단계의 디지털 활용 기술은 이루었다고 봅니다. 해당 항목이 막연하게 디지털 활용 기술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방향으로 항목의 내용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 시공 및 건설관리: 기초적인 시공기술에 대한 지식 및 건설관리에 대한 지식은 건축설계 및 건축교육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의무화하기 보다는 학교별로 추구하는 교육 방향에 따라 자율에 맞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건설관리는 제외: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는 하나, 과도한 건설관리 항목까지 필수적으로 교육할 필요는 없음

실무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건축사

'시공 및 건설관리'가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건축사의 업역은 시공감리, 발주, 건설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에서 실무 교육은 큰 의미 없다고 봄

실무는 인턴을 하면서 체험하는 것이 적절

학생은 학생답게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실에 풀어나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배웠으면 좋겠음. 실무과정은 졸업 후 건축사사무소에서 제대로 배우면 좋겠음. 그전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작업, 공동작업 시 문제 해결능력을 배웠으면 좋겠음.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확충되었으면 합니다.

계약 및 건축사 윤리 절차 등의 교육 필요.

사무실 운영, 회계원리 등 경영적 부분 추가

건축사 사무소의 운영과 관리 제외 -> 기준에 대한 교육이 모호함

실무수련자

실무 경험 필수 항목으로 추가 필요

사무소 운영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과목이 하나도 없음. 보여주기 식 과목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하여 수업 개선을 해야 됨

학교와 실무의 괴리

실무에서 변경(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SPC와 이유

교수

건축학 교육에 있어, 실무에서 수련하는 바와 학교에서 교육해야 하는 바가 분명히 달라야 함.

실무 항목들은 인증원 중심으로 별도 의무 교육 신설하면 됨 (졸업 후 실무 수련 기간 중)

실무에서 필요한 부분은 직접 실무 하는 것이 훨씬 좋음. 현장 실습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

24. 프로젝트 수행과 건축사의 역할 : 실무도서를 이해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개략 공사비 산정 부분은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부분적인 범위의 축소가 필요함
25. 건축사사무소의 운영과 관리 : 재무관리, 사업계획, 영업 및 수주, 조직관리 등은 학생들에게는 아직 와 닿지 않는 애기임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23. 건축사의 책임과 직업윤리/ 24. 프로젝트 수행과 건축사의 역할/ 25. 건축사 사무소의 운영과 관리/ 26. 건축법 및 관계 법령 : 위의 4개 항목으로 세분화 하기 보다는 1개 혹은 2개 정도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평가해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건축사의 윤리, 프로젝트의 수행, 사무소 운영등은 과도한 SPC의 내용은 학업 이후 실무3년 수행기간 건축사협회와 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기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 생각됨.

건축법 및 관계법령: 실무에서 설계로 조정 필요.

현행 인증기준에서 변경 혹은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건축사

SPC 상호간에 Mutual exclusiveness (상호 독립성?)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함. 어느 항목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반면 어느 다른 항목은 지나치게 세세한 하부적인 문제를 다루게 유도하는 것 같은 항목이 혼재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더 포괄적인 항목들이 프로그램에게 해석과 응용의 여지를 부여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학별 특화 항목이 필요함.

건축학교육인증은 최종적으로 건축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건축사=건축물 설계'가 바탕 또는 토대가 되어야 하지만, 다양한 건축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 또는 정보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률적인 아닌 각 대학별로 특화방안과 평가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1. 자체평가를 체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을 유도하도록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합니다 3차이상의 인증실사의 경우 불필요한 일정과 내용을 대폭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자체평가체계의 성취도를 높여 주는게 바람직합니다 2. 학생수행평가 기준의 경우 프로그램 측의 과도한 해석으로 말미암은 부작용이 상당해 보입니다 이를 위한 인증원의 해석과 실사 취지 등을 보완하여 해당 프로그램 측의 성숙된 대응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증기준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이상의 교과내용은 학교와 교수의 자율적인 방침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인증기준이 너무 세분화 되어있고 이를 빌미로 모든 학교와 학생들에게 획일화된 교육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과연 미래 건축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인증위원들의 월권행위와 과도한 지적, 간섭 역시 잘못된 인증기준지침에 근거한다고 보입니다.

획일화된 인증기준이 각 교육기관들로 하여금 고유의 특색있는 교과과정을 발전시키는 것을 저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인증기준보다는 범위는 넓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인증항목들을 통해 각 교육기관들에 자율성을 더 부여하고, 실무능력과 함께 건축에 대한 비판적 사고 및 실험정신을 장려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제도 역시 개선방향으로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인증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간소화하여 기존의 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증을 위한 인증이 아니라, 각 학교에게 교육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학교별 특성화가 가능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현재의 인증기준은 지나치게 학교, 교수들의 자율성을 침범하고 있으며, 인증 준비를 위한 과도한 준비와 비용이 소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행 인증기준에서 변경 혹은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실무수련자

학교에선 창의성을 우선으로 배워야 하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함. 그나마 구조 정도 도움이 되는데, 학교나 학생마다 성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애매함.

항목에 대한 선택과 유연성으로 학교별 특화를 형성해야 함. 기존엔 너무 뻑뻑하여 비슷한 포맷으로 구성되어 교육받지만 교수나 외부 환경 역량에 따라 결국 차별화된 환경이 구성될 수 밖에 없음. 오히려 학교별 인프라를 통해 특화 하는 방향도 적용해야 함.

현행 인증기준에서 변경 혹은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교수

대학의 개성과 자율성을 강화한다면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건축사 관련 내용은 건축사 취득 후 보수교육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됨. 건축법규 및 안전 그리고 무장애에 관련된 내용은 전문화된 이론 교과 및 실습의 형태로 운영이 더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대학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며 spc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종합하여 배포하거나(기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오히려 축소하여 기본 조건 정도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함.

기술비중의 부분이 좀더 낮아져야 하며 건축적 사고 및 공간 형태 등 개념적 부분 비중이 증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실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불필요하게 소모적이라 생각합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증 기준은 포괄적으로 구성하고 전문적인 영역은 학교별 특화 전략으로 구성되면 좋을 것 같음.

공학인증처럼 인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학교의 행정부담을 줄일 필요.

인증으로 인해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이 침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spc 수를 대폭 줄이고 학교의 자율성과 특화를 유도해야 함.

건축학인증프로그램 이수 이후 석사학위와 더불어 건축사 자격(일반의 자격과 유사)수여 방안과 연계 검토.

현행 인증기준에서 변경 혹은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교수

학부 5년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 건축학 인증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점수로 학과를 대부분 정해서 들어오는 현실에서 건축을 다학제적인 디자인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학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진정으로 전문직업으로 건축설계를 선택할 수 있는 단계에서 건축분야의 전문적 교육이 되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교육체계이지 않을까 생각됨.

가장 문제는 SPC 충족을 위한 형식적 교육이 상당수 진행되고 이것이 마치 문제풀이 요령처럼 상당수 프로그램들에 퍼져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교육을 포함한 상당수 인증/지원 프로그램들에서 자체평가 기준을 강조하는 것과 과를 함께하여 몇몇 필수 SPC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고민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자율 SPC나 선택 형 SPC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협회 등과 연계한 교육, 실무 과정 이수로 자동적으로 달성 가능한 SPC 개발 또는 기존 SPC 전환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협회와 연계하라고 할게 아니라 협회와 인증원 간의 연계를 통해 설계, 실무 관련 SPC를 자연스럽게 교과과정 내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기준 자체보다 실사 시 실사위원들이 인증 기준의 해석을 유연하고 넓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음.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설계교육의 방향을 강조하고 강화하는 것.

대학의 특성화 교육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것. 2. 무조건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에서부터, 변화에 따라 더욱 가르치는 것과, 이에 따라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변화하는 세상에 프로그램 스스로가 적응할 수 있도록 인증이 변화하여야 함.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과거의 틀로 평가를 지속하여서는 아니됨. 3. 프로그램 스스로 평가항목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함. 창의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창의성을 죽이는 평가방식을 고수하고 있음.

현재 인증 기준은 기술과 실무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챙겨야할 SPC 개수가 많아서, 숲을 보기보다는 나무를 보게 됨. 가능한 단순화하고, 각 학교가 해석할 여지를 줄 필요가 있음

현행에서 큰 변화는 또 다른 혼란과 불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SPC는 소폭 줄이고 자율적 항목을 추가해서 차별화에 방점을 두었다는 인식이 되도록 함이 좋겠음.

항목들의 통합과 정비가 필요하며, '대학'의 교육기관과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통해 교육되어야 할 내용의 구분이 필요함.

현행 인증기준에서 변경 혹은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교수

인증교육이 건축교육의 향상을 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증원에서 국제적 기준과 자격증 교류를 목표로 진행했던 5년제는 심각하게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학사학위로서 5년제를 하고있는 극소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마 저희가 아는 대부분의 선진국들 중에는 미국외에 유일한 나라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인증프로그램이 롤 모델로 적용했던 미국의 경우도 학부로서 5년제 프로그램은 주요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미국대학의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들을 보면, 미국의 건축계를 이끌어나가는 주요한 대학들의 대부분은 대학원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학부는 4년제 비인증을 하거나 학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대학원 중심교육으로 건축학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5년제 프로그램을 하는 대학들이 있지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대학원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5년제를 그대로 들여와서 한국에 적용한 것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국제기준의 5년은 미국을 제외한 유럽권에서는 3+2로 5년제를 하면서 3년 학부에 전체 5년을 마쳤을 경우 석사학위를 줍니다. 이미 이런 내용들은 인증원에서도 오래 전 부터 알고 있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학부의 교육이 영원히 평생직업으로 갈 필요가 없고, 다양한 분야들이 융합하고 섞이는 상황에서 건축학에서 고집하는 5년제로 인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잃게 되는 기회가 더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재 국내 인증대학들의 경우 상당수 1학년에서는 가볍게 설계수업(3학점)을 하고, 5학년에서는 1학기에 졸업설계를 하고 2학기에 취업준비를 하는 기형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건축교육이 밀도 있게 이루어지는 것은 3년반정도 입니다. 4년으로 운영을 해도 현재 5년제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의 인증교육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의 생존을 위한 교육은 죽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학과와 학생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와 건축계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대응을 고려한다면, 건축학인증프로그램을 5년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진지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진지하게 건축학인증을 4년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증실사를 2회 또는 3회 이상 통과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이라도 인증실사를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교육환경은 인증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학시스템 자체가 존립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인증원만이라도 더 이상 학교현장을 괴롭히는 악역을 맡지 않기를 간곡히 바램. (개인적으로 본인은 인증실사 주기마다 교수직을 그만둘까 심각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바램. 진심으로 인증이라는 말부터 지긋지긋함.)